

건축사 년

1999 **4** vol. 360

칼럼 **결과는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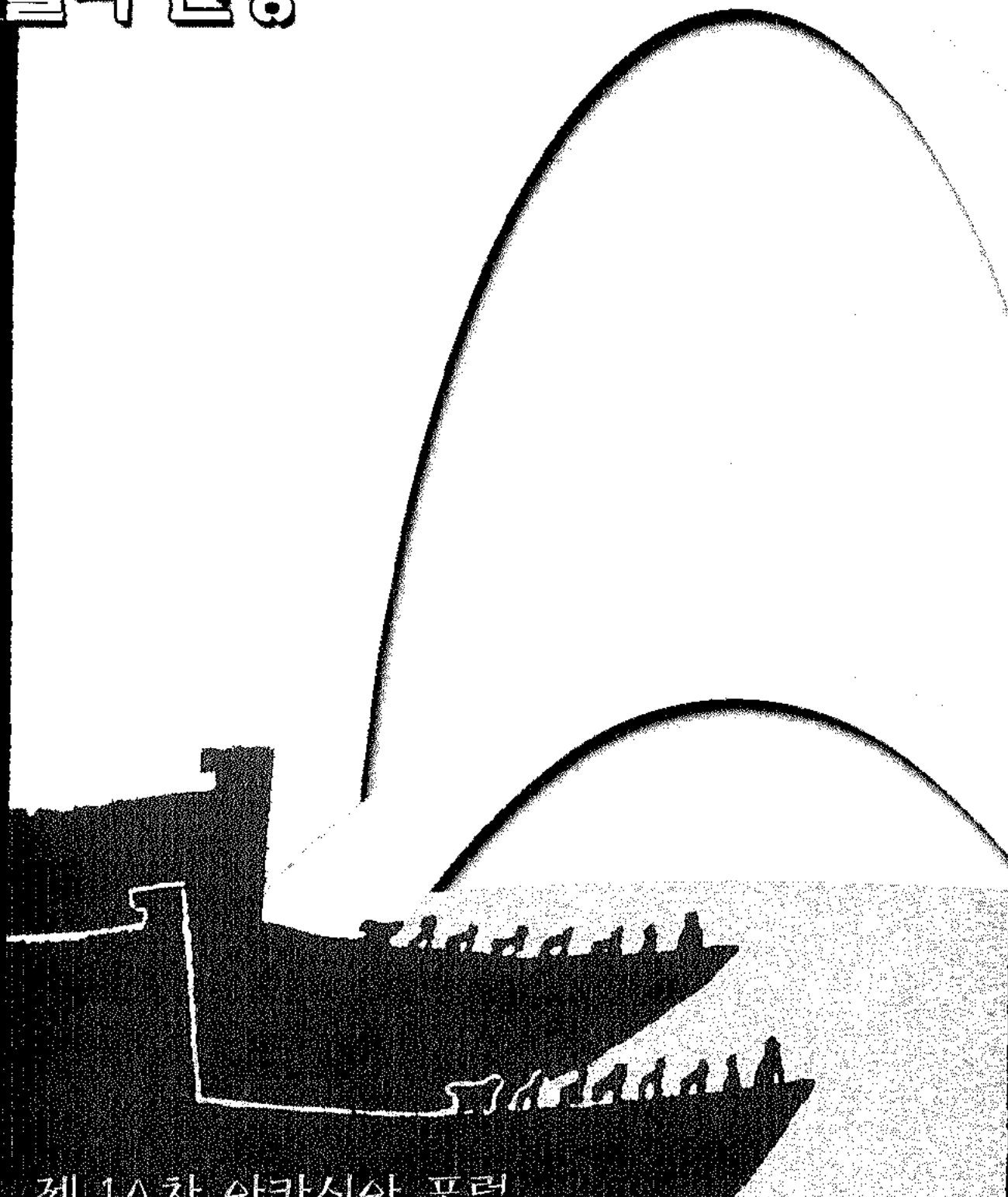
작품리뷰 **정감신사옥**

작품도보 **제갈려 31운동 순국 유적지 기념관**

해외건축 **프랑스건축 이론의 전통과 20세기건축(4)**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



제 10차 아카시아 포럼

일시 / 1999. 9. 13~17

장소 / 호텔 인터컨티넨탈 서울



플러스빅찬스

· 사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한
범용 CAD - UniCAD

· 100여 종 이상의 문서, 도면, 이미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출력 가능한 통합 뷰어 - UniVIEW

· 건축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건축설계 전용 CAD - UniARCH

· 기계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기계설계 전용 CAD - UniMECH



uniCAD 시스템을

구입하시면 매직스테이션을 드립니다

UniCAD 2.0 출시 및 20,000사용자 확보 기념 사은 행사로서,

UniMECH 번들 또는 UniARCH 번들을 구입하시면

CAD전문가용 삼성매직스테이션을, 패키지를 5 세트 이상 구입하시면

실리콘그래픽사의 NT Workstation 을 드립니다

새도약, 새출발 — 삼성SDS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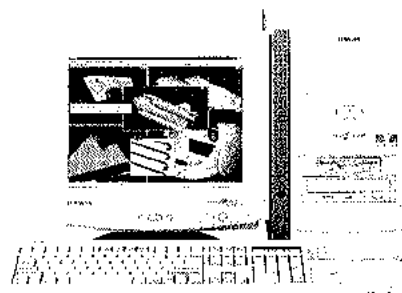
한스1 UniMECH Bundle ₩ 2,585,000 (VAT 포함)
 • UniMECH + UniVIEW 2D & 3D + 훈민정음 2000

UniARCH Bundle ₩ 2,585,000 (VAT 포함)
 • UniARCH + UniVIEW 2D & 3D + 훈민정음 2000

• 한정 2,000 Copy에 한하여 사은품으로 매직스테이션과 함께 UNITEL 3개월 무료이용권을 드립니다.

한스2 UniMECH 5 Copy 또는 UniARCH 5 Copy ₩ 9,950,000 (VAT 포함)
 • 한정 500 Copy (100 Set)에 한하여 사은품으로 5Copy당 SGI NT Workstation 1대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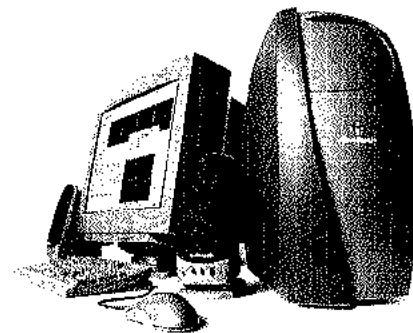
한스3 CAD Idea 공모전 ('99. 4. 15까지)
 • 접수 : E-mail ID : unicad@samsung.co.kr • 유니텔 : unicad
 • UniCAD 사용의 개선점, 불법 SW 근절 아이디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에 응모자 중 100명에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M2350-CAD

M2350-CAD 주요사양 (17" 모니터 포함)

- 350MHz 펜티엄 II 프로세서
- 512KB 캐쉬메모리(CPU내장형)
- 32배속 CD-ROM 드라이브
- ISA 3D사운드
- S/W : Windows98, Norton Anti-Virus
- 64MB SDRAM 메모리
- 3.2GB UltraDMA HDD
- PCI 그래픽카드(4MB)
- 56Kbps 초고속 팩스모뎀



NT Workstation

Silicon Graphics 320 비주얼 워크스테이션 주요사양 (17" 모니터 포함)

- Cobalt 그래픽 칩셋을 사용한 통합 비주얼 컴퓨팅(IVC) 아키텍처
- 최대 2개의 인텔 펜티엄 II 프로세서(350MHz)
- 10/100 이더넷, IEEE-1394, **USB, 전문가용 바디오 I/O 기본 장착
-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NT 워크스테이션 4.0 운영체제
- 128MB SDRAM 메모리
- 6.4GB HDD
- Graphic Development Tool Kit

대리점 및 교육 전문점 모집

문의처 : (02)3429-2214 / 2817 • URL : <http://www.unicad.co.kr>

후원 : 한국기계설계제도협회, 한국CAD/CAM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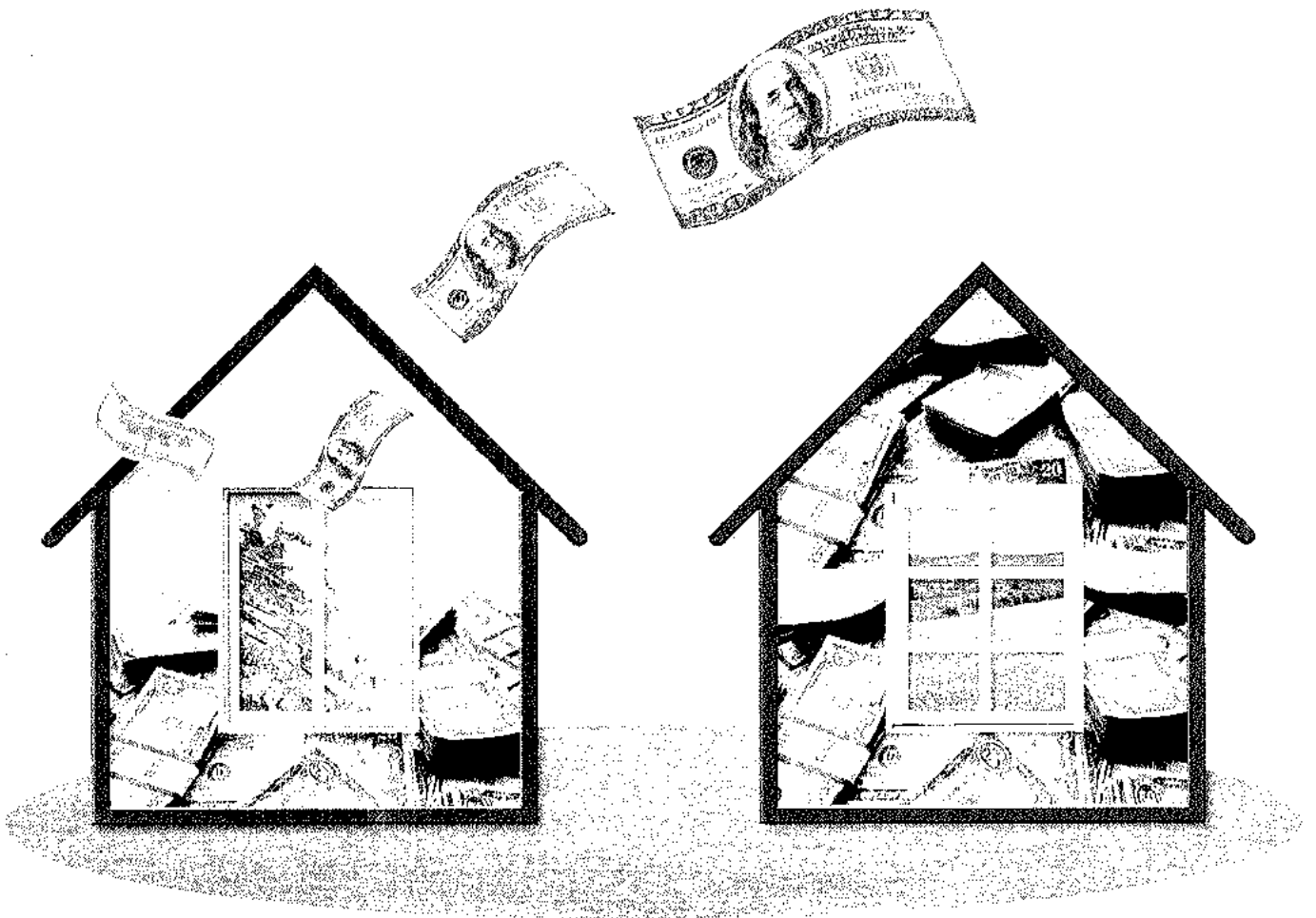
협찬 : 삼성전자 SiliconGraphics 유니텔

서울/캐디엔스/(02)861-7805 서울/인터브레인/(02)548-4721 수원/신홍COM/(031)221-7755 창원/경정정보/(051)267-5559 광주/경동시스템/(062)228-5900
 서울/삼강메리틀/(02)508-0894 서울/디지털파워/(02)3775-0814 대전/해상/(042)533-5171 창원/개야엔아이/(051)260-5341 광주/우진정보/(062)285-4300
 서울/SOS Eng./02)2638-0685 성남/서원컴네트/(0342)715-4366 대구/월드캐드랑/(053)568-0180 부산/포원정보/(051)301-1611 전주/전주컴퓨터랜드/(0562)771-5010

SAMSUNG

삼성SDS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다각질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윗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02)548-4041(대) · FAX: (02)543-3647

☎본 사: 충남 천안시 목천면 자산리 236번지 TEL: (0417)557-9687 · FAX: (0417)557-9689

☎부 산: (051)501-9006

☎강 남: (02)3442-0657

☎강 북: (02)2264-5506

☎대 구: (053)551-1770

☎송 파: (02)544-7104

☎인 천: (032)431-6732

☎의정부: (0351)877-3808

☎인 성: (0333)656-7504

☎전 안: (0417)575-8196

☎대전2: (042)633-5591

☎대전1: (042)485-2071

☎강 동: (02)474-1661

☎라 인: (02)552-3530

☎마 산: (0551)51-0011

☎제 주: (064)748-4811

☎서 부: (02)322-6812

☎울 산: (052)248-0900

☎인 양: (0343)471-7084

☎서 초: (02)575-3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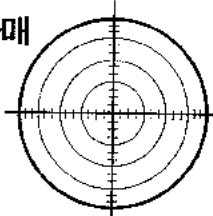
AutoCAD[®] 2000

한글판이 곧 출시됩니다

DOS환경의 디자인으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위해 최고의 기능으로 혁신된 AutoCAD 2000의 출시를 앞두고 AutoCAD R14 신규구매 고객을 위한 'AutoCAD 2000 업그레이드 쿠폰제공'과 '업그레이드 고객을 위한 사전예약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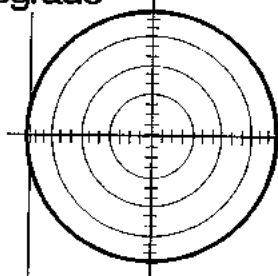
신규구매



지금 AutoCAD R14를 사시면 AutoCAD 2000 업그레이드를 보장 받습니다

- ▶ AutoCAD 2000 출시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R14를 미리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
- ▶ R14 구입시 45만원을 추가하시면 출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AutoCAD 2000 업그레이드를 보장받습니다.
- ▶ 신규 구입문의 : 오토데스크 공인 리셀러

Up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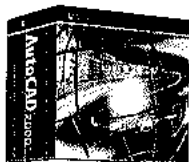


AutoCAD 2000 / AutoCAD R14 업그레이드 4월 20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 ▶ 신제품 출시 후에는 업그레이드 가격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 ▶ 4월 20일까지 사전예약고객에 한하여 AutoCAD 2000 출시후 30일 이내에 제품을 구매할경우 아래의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내역	4월 20일까지 사전예약시	5월 1일 이후 업그레이드시
AutoCAD R12 → AutoCAD 2000	95만원	150만원
AutoCAD R12 → AutoCAD R14	85만원	120만원
AutoCAD R13 → AutoCAD 2000	85만원	120만원
AutoCAD R13 → AutoCAD R14	75만원	85만원
AutoCAD R14 → AutoCAD 2000	X	75만원

▶ 업그레이드 문의 : 퍼플웨어, 02) 508-4821



AutoCAD 2000

AutoCAD 2000

AutoCAD R14에 있던 4000가지 혁신적인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배터리에선 실행속도도 R14에 비해 8-18%의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AutoCAD R14

사용자들이 인정한 AutoCAD 베스트 프러덕트!
AutoCAD R14는 R12 보다 40%, R13 보다 38%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Autodesk[®]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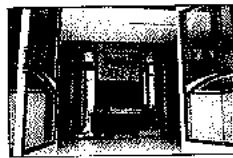
DESIGN
YOUR
WORLD



**에이디프로가
건축사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서울지사 02-3462-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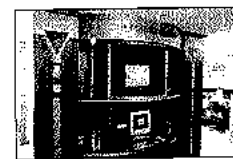
부산지사 051-743-2637



인천지사 032-471-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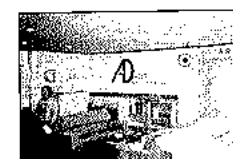
광주지사 062-234-2637



울산지사 052-232-2638



경기지사 032-698-2638



충부지사 0337-881-2638

건 축 설 계 용 역

ADpro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설계용역회사입니다.

- 계획설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업체입니다.
- 독자적인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첨단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사의 컴퓨터시스템을 직접 컨트롤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설계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싸고, 빠르며, 도면품질이 뛰어납니다.
- 특별히 아파트설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ADpro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좋습니다.

- 가입비가 무료입니다.
- 앞으로 1년 동안 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99만원인 건축캐드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립니다.

서울, 대구, 대전, 창원, 제주에서 ADpro를 운영할
능력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림캐드네트워크

본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4-3 부림빌딩 2층
전화 02-571-2638 팩스 02-573-7424

연구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7 남동빌딩 6층
전화 032-464-2638 팩스 032-464-2637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분	내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스카이라이프 종류 5컷 내외(복합지 참영가능), 설계개요, 설계소모 (200자 원고지 3~4매), 기초 도면(배치, 단면, 평면), 최근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미실현 작품
계획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노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모 (간략하게 200자 원고지 2매 내외)) 최근 원상설계 평가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원상설계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노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모 (간략하게 200자 원고지 2매 내외))
회원동향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사상 소개와 민관 상봉장기, 가득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상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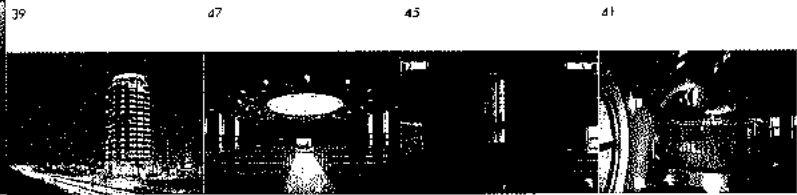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팀
(우편번호 137-070)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제1권 1999년 4월호



정림신사옥(김정철·문진호 作)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철, 조인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syoung@kira.or.kr
hkjin@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임시총회 개회사	선진 한국건축의 새 천년을 만들자	이의구	12
치사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	이정무	14
칼럼	결과는 과정에서	황일인	16
작품리뷰 / 정림신사옥		김정철·문진호	18
	대담: 장소와 랜드마크	양진황	26
	비평: 합리성과 그 극복	제해성	34
회원작품	한전기공 본사	이영희	38
	성안나 유치원	이기동	40
	용수리주택	김성곤	42
	울진 북면성당(공소)	허인원+김정신	44
	성모의 집	서보광·이중환	46
	강원도립대학 도서관	이각표+한광호	48
	아산루	김형민	50
작품노트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기념관	임재용	52
이카시아 ㉓	아시아건축사대회(ACA)	조인숙	56
건축정보	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A 국제 표준안(Ⅱ)-부록		58
기고	장례시설에 대한 건축적 제안	전병직	7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녹색에너지설계'로 부터	이실근	75
	건축가가 되겠다는 아들을 위해	김인환	78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4)	김미상	80
건축마당	협회소식		86
	건축계소식		91
	현상설계		97
	해외집지동향		103
	회원현황		109
	세미나		110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2월분)		112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Opening Speech For a New Millennium of Korea's Advanced Architecture	Lee Eui-Koo	12
--	-------------	----

Gratitude For a Competitive Spirit	Lee Jeong-Moo	14
------------------------------------	---------------	----

Column

Set the Procedure First	Hwang Il-In	16
-------------------------	-------------	----

Review / New Headquarter, JUNGLIM Architecture	Kim Jung-Chul & Moon Jin-Ho	18
--	-----------------------------	----

Interview Place and Landmark	Yang Jin-Hwang	26
------------------------------	----------------	----

Critique Rational Architecture and Beyond	Je Hae-Sung	34
---	-------------	----

Works

Korea Power Plant Service Co., LTD. Headquarters	Lee Young-Hee	38
--	---------------	----

St. Anne Nursery	Lee Ki-Dong	40
------------------	-------------	----

Yongsu-ri House	Kim Sung-Gon	42
-----------------	--------------	----

Buk-myon Catholic Church	Hurlhn-Won & Kim Jung-Shin	44
--------------------------	----------------------------	----

Holy Mother House	Seo Bo-Kwang & Lee Jung-Hwan	46
-------------------	------------------------------	----

The Library of Kangwon Provincial Junior Collage Asanru	Lee Gak-Pyo & Han Kwang-Ho	48
---	----------------------------	----

Asanru	Kim Hyung-Min	50
--------	---------------	----

Design Note

Jeam-ri Martyr Memorial Museum	Lim Jae-Yong	52
--------------------------------	--------------	----

ARCASIA ㉓

Introduction ACA(Asian Congress of Architects)	Cho In-Souk	56
--	-------------	----

Information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Ⅱ)		58
---	--	----

Feature

Architectural Proposal of Funeral Facilities	Jeon Byeong-Jig	70
--	-----------------	----

Energy Saving of Buildings the Green Energy Design	Lee Sil-Keun	75
--	--------------	----

For Those Would be Architects	Kim In-Hwan	78
-------------------------------	-------------	----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4)	Kim Mi-Sang	80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86
-----------	--	----

Archi-net		91
-----------	--	----

Competition		97
-------------	--	----

Overseas Journal		103
------------------	--	-----

Members		109
---------	--	-----

Seminar		110
---------	--	-----

Statistics		112
------------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달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8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8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6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양동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807 · 을지구건축사회/388-1486 · 중랑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9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그양지역건축사회/(0344)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9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30 · 양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8 · 외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8-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53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8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68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3847-303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9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5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900~2

경주시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5)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6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월지역건축사회/(0563)334-5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가창지역건축사회/(0596)943-608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0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5)683-45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82-2233

선진 한국건축의 새 천년을 만들자

For a New Millennium of Korea's Advanced Architecture

이외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건축계와 협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대리한 최중찬 차관님 또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자유민주연합 부총재이신 이인구의원님과 국민의회의 송현설의원님 그리고 역대회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이나, 우리들의 업무는 쉽사리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회원들이 겪는 고통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지난 시절, 고도성장의 풍요를 맘껏 누리던 중에 찾아온 터라 그 체감지수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건축사들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온갖 역경을 딛고 한국건축의 오늘을 이룩해 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의 자세로 선진한국건축의 새 천년을 열어 나갑시다.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한세기를 앞두고 커다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정부주도형 경제는 시장경제 위주로 체제가 바뀌고 있고, 규제위주정책은 업계 자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비롯한 우리 건축계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스스로의 변신을 서두르지 않고는 존립마저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회장직무를 수행한 지 이제 넉달남짓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경황없고 분주하기만 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행부 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회원들 곁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소 경영난에 고통 받는 회원들을 보면서, 또 구조조정으로 점든 직장을 떠나야 했던 사무처 직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해 갈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기에 지금의 상처를 가슴 한 켠에 묻고 협회를 거듭나게 하는데 앞장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기필코 오늘의 고통을 재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협회가 21세기 선진한국건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협회가 회원을 위한 존재인 만큼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질

적 향상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회원 권익옹호를 비롯해 업무관련 재교육, 정보지원, 민원관련 상담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연구 검토중에 있는 건축허가 전 산화에 대비해서도 소관위원회가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고객인 국민과 회원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회 사무처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회원서비스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말 사무처 전체직원수의 35%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원감축을 단행하고 조직 또한 팀위주로 축소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셋째,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건축과 건축사의 위상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 16개 회원국 건축사들이 참가하는 「아카시아 포럼」 국제행사를 서울에 유치해 아시아 국가간 건축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 건축사와 한국건축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국제 자격상호인증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자칫 국제무대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이번 포럼 기간중 UIA회장과 아시아지역 건축관련 유력인사들을 초청해 상호인증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삼단체를 주축으로 발이고 있는 각종 건축문화의 해 기념사업과 더불어 이번 서울에서의 국제포럼 행사가 건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아카시아 포럼」을 비롯한 「건축문화의 해」 기념사업들을 범국민적 행사로 완벽히 치뤄내기 위해서는 대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

건축경기의 장기침체 등 경제난과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 여러 환경변화들은 과거의 것에 안주하려해 왔던 우리 건축 업무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을 있게 한 제도나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미래의 행보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현실에 맞게 과감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협회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는 올해초 관심을 모았던 건축법 개정 과정에서도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각종 규제를 줄이는 등 우리의 의견을 대폭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법의 경우도 최대현안인 회원 임의가입 및 단체설립 자유화 문제는 물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도서신고조항도 일단 그 시행시기를 2001년까지 유보키로 법적 보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공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래에 있어 공급자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당연시되는 등 과거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미 건설관련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부분이 공제사업을 통해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기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협회 또한 설계·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보증과 배상문제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공제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총회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공제사업의 처음 출발은 이행보증 업무로부터 시작하지만 추후 '건축관련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으로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공제사업 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더이상 지난 시대의 안일함과 소모적 논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적 합의와 강력한 결속입니다.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본격적인 제도에 오르기까지 전 회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갑시다. 지금까지의 낮은 틀을 벗겨내고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한 "새 틀"을 만듭시다 !

아무쪼록 오늘의 총회가 한국건축의 오늘을 지켜온 우리 건축사들의 결집된 의지로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엄숙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끝으로 대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

For a Competitive Spirit

이정무 / 건설교통부 장관

by Lee Jeong-Moo

존경하는 이의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인구 의원님과 송현섭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우리는 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엄청난 교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도가 속출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유발되는 등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온 듯 합니다. 우리 건설산업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중 건축설계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건축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정부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 각 부문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됐던 용도변경허가 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시행령이 최근에 다 완비가 돼서 곧 대부분이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라는 것은 결국 건축사 여러분의 참여와 경쟁, 소비자 위주의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급하는 건축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소비자 위주로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해야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각

자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인해 우리 기업이라든가 전문가의 긍지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금년에 대부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은 6% 증액해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있고, 또 주택건설 면에서도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소비자 금융 등을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서 건설과 주택경기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SOC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한 8천억 이상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주택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최대한도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공부문이라든가 금융 기업 여러 부문에 걸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평가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경제의 회복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머지 않아 경제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축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소중한 자리는 위기극복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재결집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여러분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설계의 질 향상과 성실한 감리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편승해서 양적성장에 치중한 결과 건축의 질적발전을 등한시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많은 건물을 짓고 또 양적 확장을 위해 설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기울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높아져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관심, 또 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소득향상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이런 경향은 중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인간의 삶을 담는 건축 공간을 창조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설계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건축가연맹에서는 국가 간 건축사자격상호인증을 위한 국제표준안을 이미 작성하였으며, 머지 않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21세기의 건축설계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은 모두 사라지고 전 세계의 건축사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경쟁력 확보라는 것이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지난 정기총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과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도 새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의구 신임회장님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건축사협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건축분야의 어려움과 시련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소중한 자리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결과는 과정에서

Set the Procedure First

황일인 /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by Hwang Il-In

식물 도감에 보면 「너도 밤나무」, 「나도 생강」하는 식의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다. 이 놈들은 실은 밤나무나 생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단지 어떤 부분이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선진국들 모임에 가입하여 선진국 행세를 하겠다고 했을 때 뭐가 그리 급한가 했는데 정말 왜 그리 출석 했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선진국이란게 이름 붙인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닐 바에야 좀 더 내실을 다지고 겸손하게 굴었으면 덜 부끄럽지 않았겠나 싶다. 옛말에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빛을 내지 못하고(自見者不明),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自是者不彰)라고 했듯이 나라가 잘 나가면 남들이 먼저 알아보고 권했을 것이다.

어느날 느닷없이 나라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벌떡 뒤집어진 지도 벌써 일년이 넘었다.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IMF 구제금융을 구걸하여 급한 불은 껐지만 빚을 얻어 빚 갚은 격이니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런 엄청난 국가 재난이 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다.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감독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대안을 만드는 것이 그 기능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어 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무얼하고 일이 터지니까 기껏 "누가 어디다 보고를 했느냐 어쨌느냐" 가지고 아까운 세월을 보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따지는게 뭐가 그리 급할까. 따지나 마나 나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정작 다급한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건국후 최대 위기라는데 그리된 사연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불거져 나왔을 구조적인 문제다. 아니, 사실은 수없이 많은 이상 징조들이 이미 있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붕괴된 것이 작은 일인가. 어지간한 건물의 설계는 외국 건축가의 손에 넘어갔고(실은 스스로 넘겼지만) 미국인 목수가 더 경제적이라 했다. 지하철이고 고속철도고 설계를 시작하면 착공부터 하고 본다. 공사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이 터졌을 때 모두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했다.

60이 넘는 일본인 이케하라 씨가 생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에서 살면서 - 그의 표현대로 하려면 「맛아 죽을 각오」를 하고 -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은 우리가 IMF사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염치없는 한국인들」, 「무법천지 아, 대한민국」 등 몇 개의 소재육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비뚤어진 교육열과 교육제도, 안하무인격인 무례와 총체적 무질

서, 엉뚱한 과대 망상증, 비합리적 사고체계, 뿌리 깊은 부패와 정경유착, 장기적 안목의 결여 등...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치부를 세세히 적고 있다. 이 책을 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버틴 것 자체가 기적같이 느껴진다. 아무리 애정어린 충고라 해도 잘못에 대한 비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인데 한·일간의 특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로써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용기를 보여 주었다. 한국인들 스스로 문제 의식을 느끼고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지난 30년 우리는 모든 가치의 척도를 경제에만 두어 왔다. 자타가 인정하는 놀라운 양적성장을 이끌어냈으나 「결과」만을 최고의 선으로 치부하도록 길들여져 온 것도 사실이다. 과정이 무시됨으로써 「삶의 원칙」이 그 빛을 잃었다. 금세기 전반부의 굴욕적 역사와 비극적 동란 공간에 더해진 이러한 요소들이 이케하라 씨에 의해 지적된 「한국적 현상」들의 단초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짧은 기간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우리 사회가 가진 과거의 틀로써 안고 있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저간의 사태를 극복하는 길은 새로운 세기의 세계 질서에 부응하도록 국가 가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개혁의 첫걸음은 모든 일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에 있다. 「빨리 빨리」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와 환경보호 단체들 사이에 뜨겁게 일고 있는 「동강」 논쟁이 크게 관심을 끈다. 「동강」의 귀추를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것을 다루는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내는가를 봄으로써 우리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구호였던 개발과 경제 우선의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와 「삶의 질」을 국정 목표로 세운 바 있다. 「동강」은 정부 스스로 표방한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물 사정은 질과 양 양면에서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남한강의 치수와 장래의 물부족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인 것과 똑같이 자연 환경의 보존도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며 더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댐의 안전성 문제는 듣기에도 민망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나온 계획이라고 믿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더욱이 물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댐의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기간시설을 다루는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과묵한 태이기를 바라지만 댐의 수질 유지 대책 역시 언급이 없다. 물을 담당한 부서간의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수질 보존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수원 확보는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한강 수계와 관련하여 팔당 수질 특별 대책구역 내에 사업비의 일정 수준 이상을 외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대규모 위락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라 한다. 수질오염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상 얼마나 어렵고 상상 못할 투자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누구나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규모 위락시설을 세워야 하는 타당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얼마전 모처럼 계획된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시안은 거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성안도 못한 채 유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려운 국가 경제회복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짐작은 되나 그야말로 본말을 바꾸게 될까 염려된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자원을 제대로 보존하지도 못한다면 새로운 수자원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은 인간 생명유지의 원천이며 한번 파괴된 자연은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 그동안의 서해안 개발, 신도시, 고속철도 건설 등 중요한 국가 기간 시설 수행 과정에서 국가정책은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근거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 없는 무리한 집행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하여 일어난 무모한 환경파괴와 수많은 시행착오는 필연적 결과였다.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정책 결정이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강」으로 표상되는 새 정부의 모습은 이제 이런 전철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보호단체가 염려하고 궁금해 하는 어름치나 수달 등 희귀 동·식물에 대한 대책, 석회암 동굴의 현황과 이들이 물에 잠겼을 때의 결과 연약지반과 지진에 대한 대비, 경관 변화가 주는 영향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해서 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국토와 자연은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확실한 결론이 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IMF 사태가 왔을 때 원로 한 분께서 「이제야 살았구나. 이것은 나라가 망조로부터 구제되는 하늘이 주신 메세지」라고 하였다. 그분 말씀대로 이 위기가 국가 기반을 다시 잡게 해 주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마오, 그러나 쉬지도 마오」라는 피테의 충고를 덧붙였다.

류시화가 10여차례의 인도기행에서 터득한 바 대로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면서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

New Headquarter, JUNGLIM Architecture

김정철 · 문진호 / (주)정림건축

Designed by Kim Jung-Chul & Moon Jin-Ho

건축개요

위치	서울 종로구 연건동 187-1와 10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방화지구, 2종미관지구, 도시설계
대지면적	694.4㎡
건축면적	402.91㎡
연면적	8,527.48㎡
건폐율	58.02%
용적률	838.68%
규모	지하6층, 지상15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컬러알루미늄쉬트, 외장용타일 창호/컬러알루미늄새시, 24mm Low-E 유리
설계담당	채재학, 박기호, 진권, 홍석중, 최유중, 여상진, 김복수
구조설계	선구조
설비	정림기계부
전기	정림전기부
조경	정림조경부



서쪽 야경

상호작용 - 적응과 부적응

건축행위란 무지와 주변도로와의 접근체계, 땅과 건물의 요소 풀이, 신축건물과 기존 인근건물과의 갈등, 건물과 사람과의 동화, 건물내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을 풀어나가는 작업이다. 더불어 건물내 자동차의 자리 싸움, 시간과 돈이라는 주머니 고민, 건물을 통한 이미지나 자부심같은 정서적인 교감들이 중요시된다. 이 사옥은 예정대로 도로가 확장되면 변화한 이화동 사거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게 되는 랜드마크적인 속성을 갖는 동시에 좁고 번잡한 이면도로의 교통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광화문-안국동-대학로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두르고 도심의 비즈니스, 기독교메카, 동대문상권과 같이 서로 상충되는 권역의 접경에 놓인다. 한편 대학로의 저층 건물군에서 종로 쪽의 하이 라이즈군으로 이월되는 스카이라인의 충돌이 예상되는 곳이다. 하나의 건물이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도시조건을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건에의 적응과 부적응의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이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전면도로쪽에 면한 높은 코어월의 매스감과 수직성, 그것을 수평으로 돌아 감싸며 사거리 모퉁이에 적응하는 유리면의 해법은 실상 도로 가각 정리를 수용하고 대지효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층간의 수평 날개는 건물의 스케일을 낮추려는 작업이고, 전면에 면한 출입구를 이면도로로 해결한 것은 법적인 지침을 따른 것이다. 대학로에서 볼 때, 종로 5가 블록쪽으로 게이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탑의 장식이 일부 사용되었다. 반면 가까이 보아 디테일의 마무리가 부족한 것은 시간과 돈의 함수관계의 결과이다.

일과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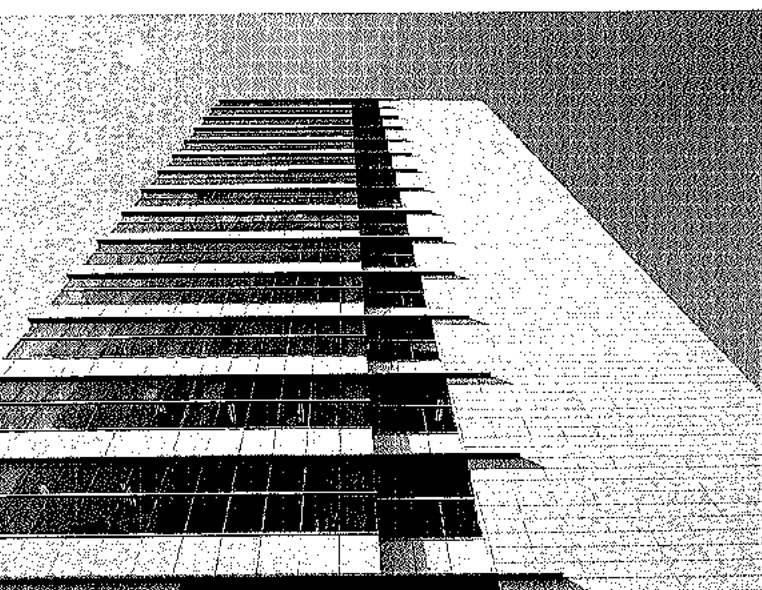
건물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연적인 요소는 멀리 건너다 보이는 서울의 산자락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태양의 위치,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흐르는 바람의 영향 등이다. 일과 중에 일하고 휴식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산과 해와 바람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당히 가리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침 출근 무렵이면 동녘에서 비치는 밝은 햇빛에서 희망찬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내내 남녘의 창가를 환히 비추도록 동쪽과 남쪽에는 충분한 채광면적을 확보하였다. 반면 낮게 나르는 석양빛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건물의 코아를 서쪽에 배치하여 서편을 차단하였다. 일조에 대한 대응과 향에 대한 대응이 펼쳐지는 수려한 북한산을 사선의 화쪽에 담기 위해서는 전면을 커튼월로 처리해야만 했다. 외장재로 사용된 대형 건물식 타일은 시공간의 간편함과 동시에 비만 오면 새건물이 되는 자정효과를 갖고 있어 설계사무실 사옥으로서의 실험적인 재료정신에 걸맞는다. 하루종일 일에 지쳐있을 때 피로를 몰아내는 한잔의 커피와 담배 한 모금을 즐기기에 가장 사랑받는 곳이 남쪽에 면한 계단실과 10층 점권실이다. 서울 도심의 하이라이즈가 한눈에 들어오고 남산타워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서는 정림의 사랑채이다. 설계실은 충분한 층고를 두어 향후 부분적인 증강층을 걸 수 있도록 하였고, 천장은 마감없이 골조와 각종 배관을 노출하여 개방감을 보태고 공사비 절감에도 한 몫 하였다. 완성되지 않은 공간이 매력적인 것은 하나의 작업적인 병일지도 모른다. 정림건축의 브레인차일드들은 제각기 자랑스러운 공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 입구주변이나 아트리움에서 약간의 공간적인 놀라운 변화를 주어 가장 사랑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마련하려는 의도이다. 출퇴근과 외부방문객을 환영하기 위해 입구로비와 10층 접견층에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 이 사옥은 정림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여 하루종일 프로젝트와 씨름하고 고객에게 봉사하며 저녁 늦게나 집으로 향하는 직원들의 일상성이 도리어 중심이 되는 '삶의 체험' 현장이다.

Mutual Action: Adapting or Letting Go

To practice architecture, its performer has to deal with layers of problems: that of approaching method between the site and its connecting road, relation between the site and the building, its conflict with existing buildings, its connection with its users, and the interaction among its users. In addition, the task of arranging the parking spaces in a limited area, establishing identity and pride through the architectural work within the confinements of money and time add to the laborious procedure. The new headquarter of Junglim Architecture occupies a place of landmark value - one corner of the Ewha-dong junction, where the destined development of the grand road will add to its regional significance - but at the same time inherits the responsibility to solve the traffics of the narrow rear road. The area is also the meeting point between the cultural band of Seoul, connecting Kwanghwamoon-Ankukdong-Daehakro line, and those of the city's business, religion and market districts. It is where the low story buildings of Daehakro and Chongro's high-rises encounter with each other; rupture within the overall skyline of the buildings is most likely to occur. It is rather too demanding of a single building to meet these requirements of its urban context. It can be said that it is left to the architect to make adjustments for certain conditions, and let go of a few others. The massive vertical volume of the core wall, facing the front road, horizontally surrounded by glass planes from all directions, takes in the arbitrary angles of the roads and makes full use of the site's area.



등록 벽면 상세

The repetitive horizontal wings of each floor diminish the massiveness of the building, and the entrance's location on its rear side was decid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uilding codes. From Daehakro, the building acts as a gateway to Chongro 5-ga region, which motivated the addition of the roof's ornaments. The shortcomings in the finishing of the details, on the other hand, was the result of temporal and financial constraints.

Work and Rest

The choice of nature accessible to the building's users was not a broad one: a view of a far mountain, the daily movement of the sun, and the breath of wind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or vice versa. To accommodate the working and resting condition of the employees, the acceptance or partial concealment of these elements of nature became crucial to the design. The facade's openness towards east and south invites the morning sunlight into the office spaces and illuminates them throughout the day. In contrast, the burning light at dusk is obstructed by positioning the core on the west. The application of the curtain wall on the facade was efficient both for lighting and the framing of Mt. Bukhan's panoramic grandeur. The tiles used in the exterior finishings are not only economical in construction, but leave the traces of the rain and meet the demand of the firm's experimental ends. Those who are tired from a day's work can enjoy relaxation in the staircase of the south or the 10th floor's reception room. The windows of the latter introduces the images of Seoul's highrises, and here even the Namsan Tower seems to be at an arm's reach. To compare it with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this space may well be called Junglim's Sarangbang. The height of the designing laboratories were rather high, leaving space for future insertion of floors. The ceiling is in its primary state: structural beams and mechanical installations were left uncovered, reducing the construction costs while adding to the openness of the space. This beauty in this sort of 'unfinished space' may be confined to the taste of architects: every brainchild of Junglim produce idiosyncratic spaces of pride. Areas around the entrance or the atrium is endowed with a few spatial touches of pleasure, which enhances the warm reception of the users - The main lobby and the reception hall of the 10th floor primarily comes to mind. The everyday of Junglim's work force - from arriving at work early in the morning to the strenuous process of designing, often leaving the office late at night - becomes the heart of this architecture, which is the very site of living and working in progress.

Location 187-1, Yungun-dong, Jongro-gu, Seoul

Area Classification Regular Commercial District, Parking Arrangement-Required Area, Fireproof-Required Area, Aesthetically-Controlled Area, Urban Design District

Site Area 694.4m²

Building Area 402.91m²

Total Floor Area 8,527.48m²

Building Coverage Ratio 58.02%

Gross Floor Ratio 838.68%

Stories 15 Stories, 6 Basement Floors

Structure Stee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Major Installations Panel Heating System

Exterior Finishings Wall - Color Aluminum Sheet, Tiles

Windows - Color Aluminum Sash, 24mm Low-E Glass

Design Chae Jae-hack, Park Gi-ho, Jin Kwon, Hong Suk-jong, Choi Yu-jong, Yeo Sang-jin, Kim Bok-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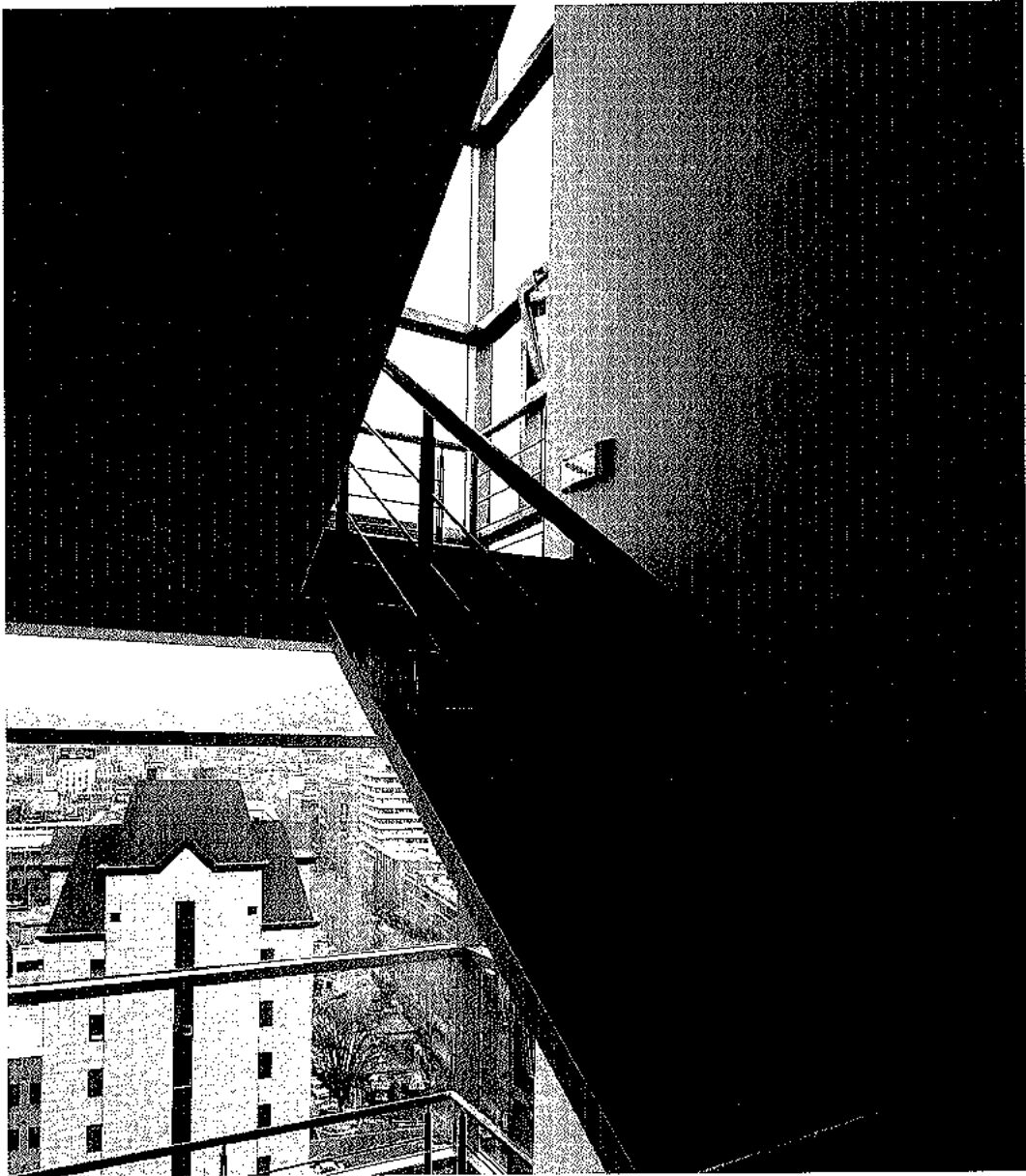
Structural Design Sen Engineers

Mechanical Installations Junglim Mechanics

Electrical Installations Junglim Elec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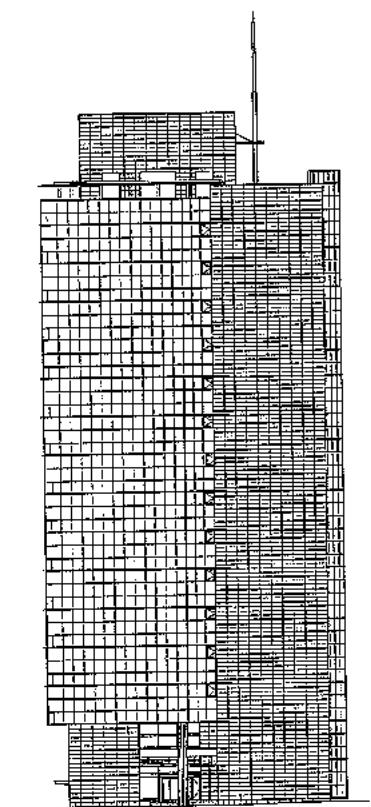
Landscape Design Junglim Landsca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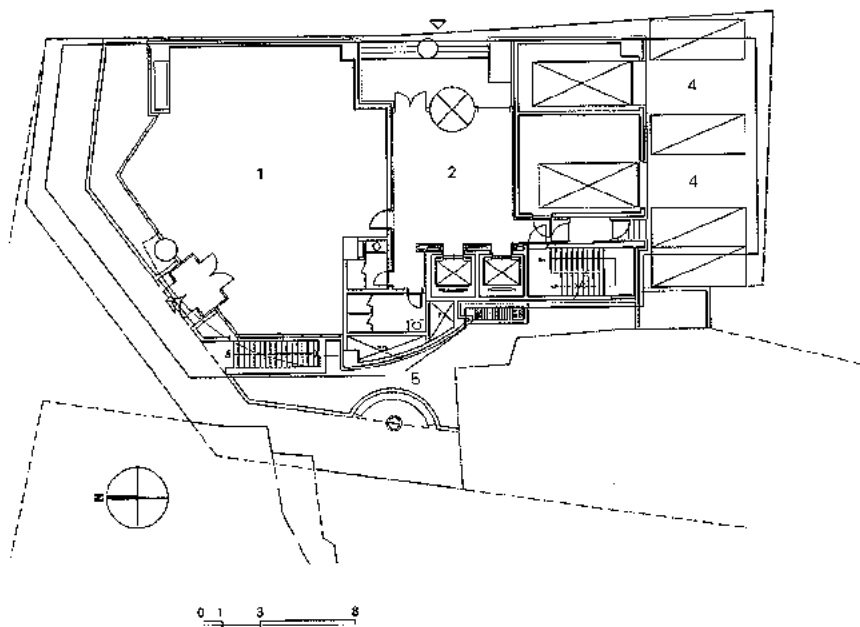




오픈된 10,11층 홀에서 밖을 내다본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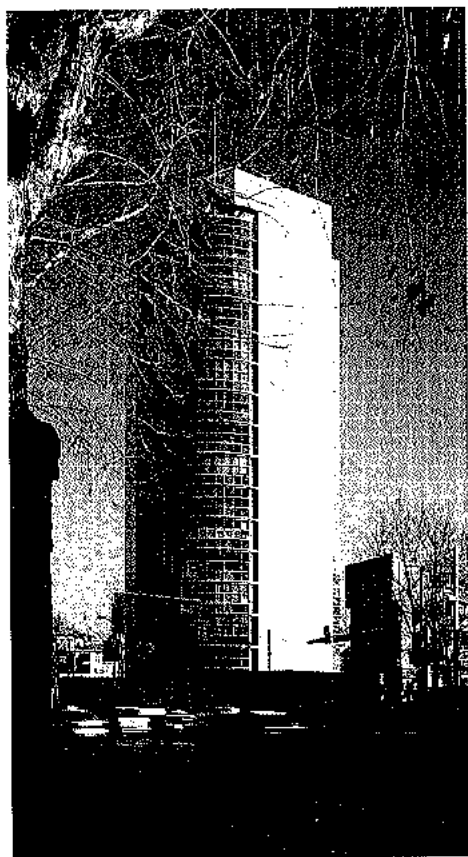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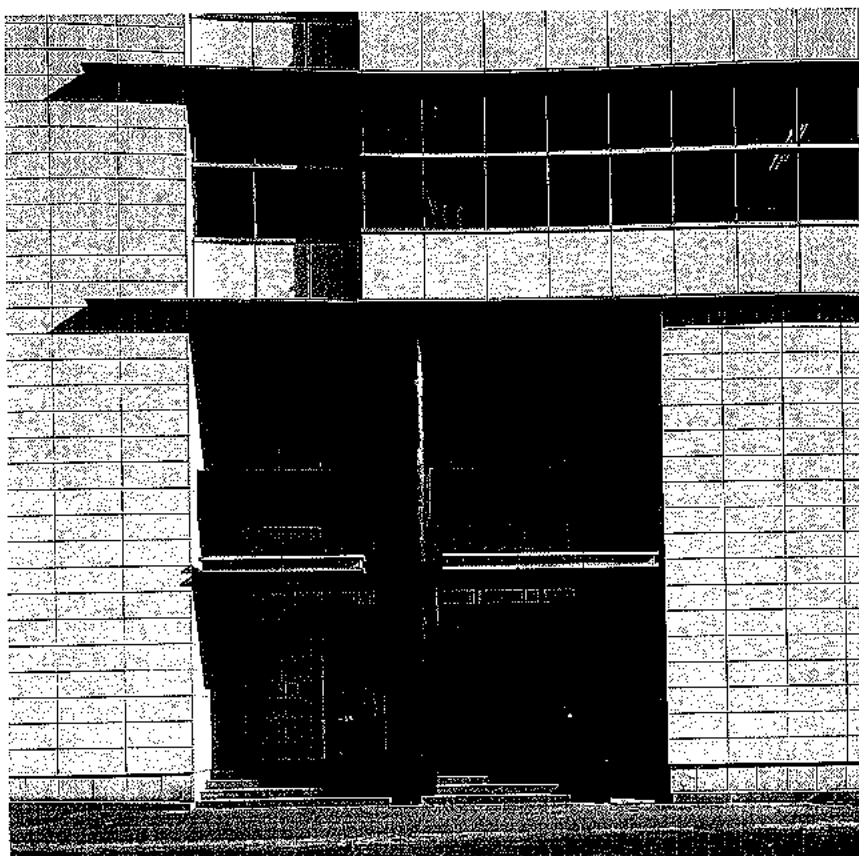


1. 금융업소
2. 로비
3. 주차입구
4. 주차출입구
5. 공개공지
6. 사무실
7. 엘리베이터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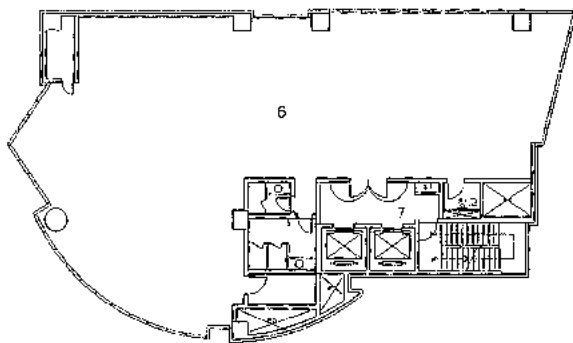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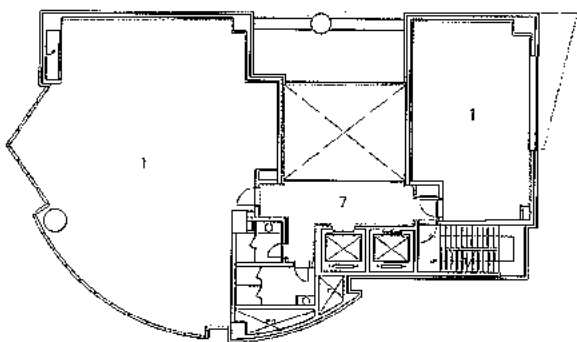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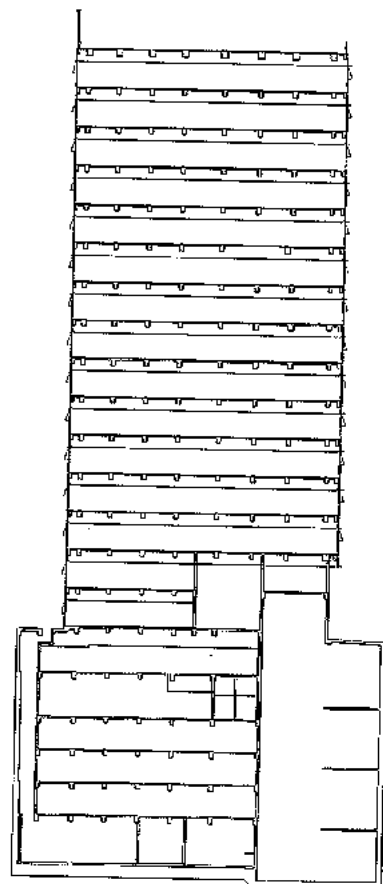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단면도



11층 홀



12층 오픈된 엘리베이터 홀

장소와 랜드마크

Place & Landmark

건축사 / 김정철 · 문진호(정림건축)

대담자 / 양진황(한울건축)

Kim Jung-Chul, Moon Jin-Ho & Yang Jin-Hwang

일시 / 99. 3. 18.(목) 15 : 30

장소 / 정림건축 회의실



대담장경(왼쪽: 양진황, 가운데: 김정철, 오른쪽: 문진호)

양진황 _____ 먼저 사옥을 신축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무실을 발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대개 건축가들이 자기 스튜디오가 있는 아늑한 공간을 갖고자하는 것이 꿈인데, 정림건축에서는 두 번이나 사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 개념에서 사옥을 두 번이나 갖게 된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철 _____ 먼저 정림신사옥을 선정하고 대담을 하게 해준 사협회와 또 이 대담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양진황소장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옥을 가진 것이 두 번째가 되는데 첫 번째는 75년도에 대학로가 생기기 전 이화동네거리에서 동대문까지의 울곡로에 위치한 대지를 확보해서 당시로서는 꽤 큰 규모인 600평 정도의 사옥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사옥에서 설계작업을 하다보니까 회사규모와 인원이 늘어서 원활한 설계활동을 하는데 충족한 공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옥을 짓기전에는 3곳의 작업장에 나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겠고, 창작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반사무를 보는 것과 달라서 작품을 다루는데 그 작품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나 설계자의 사유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 공간에 모아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침 창립 30주년이라는 때를 맞추어 신사옥을 짓자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사옥때와는 다르게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구사옥이 지어질 당시는 한 도로에 면한 대지였다면 신사옥을 지을 때는 십자로의 모퉁이에 해당하는 땅으로 대지조건이 변했습니다. 정림으로서 이 사회가 이런 기회를 준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따금 회사를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팀을 구성하여 조직설계를 하면서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양진황 _____ 그동안 많은 기간동안 대부분 실제 사용자와 설계자가 다른 건물을 설계하셨는데 사옥의 경우는 다른 것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요구조건을 만들어내고 또 만족시켜나가야하는 설계과정인데 실제 사용자와 설계자가 같은 경우에 설계의 방법내지는 설계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철 _____ 확실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해 오던 것과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가장 이상적이고 일차원 설계작업을 할 수도 있고, 반면 내재하고 있는 요구조건을 정리해서 그것을 공간으로 바꾸어 설계를 완성해서 지으려고 하니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계작업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여건이나 요소 중에서 선택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자기자신의 일을 직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건물의 소유주로서 몇가지 조건만 제시했을 뿐 설계는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가 따로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설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축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작업을 못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것이 통례인데, 그런 것들이 다소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런 작업이었습니다.

양진황 _____ 우리가 사용자와 설계자가 사회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갖고 있을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크라이테리아(Criteria) 중에 몇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할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욕구도 크게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쉬운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설계에 임할 때에 설계 방법론상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문진호 _____ 예전에 일본과 미국의 유력한 설계회사를 다수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자료들이 신사옥을 지을 때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공간이 우리보다 넓고 부대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 특히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공간이 잘 꾸며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사무소에 대한 첫인상이 중요한데 외국에서는 대기실에서 고객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면서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기 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관해 여러가지 좋은 예들이 많았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는 전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유시설, 개인공간 확보, 편의시설 확대 등 많은 의견이 나왔고, 수시로 직원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사옥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지만 설계과정에 적극적인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한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했고 그 이후에도 학교건물, 상업건물 등을 수행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상업건물일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점원이 되어 현장을 목격하고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자와의 인터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직원들이 고용자가 되어보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진황 _____ 처음에 계획한 프로그램과 완공후의 프로그램상의 변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내부용도의 변화라든지 사용방법 측면에서의 변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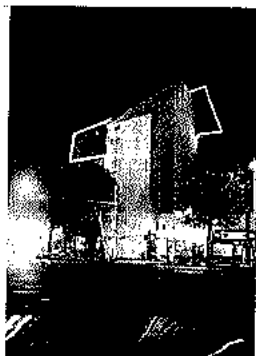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초기에는 유사한 업종끼리 모이기로 계획됐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사옥을 짓는다면 설계나 디자인에 관계된 회사들이 대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입주한다는 생각으로 규모를 결정하게 됐고, 그 당시 대학로 주변이 상당히 문화적인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네거리의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겠고,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게이트의 역할을 감안해서 건물의 높이, 크기, 모양 등이 결정됐습니다. 심지어는 24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문진호 _____ 그의 설계진행 과정에서의 변화는 초기에 디자인 전담팀의 별도공간이 두 개층이 계획됐었고, 입구의 오픈된 공간처럼 두 개층을 이용하여 철재로 좁고 긴 공간을 만들어 자료실로 활용하도록 계획됐었는데 실현을 못시킨 것이 아쉽습니다. 반면에 지하 2층은 현재 다른 용도로 들어와 있지만 언제든지 문화공연장, 전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진황 _____ 사실은 그런 공간이 상당히 기대되는 위치이고 건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지상층에서 2개정도 오픈되면서 공간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용도가 결부되는 포인트가 몇 개 더 있었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사옥 건물보다는 규모도 커지고, 위치도 접한 면이 달라짐으로써 이 건축이 갖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커졌을 때 물론 작을 때는 조금 소홀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커지면 눈에 빨리 띄고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환경에 대해서 배려한 점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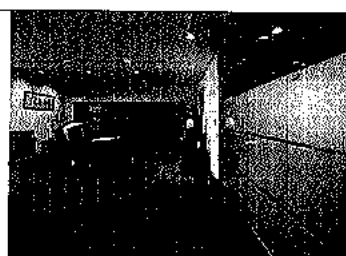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설계를 담당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알리기 때문에 나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보다는 여기가 문화의 거리답게 지하에 문화공간을 수용하고 싶었고, 중요한 층에는 미술이나 갤러리 등과 관련시키고 싶었습니다. 또 각 층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층을 빼놓고는 설계와 관계된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회사가 한 건물에 모여서 협동작업이 되면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볼 때에 아래층에 피로티를 두고 사람들이 거쳐



정림구사옥



정림신사옥(야경)



정림신사옥(출)

가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땅은 협소한데 하고자하는 욕구는 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위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않으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흔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변의 도시 컨텍스트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어떤 컨텍스트에 조화를 이루어나간다고보다는 거의 기존의 컨텍스트를 존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기준을 건물들 통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단층대지는 건축적으로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옛날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이 건물이 주는 영향력을 설계하는 사람은 디자인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양진황 75년 구사옥이 설립된 이후 이 지역의 장기 거주자로서 이 사이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로가 활성화가 됐다든지 등 가로환경의 변화를 통해 25년여 동안 이땅에 살면서 지켜보고 느끼는 땅에 대한 애착이 구체적으로 건축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철 땅에 대한 특별한 애착보다도 그동안 이땅에 와서 정림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땅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다행히 대학가라는 문화거리와 가깝고 거기에 표식구실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75년 처음에 이사올 때는 원남동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도로는 계획만 있었고, 그 도로가 개통되면서 정림 구사옥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의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로 명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의 시점과 정림 구사옥의 운명이 일치된 셈입니다.

양진황 대지 위치를 다시한번 보니까 동대문에서 정림사옥이 있는 네거리를 지나서 비원으로 가는 가로상의 중심이고, 또 대학로에서 사옥을 중심으로 종로5가로 도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정림사옥을 중심으로 동대문과 종로5가 쪽의 분위기하고 대학로나 비원이나 창경궁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변환경과 관련해서 정림사옥이 갖는 장소성에 대

해 계획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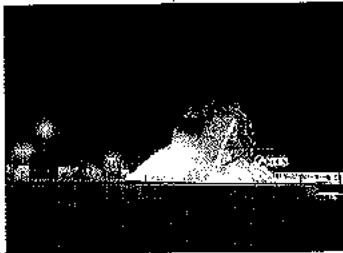
문진호 설계당시 주변성격은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관이라든가, 동대문시장, 문화거리, 인근의 여러 건축사사무소, 고적의 흔적 등 주변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했는데 그것이 건축에 구체적으로 작용한 흔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의 매스계획에 있어서 큰 볼륨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6층 규모의 구사옥을 허물지 않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15층정도의 신사옥을 계획했었습니다. 구사옥은 전면 파사드만 손질을 하고 중간에 코아를 만들어 후면 레벨을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느끼는 스케일이 작은 매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큰 스케일의 매스가 나오는 것이 타와 건물에 대한 존경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흔적을 남기자는 뜻도 있었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결부되다보니까 마음 속의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면 신축사옥을 짓게 된 것입니다.

양진황 교차로의 네거리, 더더욱 대학로에서 보면 시각적 터미너스가 되는 위치에 사옥이 들어섰습니다. 운명적으로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나 형태상에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 그리고 사옥이 갖는 디자인상의 특별한 표현방법이 있었는지 여러가지 스타일이라든지 시대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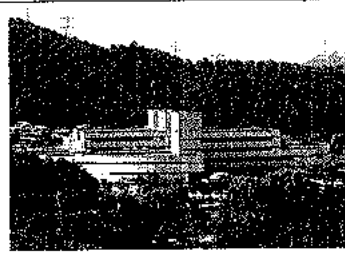
김정철 몇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장소적인 의미에서 십자로의 코너에 있는 대지에서 서 있는 건물, 대학로를 보고 얘기할 때는 게이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물이 주는 건축적인 의미가 그동안 매시브하고 무겁고 폐쇄적이고 콘크리트 전용적인 건물을 많이 지어왔는데 그런 부담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가볍으면서 심플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간에는 조명탑처럼 항상 따뜻한 불빛이 비추나오는 바다의 등대 같은 타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림신사옥(설계실)



한국종합전시장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 전자교환운용연구관

양진황..... 형태는 너무 매시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료는 같은 의미로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구사옥과 신사옥을 비교했을 때 구사옥은 외벽이 조적조나 타일로 솔리드하고 색깔도 짙은 밤색으로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둡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현재처럼 주변건물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썩 작아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사옥은 가볍고 투명해 보이는 구사옥에 비해 반대적 건축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된다는 점이 처음에 사옥을 생각했을 때의 상황과 어떤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칭되는 건축언어로 표현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철..... 특별히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다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6층 규모의 건물이면 꽤 큰 규모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변의 랜드마크가 된다는지 상징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공간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또 삼양사 건물에 사용한 PC패널을 선택, 적용하면서 색깔이 좀 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 PC 커튼월을 감싼 것이 정립사옥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삼성건물 등이 그 이전에 있었지만 그것은 철골로 올라간 것이고 삼양사는 RC 건물에 PC패널을 붙여서 커튼월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썼던 타일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은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또 설계사무소가 있는 건물이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이냐 하는 당면과제들을 디자인하면서 생각을 했고 또 결정하는 단계에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느끼는 것이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면 주변에 당연히 압박감을 주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켰다고 생각하고, 어느 면에서 봐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건물이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랜드마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구사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플하게 외벽의 타일과 커튼월 두 점으로 대별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디테일을 다룬지키느냐 등의 문제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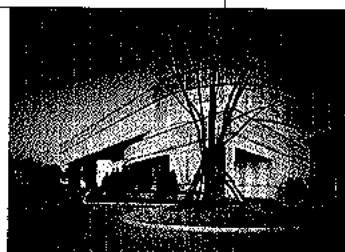
결했다고 보는데 사실 야간에 조명은 건물외부에서 비치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서 빛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내부에 조명을 함으로써 빛이 밖으로 새나오도록 해서 하나의 발광체가 돼서 불이 꺼진 밤에도 최소한의 조명으로 거리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진황..... 네방향에서 볼때 형태적으로 전혀 다르므로 동일건물임을 의식하게 해주는 요소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둥근 커튼월이 쓰였으면 다른 부분에도 둥근부분이 있음을 연상시키는 힌트가 나타난다든지 흔하들 그렇게 예측하기 쉽습니다. 이 건물의 형태가 정해지계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생각에는 혹시 이 사옥을 중심으로 네방향으로 크게 두 길이 흐르고 있는데 각각의 원거리시점에서 이 건물을 보는 뷰(View)를 감안한다든지 또는 내부공간의 효율성이 감안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철..... 그동안 설계작업은 그야말로 정면, 측면, 배면이 있는 박스형태의 작업을 해왔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것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가 너무 경직돼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작품에 곡면을 이용했다든가 실린더를 사용한다든가의 조형방법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대지는 네거리의 코너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율을 접어야 됐는데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접어서 건물이 갖는 모양이 시민들에게 부드럽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 고민했던 것은 둥근커튼월이 있는 곳이 서향인데, 북한산이 바라다보이는 조망이 제일좋은 곳 또한 서향이고 그곳을 오픈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기쁨 등을 생각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것이 우선 순위의 과정에서 선택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곡면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곡면이 이러한 건축에 있어서는 중요함을 주지만 기능적으로는 이용면적상 반가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모난 부분을 이용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



외환은행 본점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순교자 기념관

시키면서 북서쪽이 커튼월로 돼있고 남쪽이나 동쪽도 커튼월을 이용하되 횡선을 줌으로써 스케일도 다운시킵니다.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실제 건설하면서 내집을 내가 지으니까 그 뒤의 설계변경 추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더 진보하고 발달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설계변경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연결될까봐 그러는데 설계변경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변경을 시도했는데 그런 것이 로우업(Follow up)되면 건축들이 정말 쓸모있는 좋은 건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양진황 동근부분은 경직된 것을 줄이고 내부공간에서 원경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커튼월 확보 개념으로 원호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땅이 조금 더 컸다면 그래도 이 건물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좀 더 심플한 형태로 처리되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철 그 방법이라면 어떤 것을……

양진황 예를들면 서쪽에 라운드월이 있다면 코너의 부드러움 뿐만이 아니고 라운드와 박스의 결합된 개념의 형태로, 다른 면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코너를 살려주면 약간 여유스런 부분을 포함한 규칙적인 내부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지의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만, 민간건물이라 하더라도 랜드마크로써 공적임무를 담당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보기도 편한 건물이지만, 좀 더 심플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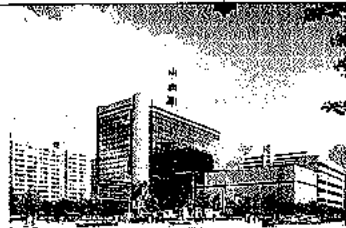
김정철 그것은 항상 전문가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아닐런지… 우리가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면적으로 보면 그런요소가 보이고

조형적으로 이미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람도 앞뒤가 전혀 다르지만 거기에 익숙해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대지의 제약도 있고 확보하려는 공간의 크기도 있다보니가 가장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운드로 돌리는 경우는 공간을 정말 여유있게 쓸 때고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항상 작품을 만들 때 겪는 갈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라운드와 모진부분이 형태는 다르지만 표정이 있으며 투명한 부분을 같이 썼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디자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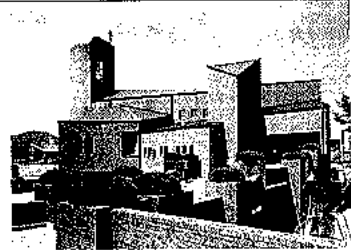
양진황 다른 요소가 한 건물에 쓰여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보이는데 그것이 한 건물임을 알게 되는 것은 흔히 학습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공통의 요소가 있으면 유추에 의해서 한 건물임을 빨리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전달이나 의미전달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97년에 '대청마루'에서 봤는데 대구신세계백화점, E-마트 현상안이 실려 있었습니까. 그 현상안을 볼 때의 느낌과 신사옥을 만진 솜씨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옥은 기준층 면적이 작고 타이트한 쪽에서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 디자인한 것 같고, 신세계백화점과 E-마트는 만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구신세계백화점과 E-마트 그리고 신사옥을 비교해 보면 보통 그 전에 매스상의 구분, 예를들어 둥근매스가 박스형 매스와 결합될 때는 반드시 재료가 달라진다는지 아니면 그것이 구조적인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사옥이나 신세계, E-마트에서는 그런부분이 오히려 자유분방하게 잘 엮여져 있어서 이런 해석방법이나 조형 접근방법도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사옥의 조형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북쪽과 서쪽면을 만진 방법이 북쪽면은 아까한 한 개의 매스가 될 수 있는 것을 둔각으로 된 삼각형으로 만나는 커튼월과 둥근커튼월과 알루미늄 쉬트로 된 솔리드한 매스로 세장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쪽의 둥근부분에서는 매스는 같이 흐르는데 재료가 달라지는 스킨



프라자 호텔



MBC 문화방송 사옥



전주서문교회

플레이를 하했는데 두 면을 다루는 기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김정철 _____ 우리는 되도록 차세대라고 할까 젊은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세대는 보수성이 있고 옛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시니어로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것을 택 하든 자기방법대로 나가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작품의 방향까지 조절하고 간섭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디자인하는 담당자가 자기의도대로 작품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작품을 다루는데 비슷한 방법으로만 해야되는냐는 문제에 부닥치곤 하는데, 그런 면에서 곡면부분도 수직을 강조하면서 수평적으로 나누어 스케일을 다운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진호 _____ 북서쪽을 곡면으로 처리한 배경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곳은 가각정리 공여부분이고, 둘째, 정서향을 면해 서향빛의 영향을 직접 받고, 셋째, 서북쪽으로는 수려한 북한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확폭되면서 가각정리가 되어 45도 정도로 부지 일부가 사거리 도로에 저촉되므로 필연적으로 곡선을 선택하였고, 서향빛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같은 곡면부에서도 정면 서측은 알루미늄으로 막고 북서쪽은 투명하게 하여 원경을 차경하였습니다. 건물의 코어를 서쪽에 배치하고 계단참을 남쪽에 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양진황 _____ 이 사옥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한 것이 있다면...

김정철 _____ 우리가 쓰는 공간을 일반 오피스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방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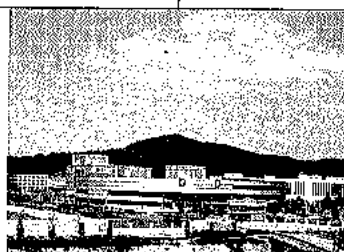
준층의 천정을 임대층은 제외하고 작업실답게 꾸미도록 한 것입니다. 닥트라든가 파이프라든가 구조 등을 노출시키고 좀 더 높은 공간을 만든 것이 특이하고, 10, 11층만 아트리움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애초에는 좀 더 과감했습니다. 3~4개층을 오픈시켜서 그 안에서 작품생활을 하는 아들이 호흡을 같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공단계에서 바꿨습니다. 또 하나는 계단이 항상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단지 피난통로 구실만을 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산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계단의 중복되는 구조가 유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참 아름답습니다. 밤에도 보면 조명이 있어서 종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가족끼리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코아옥상에 작지만 리뷰바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이 대지가 갖는 용적률이 한 평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코아부분에 리프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직원들이 일하다 지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대화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자랑스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양진황 _____ 예상한 것보다도 완공 후의 느낌이 더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김정철 _____ 우선 조형방법이 그동안 무거웠는데 이 건물이 주는 인상이 경쾌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애당초 타일을 시도적으로 건식공법으로 사용했는데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돌을 밀폐시키는 방법은 돌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돌건물이 2, 3년만 지나면 검게 변하는데 그것을 드라이 공법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부에 방수를 하고 물도 숨을 쉬어야만 그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돌을 붙이더라도 산 돌을 입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를 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 타일의 시도가 좋았다고 보고 타일이 주는 느낌이 처음에는 흰색이 관습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의 조망인데 뷰의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창밖의 풍경이 모두 내 정원같은 내부공간에서 확 트인 공간을 만들었



정동제일 감리교회



대이품 정보 뽕신연구센터



대덕과학문화센터

다는 것과 좋은 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상당히 창의적인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진황 _____ 디자인의 큰 틀을 관여하고 디테일은 담당자에게 일임한다고 했는데 교육환경이 각기 다를 수 있는 여러 성향의 담당자들이 동시에 진행시키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당자들을 시니어아키텍트라고 한다면 회장님은 슈퍼시니어아키텍트로서 그 자유스런 분방함을 무제한 열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용납이 될 수 있다, 없다는 범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해는 되는데 사무실작품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회장님께서도 다양한 컬러의 팀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즉 어떤 선에서는 용납이 되고 안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관에 비추어 그 선을 긋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정철 _____ 글썄요. 그것은 여러가지 기준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내가 한참 활동할 때는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틀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건축계의 여러 일꾼을 배출하고 길러낸 것이 정림의 큰 자부심이 아닌가 합니다. 건축계에 큰 일을 했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이사로 실습나와서 정림을 알게 됐고 자기의 방향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품이 인디비주얼한 것이 아닌가 개인에 따라서 작품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인데 또 작품이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정설도 없다고 봅니다. 인간을 수용하는 공간 또 도시에 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큰 조각이라고 볼 때에 그런 범주에서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그런 좋은 건축, 건강한 건축 그런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이 잘 안된대거나 비가 샌다거나 또는 쓰기가 불편하다거나 지나치게 작품성을 좇다 보면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행하는 것은 건축가에 부

여된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과감한 작품 시도를 그것이 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방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작품(신사옥)도 문이사가 여러 차례 직원들을 상대로 디자인리뷰를 했지만 어느 정도는 재량권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나 경험을 보태주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을 채택하든 안하든 그것은 문이사가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타일의 흰색을 쓰는 것도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좀 더 따스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림이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건축철학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작가이지 내가 내취향이나 내철학에 의해서만 사용자를 강요하는 건축은 인간 중심의 또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 취미로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퍼블릭한 성격을 가진 건물에는 너무 작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김수근선생은 정말 작품을 독특한 아이디어나 컬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작가이지만, 거기에 사회성은 다소 결여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정림이 건축계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진황 _____ 어쩌면 그것이 정림건축의 지배적인 철학이고, 또 작품의 경향을 어느 측면에서 정의해 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작품활동을 오래 해 오셨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찬사와 거리는 있더라도 스스로 작가의 입장에서 보람이 있었던, 혹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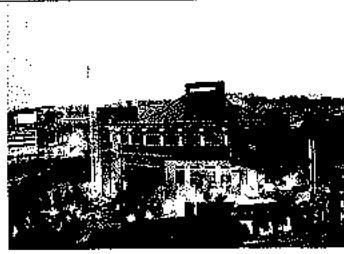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솔직히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됩니다. 굳이 지적한다면 이성관씨하고 작품을 했던 전주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조형성이나 종교건물로서 공간의 미나 경관성, 주위환경과의 어울림이 상당히 절제있는 방법에 의해



이대형정관



이대동병원



이대교회

서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비록 작은 작품이지만 김진구씨하고 했던 순교자기념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정림의 가장 큰 발판이 됐던 것은 외환은행 본점이었습니니다.

양진황 _____ 문이사가 입사했을 때 그동안 정림에서 작업한 작품들을 본 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림은 한가지 스타일로만 작품을 하지 않고 다양한 트랜드로 작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것을 본 후에 리액션으로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진호 _____ 제가 입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입사하게 된 동기는 83년 대학시절 하계실습과정에서 정림에 왔다가 작업과정 등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90년도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정림의 모습, 늘 새로운 좋은 작품을 시도하는 실험정신이 좋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작품과 현재의 작품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데서 오는 평가 절하가 아쉽습니다. 70년대 당시의 정림건축 작품들을 보면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 두분의 주도아래 특정한 흐름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도 정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림의 무한한 힘은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정림의 문을 두드렸고, 직원들은 그것을 회장님의 인복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작품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을 때 정림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2, 3년정도입니다. 아직도 제가 나아가야 할 건축가의 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림에 와서 제가 한 것들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한 작품중에는 외국의 영향도 상당부분 압하지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디자이너로서 저의 스타일을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의 다양성속에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진황 _____ 작가의 과정이란 끊임없이 변모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착적인 유형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이 빨리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추구하다 보면 유형이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진호 _____ 앞으로 제가 정림의 디자인의 한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면 일관된 스타일을 갖고 계속 깊이를 더해 가겠습니다. 또 저같은 디자이너가 정림에서 둘, 셋 또 새로운 젊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회사로 보면 다양하고, 정립안에 있는 디자이너 각자는 독특한 양식을 갖는 다양성 속의 개성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황 _____ 정림은 어떠한 조직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여러 개의 형태들이 각기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노력이 결여되면 멈추는 것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 매진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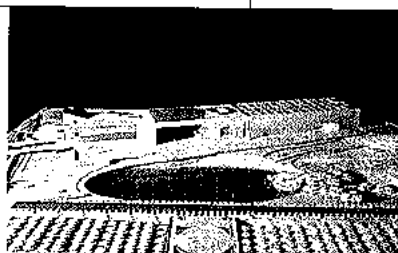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사실 정림신사옥이 건축가협회에서 '베스트7'으로 선정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이 지역에 건축이라는 것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알릴 수 있다면 또 이 건물을 통해서 건축주한테 건축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 건물을 '베스트7'으로 선정해주고 건축사지에서도 취급해서 건축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진황 _____ 올 해가 「건축문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책을 맡아 여러가지로 건축과 문화의 저변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정림건축과 「건축문화의 해」에 대한 작업들 모두 좋은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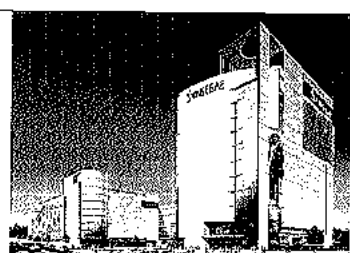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고맙습니다.



삼보컴퓨터 사옥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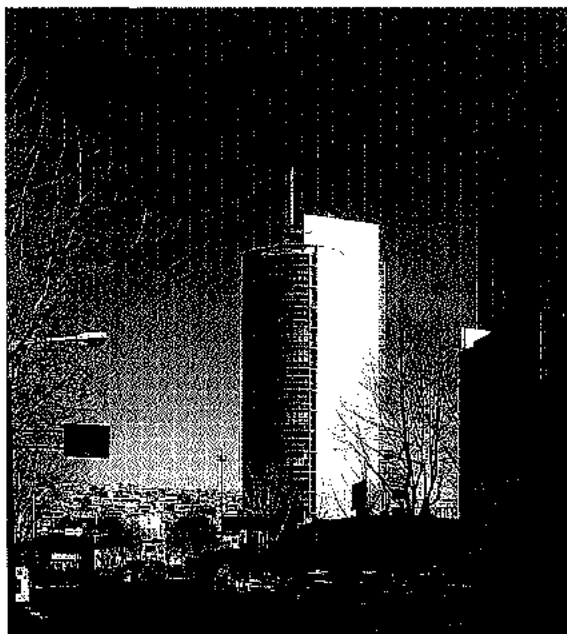
대구 신세계백화점 E마트

합리성과 그 극복

Rational Architecture and Beyond

제해성/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Je Hae-Sung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화동 사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사옥에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상의하곤 했었다. 총무부서의 여직원이 손수 준비한 커피가 전직원에게 매일 아침 서비스되었다. 그 당시에는 종이컵도 없었으니 그 커피는 격식을 갖춘 그야말로 훌륭한 한 잔의 커피였다. 이는 20여년 전의 일이었고 요즈음에는 상상도 못하는 직원에 대한 극진한 대접일 것이다. 당시에 필자가 정림건축에서 처음으로 건축실무를 익힐 때는 짙은 갈색 외장 타일의 5층 건물이었다고 근무시간은 거의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였다.

최근 필자가 정림건축을 다시 방문했을 때 사옥은 예나 다름없이 같은 장소에 서 있으나 우뚝 솟은 위용은 예전과 몹시 다르고 설계실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은 사뭇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북측으로 북악산과 낙산 그리고 대학로, 창덕궁, 경복궁을 굽어볼 수 있는 탁트인 전경은 답답한 마음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듯한 시원함을 준다. 정림사옥은 지하6층 지상15층의 2,500여평의 건물로서 정림건축과 까치건축이 7층에서 15층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중이다. 지하에는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실, 기계실 등이 있다.

대학로 입구에 위치한 정림건축사옥은 그 위치의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에 지나치는 모든 이에게 크게 부각되는 건축물이다. 대지의 서측은 도로가 40m로 확장될 예정이고 북측은 30m 도로, 서측은 11m 도로에, 남측으로 4m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 지역에는 오랫동안 5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정림건축사옥 신축시점에는 남측으로 우일빌딩, 북측으로 혜화전화국, 서측으로 청호컴퓨터사옥, 동서증권빌딩, 여전도서관 등의 15층 정도의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많은 중대형 건축물 중에서 정림건축사옥은 대학로 남측 교차로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조형성 면에서 도시경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도시계획에 따라 대학로가 확폭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설계자는 대지가 갖는 도시적 맥락을 반원형의 수직 매스로 매끄럽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건물내부에서는 북서 및 북측의 전망을 한껏 확보하고 건물외부에서는 교차로 건축물의 도시적 방향성을 원활하게 해결하였다. 남북 장방형의 대지형상과 북측도로 그리고 교차로 부분의 가각전제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의 수직 매스에 반원통을 첨가한 것이 정림건축의 기본적 매스(Mass)이다. 서측의 강렬한 일조를 피하면서도 북서측의 시원스러운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설계자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측의 강렬한 일조를 피하기 위하여 서남측에 코어를 배치하고 닫혀진 코어내의 계단실에서 남측의 전망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돋보이는 점이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휴식하는 동안에는 계단실은 고급 스카이라운지 역할을 하게 된다.

입면을 구성하는 외벽재료는 크게 유리, 알루미늄 시트, 외장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북서측 곡면에는 북층유리의 커튼월, 서측은 알루미늄 시트로 되어 있다. 코어와 장방형의 수직면에서 벽체 부분에는 대형 외장타일이 건식공법으로 붙혀져 있고 창부분에는 북층유리의 수평창과 알루미늄 시트의 창간 밴드가 있다.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면 입면의 요소가 다양하다. 남서측을 보면 양측의 외장타일의 수직벽체 사이의 수평창이 돋보이고 북서측을 보면 그 수직벽체 사이에 반원형의 글래스 커튼월과 알루미늄 시트로 구성된 입면이 돋보인다.

정림사옥에서 디자인의 성패는 사실 북서측 입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부분의 초기 스케치 및 모형을 완성된 신축 건물과 비교해보면 처음설계와 결과물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크게 다른 점은 초기 계획에는 유리와 알루미늄 시트 그리고 알루미늄 수평 루버가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완성된 사옥은 다각형으로 변화되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입면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계획에서 돌출된 입면 레이어(Layer) 또는 가입면이 사라져 버렸다. 합리적인 건축생산과 공사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다면형의

말쑥한 입면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정림사옥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건립되어 있어 어딘가 파격적인 디자인요소 또는 감동을 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항상 깨어 있지 만도 않고 어떨 때는 취하고 하고 즐기기도 한다. 인간은 말쑥 한 얼굴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복장을 바꾸어 가 며 조그마한 변신을 이룬다. 정림사옥의 반원형 수직매스를 곡 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열정적인 건축가라면 이를 끝까지 관찰시킬 수가 있지 않았을까? 불가능해 보이거나 어려워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 이를 해결한 자는 성취감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감탄을 보내기 마련이다. 완전한 곡면과 덧붙여진 입 면의 변화는 초기 모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끝까지 관 철 되었더라면 더 많은 찬사와 감탄을 이끌어내었을 것으로 여 겨진다. 현재의 원형크기는 점선으로 이루어진 다면형으로 처 리하기에는 크기가 너무나 작다. 특히 대화로 주변에 많은 보 행을 고려하면 다면형의 형태는 완성되지 않은 조형으로 쉽게 눈에 띄 수 있다.

건축가들은 항상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번민하 게 된다. 초기의 이상적인 창작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없이 자제 당하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이 설계의 과정일 것이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시작한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에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기본설계 (Design Development)과정에서 기술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 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 단계에서 또 한번 삭제되고 시공과정에서도 다시 곤욕을 치르 기 마련이다. 이러한 것이 설계과정의 현실이지만 설계자는 설 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고수할 수는 없지만 끝까 지 고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엔지니어와 협력 하여 이를 이루어나갈 때 훌륭한 건축작품이 살아 남는 것이 다. 정림사옥에서 고수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단가? 또한 무엇을 자랑하거나 뽐내고 싶었던지를 곰곰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건축작품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합리적인 구조, 기능은 건축물이 기본으로 가 져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도 해결 못하면 수준 이하의 작품 으로 남게 된다. 합리적이더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합리성과 거리가 먼 건축작품은 부끄러운 작품이다. 충분히 합리적이면서도 합리성을 뛰어 넘는 용기, 기백, 열정이 필 요하다. 정림사옥은 분명히 충분히 합리적이다. 또한 합리성을 뛰어 넘는 요소들이 코너의 처리, 내부공간의 처리 등에서 나 타난다. 합리성의 문제를 식생활에 비유해 보자. 합리성을 말 성하는 것이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는 수준이라면 합리성의 바탕 위에 이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합리성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하여 야 할 것인지를 건축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림사옥은 중규모의 건물이면서도 오피스빌 딩이기 때문에 평면의 변화는 많지 않다. 주차동선과 보행동선 은 대지의 동측 11m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북서측 코너는 독 립된 보행출입구를 가진 임대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북서측 코 너에서 지하로 직접 통하는 통로가 있고 그 주변에 공개공지가 자리잡고 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을 전제로 한 공개공 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건물에 가리워져 있어 아쉬움이 남아 있다. 지상1층 동측 주출입구의 중앙에 위치한 기둥은 예 전에는 금기시되어 오던 평면 해결 기법이지만 기존의 원칙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이후로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로버트 벤츄리의 필라델피아 길드 하우스도 출입구 중앙에 기둥이 놓 여져 있다. 중앙 기둥은 어쩔 수 없이 선택된 합리적인 해결이 라고 보여지며 이를 강조하기 위한 강한 색채가 사용되었다. 이 곳의 색채는 정림사옥에서 가장 강한 톤의 채색이다. 로비 는 좁지만 2개 층을 활용하여 시원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합 리적으로 계획된 로비로 바닥과 전면벽을 제외한 벽면재료는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로 되어있다. 서양에서도 석고보드 위 에 백색 수성페인트가 자주 사용되지만 상업업무공간의 경우 에는 아트(Art Work)가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 또는 예술작품 과 어우러져 감동을 자아내는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경제위기의 최정점에 맞춰 준공된 사옥이라 초기 구상에서 계 획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사라진 것임에 틀림 없지만 이러한 아트(Art Work)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내의 공간 에서 액센트를 주고 재미와 흥미를 자아내는 요소가 추후 가미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기준층 평면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 효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에 맞춘 셀룰러 덕트(Cellular Duct) 시스템을 바닥 에 깔고 모듈에 맞춘 조명기구가 앰비언트 라이팅(Ambient Lighting)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일부 가구배치는 이러한 모 돌과 어긋나 있지만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모듈 시스템이 채택 되어 있다. 기준층 면적이 작고 곡선부가 있어 모듈화되기 곤 란한 요소가 많다. 기준층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게 되면 앉 은 경우나 선 경우 모두 완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수평창 틀이 위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외벽 측 천장은 설비를 감추기 위하여 천장마감이 되어 있으나 코어 측 천장은 구조체의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어떤 이는 IMF경제위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는 풍문이 있을 정도로 특이하다.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몇 년 이나 지속될 것인지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노출콘크리트 마감

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반응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건축주에게 이러한 정립사육을 투어(Tour)시킬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임원실이 위치한 11~12층은 숨통을 틔워주는 절묘한 해결책이다. 좁은 기준층 평면에서 남동측의 두개 층을 뚫어 시원한 조망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원가 합리성을 초월한 측면이 나타나는 부분이면서 건축적 특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문자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다. 포스코센터의 임원 층에서도 이러한 복층형 로비가 고층부에 형성되어 있지만 정립사육과 같은 작은 평면에서 이를 관철시킨 것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용단으로 볼 수 있다. 정립사육 프로젝트가 건축주가 건축가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건축가와 건축주는 엄연히 구분될 수도 있다. 옥상부에 조성된 조경공간은 마치 도심 속의 쌈지 공원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정립사육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업무가 기록

Some twenty years ago, a day at Junglim Architecture started with a discussion on the day's tasks, drinking a cup of coffee, in a room where the Ewha-dong crossroad could be viewed from above. Then we had no paper cup or vending machines, so the coffee we drank was pretty much a genuine one, something the employees of today cannot expect. The office I worked at back in those days, the very place where I first started my architectural practice, was a 5 story building with brown tiles, and the usual work time was from 9 a.m. to 9 p.m.

Recently, I had the chance to visit the new office of Junglim Architecture. Its site remained the same but now it was a tall building with a more impressive view towards down the streets. The panorama of Mt. Bukhan and Naksan, along with that of Daehakro, Changduk Palace and Kyungbok Palace was surely a sight for sore eyes. The headquarter building is a 15 story one, with 6 basement floors, where the 7th to 15th floors are used by Junglim Architecture and Kachi Architects, and others for rent. In the underground floors, we find parking spaces, community facilities, multi-purpose hall and mechanical room.

Its location at the entrance to Daehakro, one of the active cultural regions of Seoul, is, catching the eyes of passing pedestrians, most significant. To the west of the site is a road that is to be broadened to 40m, to the north a 30m-wide road, and to the west and south, 11m and 4m road, respectively. The neighboring area used to be filled with buildings of 5 stories or less, but now high-rises with about 15 stories dominate the view. Within these

된 모범적인 프로젝트이다. 초기의 대지현황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과정을 교과서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있다. 중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스케치, 직원의 제안내용, 자금의 수지 분석, 재료 검토, 설비시스템 검토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록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세심한 기록 보존은 건축과정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마지막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주에게도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힘든 노력을 이해시키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 설계비를 합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다.

정립건축사육은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건축프로젝트로 길이 남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설계사무실의 사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로의 입구에 위치한 도시경관 측면에서의 상징성과 이를 합리적이고 정렬적으로 해결한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치 흥년에 태어난 아기를 생후 지속적으로 잘 보살펴야 하듯이 극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 잘 보살펴야 할 것이다.

middle or grand sized architectures, the new headquarter building of Junglim Architecture occupies an important spot in the formation of the overall urban landscape. With the City's future plans of Daehakro's expansion, its role becomes all the more crucial.

The architect has answered to the site's urban context with a vertical half-cylinder volume. This provides, to the inside, a clear view towards the north and northwest, and from the outside, a distinct sense of direction at the crossroad junction. It accommodates the linear shape of the site, the northern approaching road, and the arbitrary angles the surrounding roads create. It must have been the designer's primary task to open up, while managing to block the strong sunlight from the west, a wide view towards the north. This was done by positioning the core in the southwest part, thus providing a screen against the dusk sunlight, and from that core, releasing a broad view towards the south. The banal act of walking up or down the staircase can now become a beautiful experience of floating above a grand vista.

The exterior finishings that cover up the vertical volume are, in the general, glass, aluminum sheet and tiles. The curving volume of the northwest is surfaced with double-glass curtain wall, while the west is finished with aluminum sheating. From the southwest, horizontal windows on the vertical volume can be seen, and from the northwest, the same mass is encased with half-circle windows and aluminum sheets.

It may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rucial

portion of the new office's facade is the northwest one. Comparing an early draft with the realized version, we can see that the roundness of the glass, aluminum sheets and the horizontal aluminum louver of the early phase has changed to those with angles. The final building is also different in that the projection of the facade's layers was discarded. In terms of optimizing cost and production procedure, the polygon shape is an obvious choice. This crisp rationality of this building, however, seems to be in need of a somewhat radical touch.

Had the architect been more passionate to the project, couldn't the primary shape of the cylinder be sustained? The conquering of a seemingly impossible task brings a wonderful sense of achievement to its creator, and endless joy to its observers. The beauty in the perfectly rounded volume with the diversity of the attached facade is manifested in the working model of this project, and now remains us of what sensation it could have delivered if it succeeded in realizing the early intention. The size of the polygon cylinder is rather small to be received as a round piece. It remains, to the eyes of the pedestrians, as an unfinished formal work.

Architect is he who suffers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The early "ideal" form is often subjected to modifications because of harsh conditions. This is the process of designing. From the ideas of the conceptual phase is made a rough outline in the schematic design period, which, while going through the design development phase, becomes compromised by technical and financial limitations. In the production of construction documents, it goes once more through a process of erasure, and finally, in its construction, brings about its finalized, realized form. During these process, which will include a cooperation with engineers, the architect must have a strategy which will decide what to give up and what to maintain. One can wonder what could have been the withstanding end of this particular projec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work of architecture should stand on a rational bases. Reasonable structures and functions are basic necessary conditions for buildings, and a failure to meet these standards often means incompetency. To be thoroughly rational and feasible, however, is not merit. It's just that impractical buildings should be an object of contempt. A true virtue of architecture can be found where the rationality is transcended by a daring heart of passion. The new office of Junglim Architecture is rational indeed. And portions overcoming reason can be seen in the details of corners and interior spaces.

This building, as its main function is standard office space, lacks in diverse plans. The approach of automobiles and pedestrians is made from the east, from the 11m-wide road. There is also a separate entrance for the rent spaces in the northwest. It connects directly to the underground, where a public space, though obstructed by other buildings in the current condition, is reserved for future use on the occasion of the adjacent road's expansion. The method of placing a large column in the middle of the entrance, as the case of this building's eastern gate, used to be deemed improper, but in

the age of Post Modernism, it was often adopted (Robert Venturi's Guild House for one) in order to manifest the disposal of past disciplines. It may have been a practical result of the overall planning, but its presence is all the more magnified by the use of strong color. The lobby is relatively small in area but opens up to the height of two stories, and its floor and most walls are finished with gypsum boards with coating. The area's absence of an art work, which distinguishes the identity of so many lobbies in the Western buildings, seems to be a natural consequence in the economic condition of a foreign aid, but is a point to be improved in the near future.

The shape of the plan seeks to obtain the most area out of its site. The cellular duct flooring system, adjusted to the work stations, and the ambient lightings placed according to the modules characterizes its mechanical installations. A few furnitures are out of place from the applied modules, but this system, though a strict establishment was disabled by the relatively small floor area and its bending shapes, has the potential to absorb such variations. The horizontal windows of each floor provides a fine view to both sitting and standing positions. One particular thing about the ceilings could be noted: In contrast to the ceiling near the windows, which are finished with panels, the ceiling at the core's side remains uncovered, revealing structures of exposed concrete. Some refer to it jokingly as a symptom of financial shortcomings, but it surely is an odd touch. As the reception on such 'unfinished' style depends heavily upon each individual's taste, it should be constantly monitored if the visitors and potential clients of Junglim Architecture will appreciate them.

The 11th and 12th floors, reserved for the staff members, also has a special feature. The confined atmosphere from the limited floor spaces is overcome by incorporating the spaces of two floors in the southeast. Such luxurious opening provides a large outlook into the city, and this sort of method, that sign of transcending rationality, is what attracts the building's visitors. A similar space is found in the Posco building, but to achieve such effect within a small floor area requires determination, of both the architect and the client. (Though the two, in this case, are presented as Junglim Architecture, members of each group are indeed different.) The roof garden also provides a pleasant rest space for the employees.

The procedure of this project has been completely documented, and provides an exemplary model for such task. Documents and drawings of site analysis, proposals from the members, cost estimation, material and mechanical installation system choosings are recorded and arranged in order. These data, which is a clear proof of the long and laborious process of architectural design, can be used to inform the client of the architect's meaningful role.

The new office of Junglim Architecture will be long remembered as a rational and exemplary project. Not only because it is the headquarters of one of the leading architecture firms of Korea, but because, standing on an important position in an urban context, it succeeds in making symbolic and practical use of its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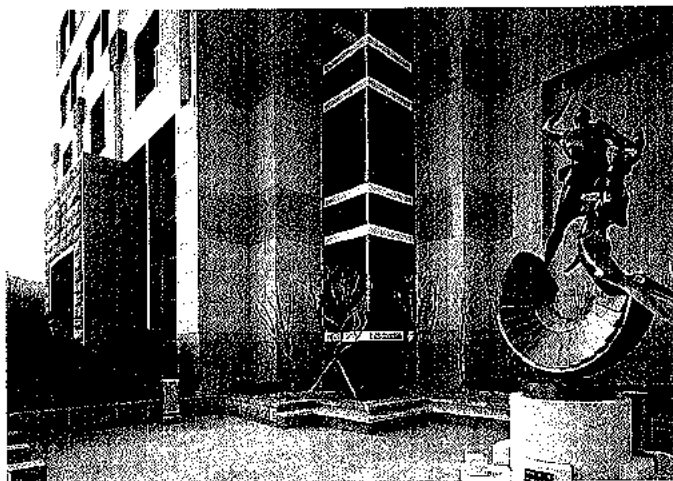
한전기공 본사

Korea Power Plant Service Co., LTD. Headquarters

이영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197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대지면적	6,812.20㎡
건축면적	1,966.20㎡
연면적	27,603.31㎡
건폐율	28.86%
용적률	260.39%
용도	업무, 교육연구시설
규모	지하3층, 지상1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배경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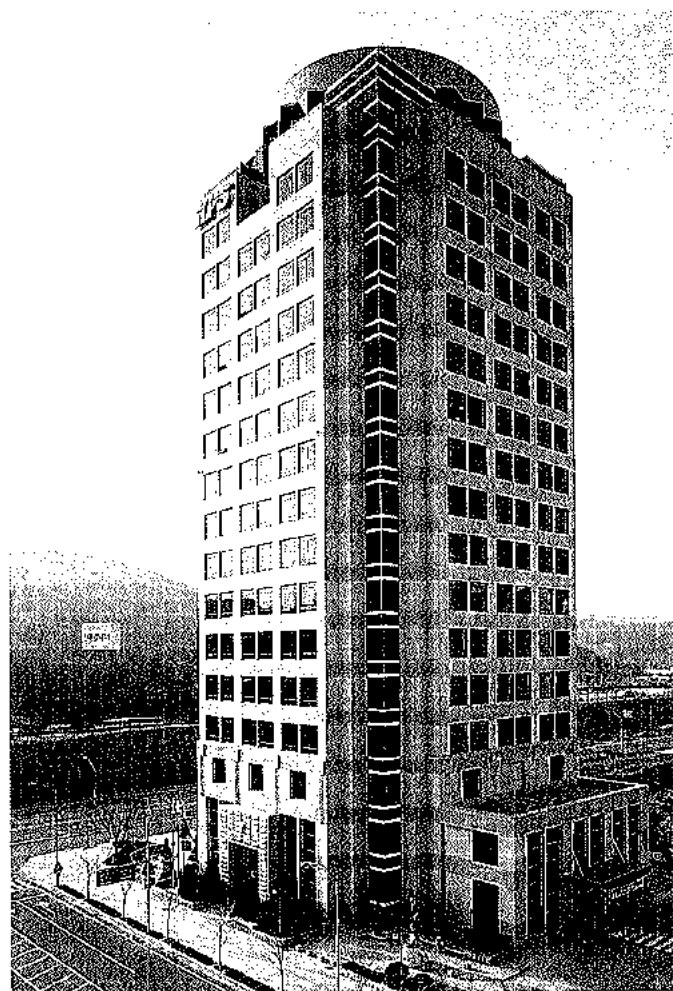
현 시대는 21세기형 전문기술을 위한 연구공간과 정보사회의 미래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관련 연구를 위한 공간구성을 합리화 하고,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도입으로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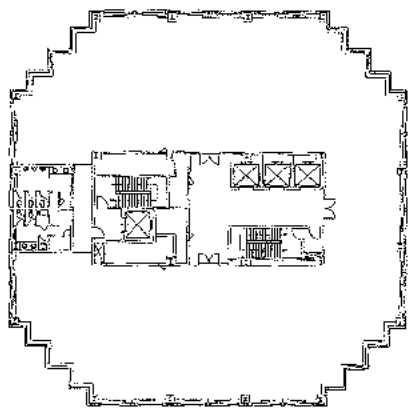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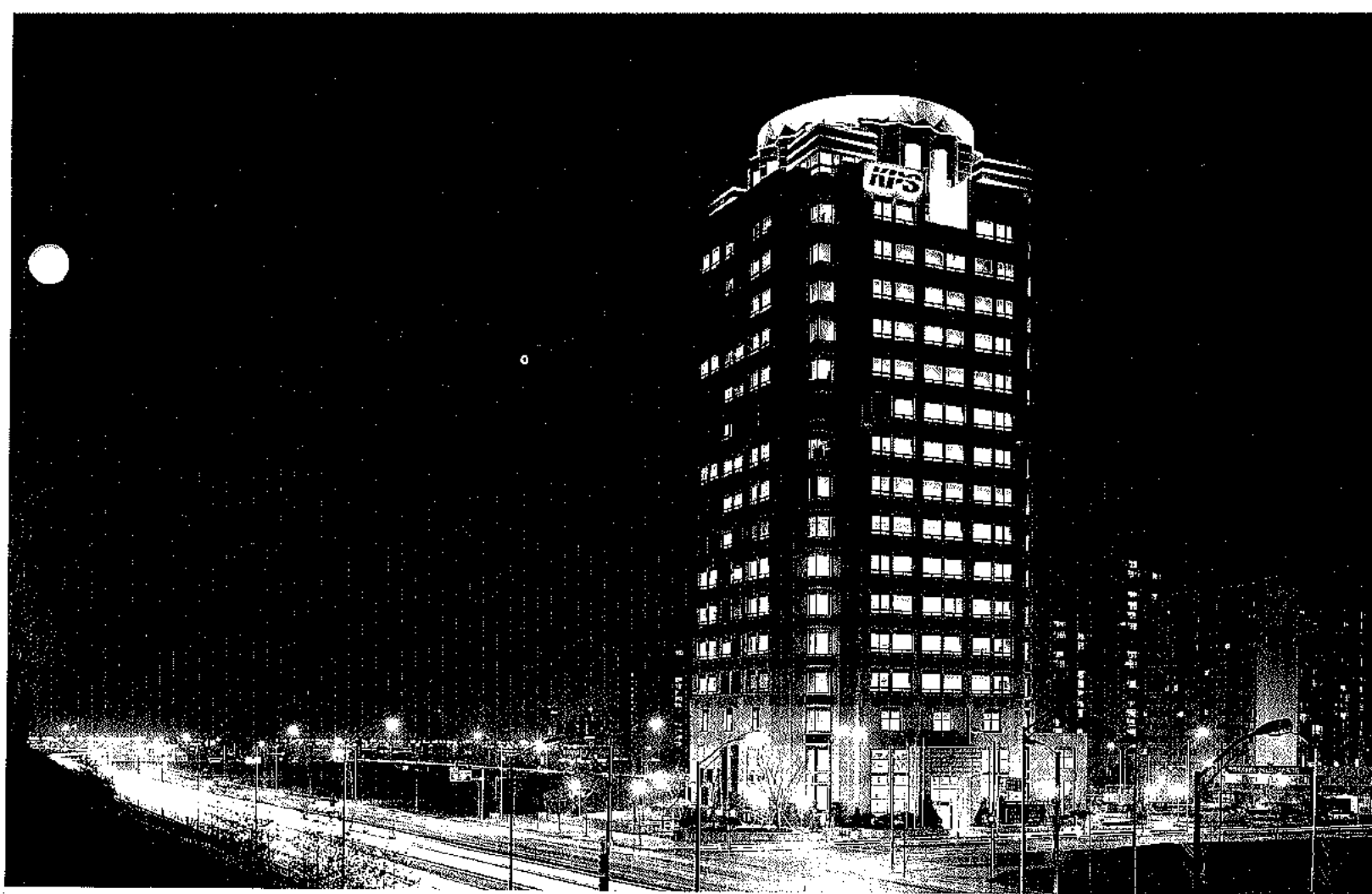
기본 개념

기본 계획은 한전기공 주식회사의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충분한 녹지와 휴식공간의 확보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후생복지시설 설치로 직원의 근무의욕 및 애사심을 함양시켜 업무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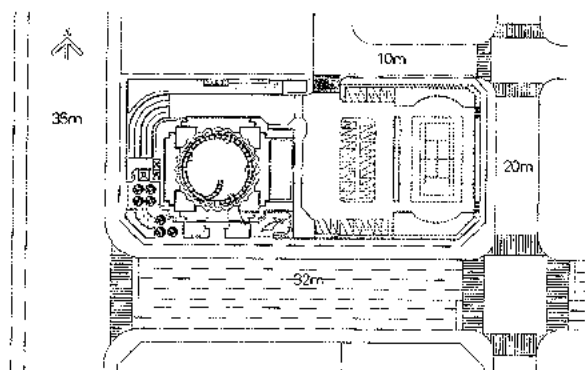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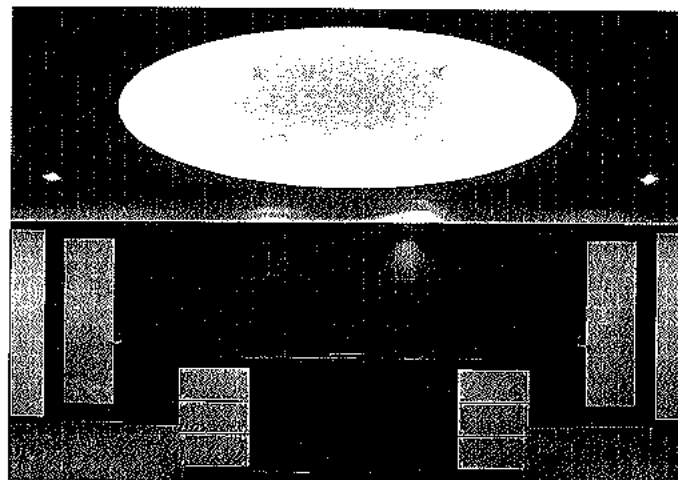
평면계획

평면계획은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평, 수직으로 분리하였다. 지층부는 로비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고, 기준층은 공간의 효율성에 따라 계획하였다. 또한 전망 좋은 고층부는 직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당, 식당, 체력 단련실 등을 두었다. 코아는 평면배분상 삼등분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각 실로부터 동선을 단축시키고, 장래 인텔리전트 빌딩에 가능한 덕트 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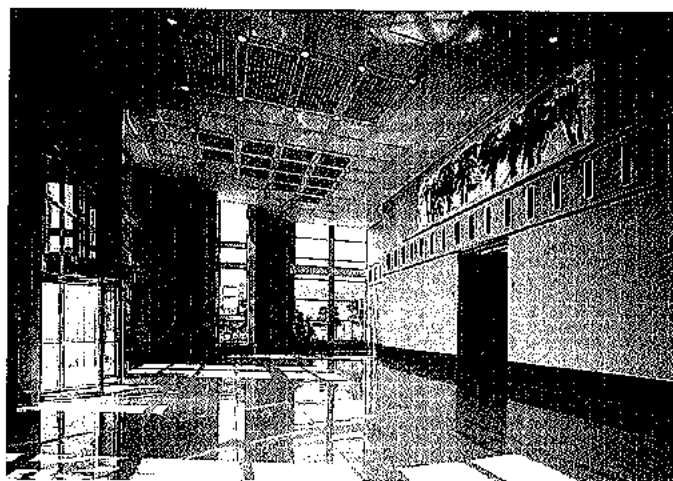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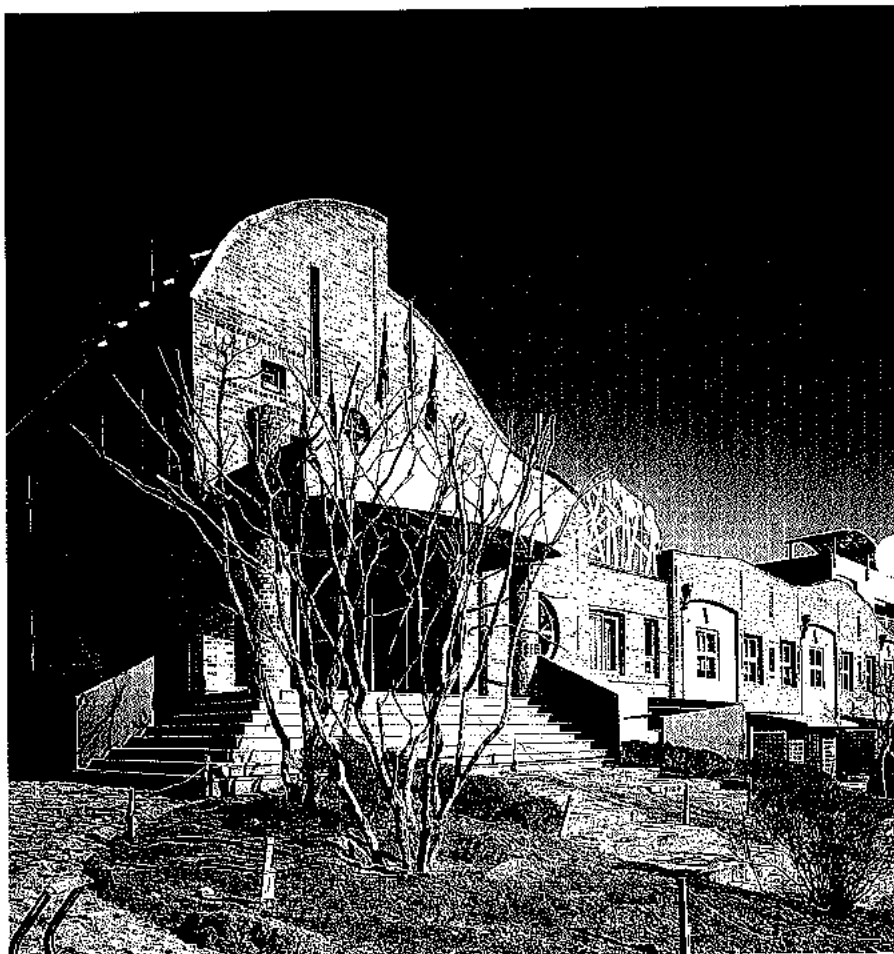
성안나 유치원

St. Anne Nursery

이기동 / 기신건축사사무소(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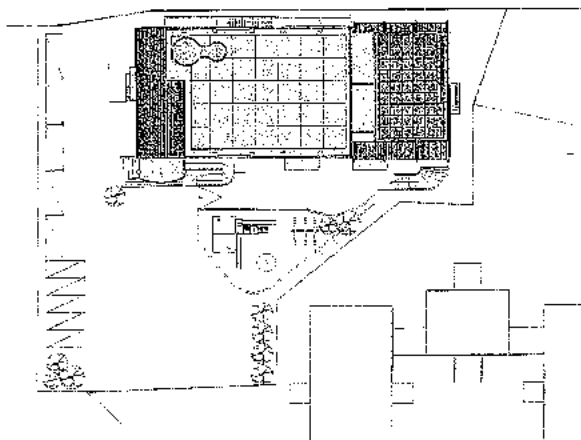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Ki-Dong

90년대 초부터 이 성당대지의 신축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97년에 이르러 실시설계를 집행하였으나 일단 경기침체와 경제악화로 기초만 남겨둔 채 계획은 무산되었고, 근 1년 만에 새로 부임한 이승용신부와 함께 새로운 안이 계획되게 되었다. 건물의 방향성은 세가지 주안점으로 첫째 성당내의 귀속된 유치원이라는 점과, 둘째 기존 유치원의 역사적인 Identity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기초가 시공되어 있는 기존안의 처리문제이다. 기존안은 유치원 단독 건물이 아니라 복합적인 교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추후 계속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다. Box형 평면에 대한 입면효과는 겉치레에 불과해 버릴 수 있다는 기존방식을 역으로 이용해야 했다. 오히려 40m가 넘는 전면 파사드를 세 개의 Mass로 분절해, 로비+교실+수녀원으로 나누어 평면계획, 입면계획, 동선계획 모두 이 개념을 따른다. 다양한 재료의 수급이 어려웠던 공사였다. IMF로 인해 벽돌 확충은 모두 식어있었으며, 마음에 드는 질감의 벽돌을 수개월 찾아 결국 충청도벽돌과 전라도벽돌이 만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공사비의 한정된 문제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각 공정단계마다 열의와 성의를 보여준 이승용신부께 고마움과 존경심을 보내며 신자로서 사업에 동참하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51-6번지		
대지면적	2,422.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794.11㎡	연면적	1,592.69㎡
건폐율	32.78%	용적률	54.51%
규모	지상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유치원, 수녀원		
외부미감	처장벽돌, 드라이비트, 16mm Fair Glass		
계획담당	이승용신부, 이진경		
설계담당	박봉순, 이진성, 이진경, 김준기, 김진주		
설비설계	해파설비		
시공	(주)두성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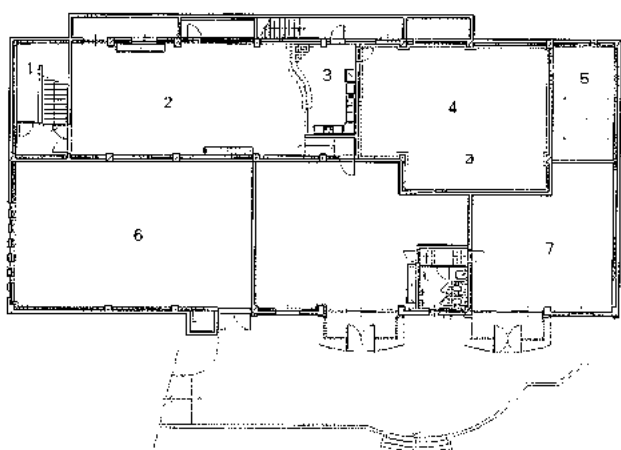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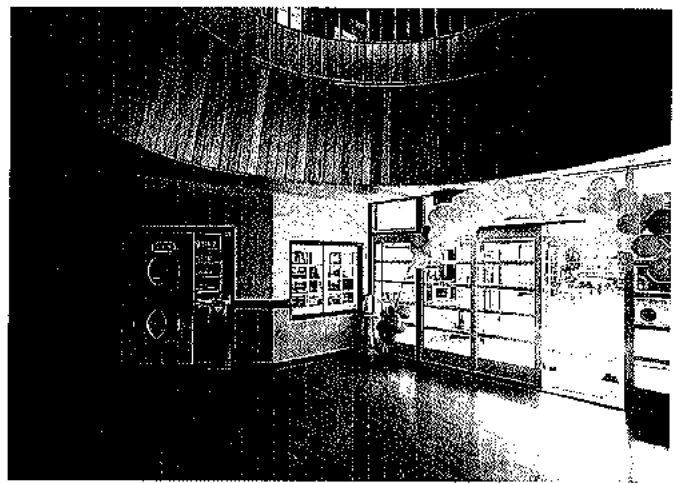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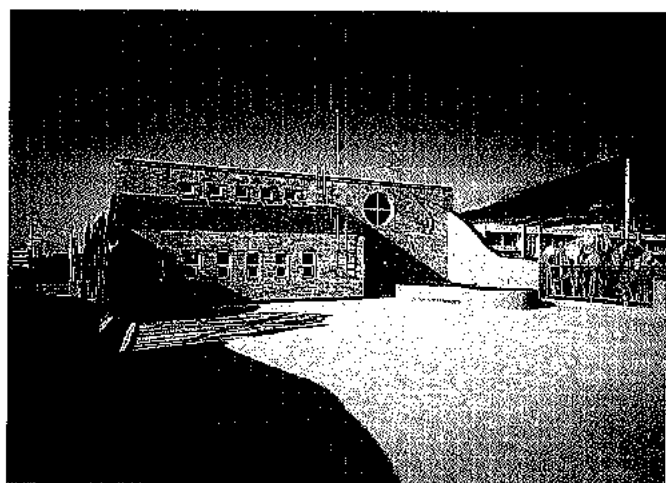


1. 참고
2. 식당
3. 주방
4. 전기·심
5. 기계실
6. 강당
7. 교실 및 유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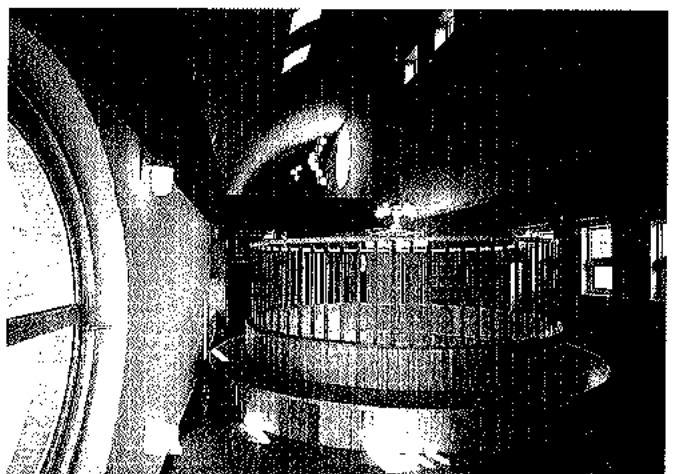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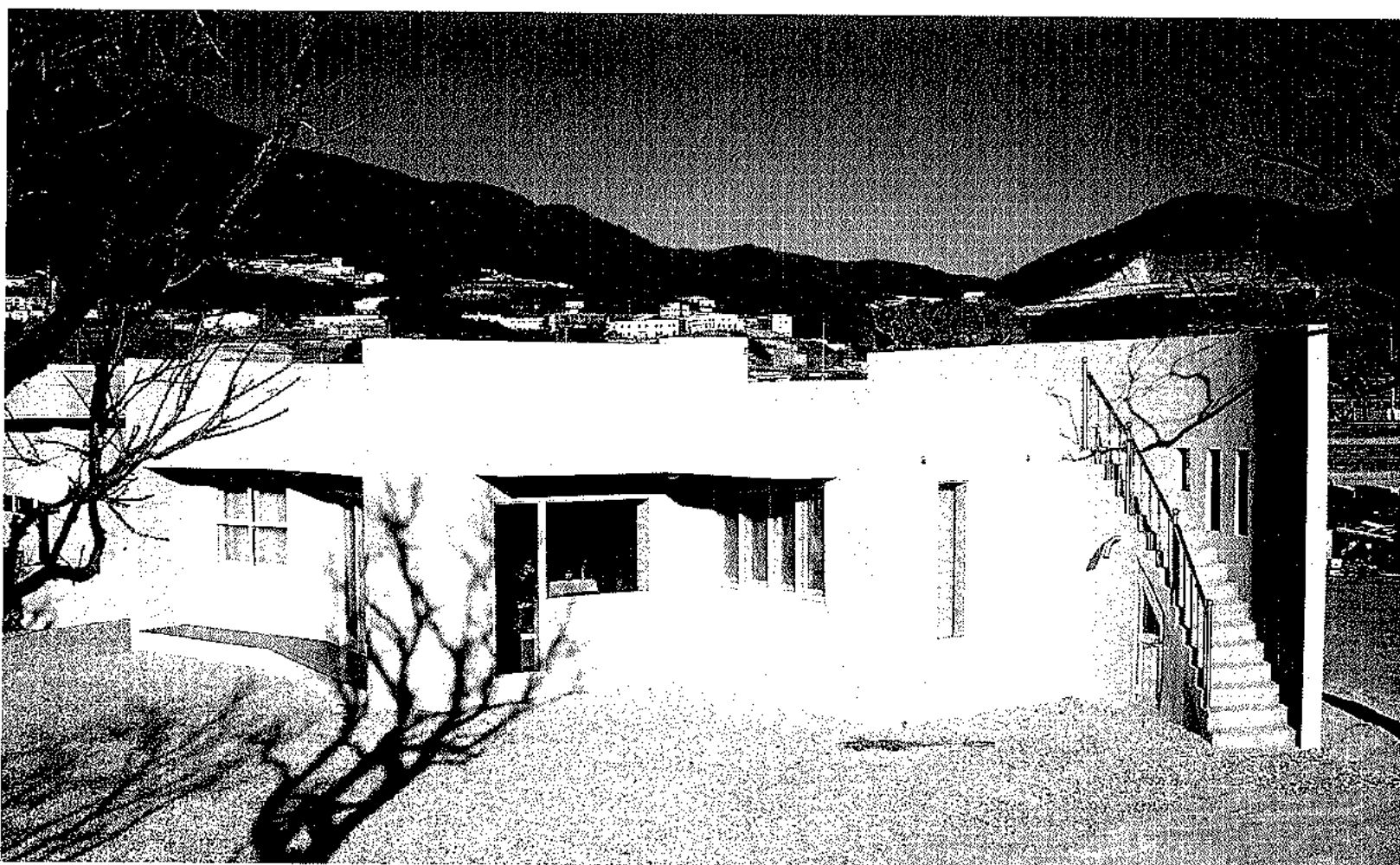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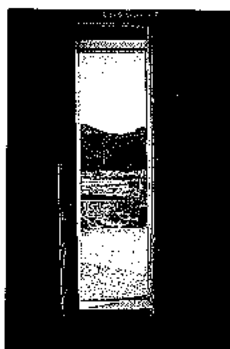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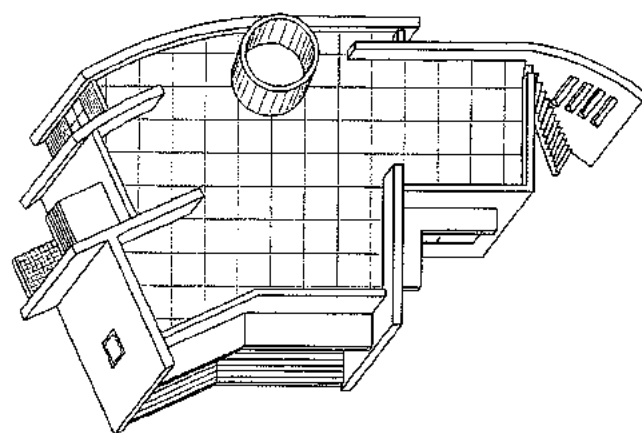


지하층 및 1층 평면도





배치 및 평면도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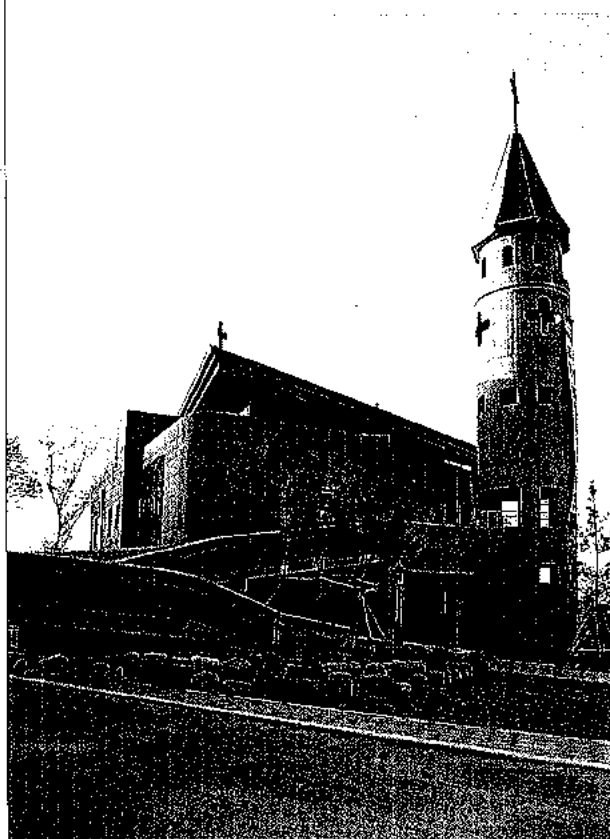
울진 북면성당(공소)

Buk-myon Catholic Church

허인원 / 시·종 건축 + 김정신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Designed by Hur Ihn-Won & Kim Jung-Shi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231-11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2,997.00㎡
건축면적	286.47㎡	연면적	464.90㎡
건폐율	9.56%	용적률	15.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지붕)		
규모	지상3층		
내장재	바닥-화강석 물갈기 벽-토석벽돌 치장쌓기 천장-텍스페널		
외장재	벽-노출콘크리트 지붕-동판 가락잇기		
시멘트그리스	조광호 신부		
감실	조광호 신부		
실자고상	이정구		
구조담당	김영환(공연건축사사무소)		
설비담당	최인창(충청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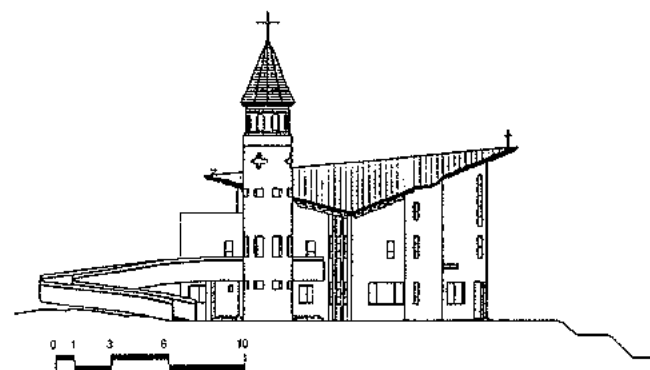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대지는 동해안 7번 국도의 서측에 면한 낮은 언덕위에 위치한다. 도로에서 대지는 약 11m의 높이차를 갖고 있고, 도로가 120도로 꺾이는 결절점에 있기 때문에 우월한 조망 확보와 랜드마크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바다를 향해 비상하는 듯한 마음모꼴의 형태는 성당건축으로서 낮은 지대인 교회건축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바탕을 둔 현대 성당건축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정방형 평면의 대각선 축에 부채꼴 형태의 회중석을 배열하고 부공간(제의실, 유아실, 성가대, 감실)을 부가하여 자체 매스를 마음모꼴의 경사지붕으로 중심을 잡았다. 여기에 등대 이미지의 종탑을 건물과 약간 이격시켜 데크로 연결하고 경사참로를 부가함으로써 전체 형태가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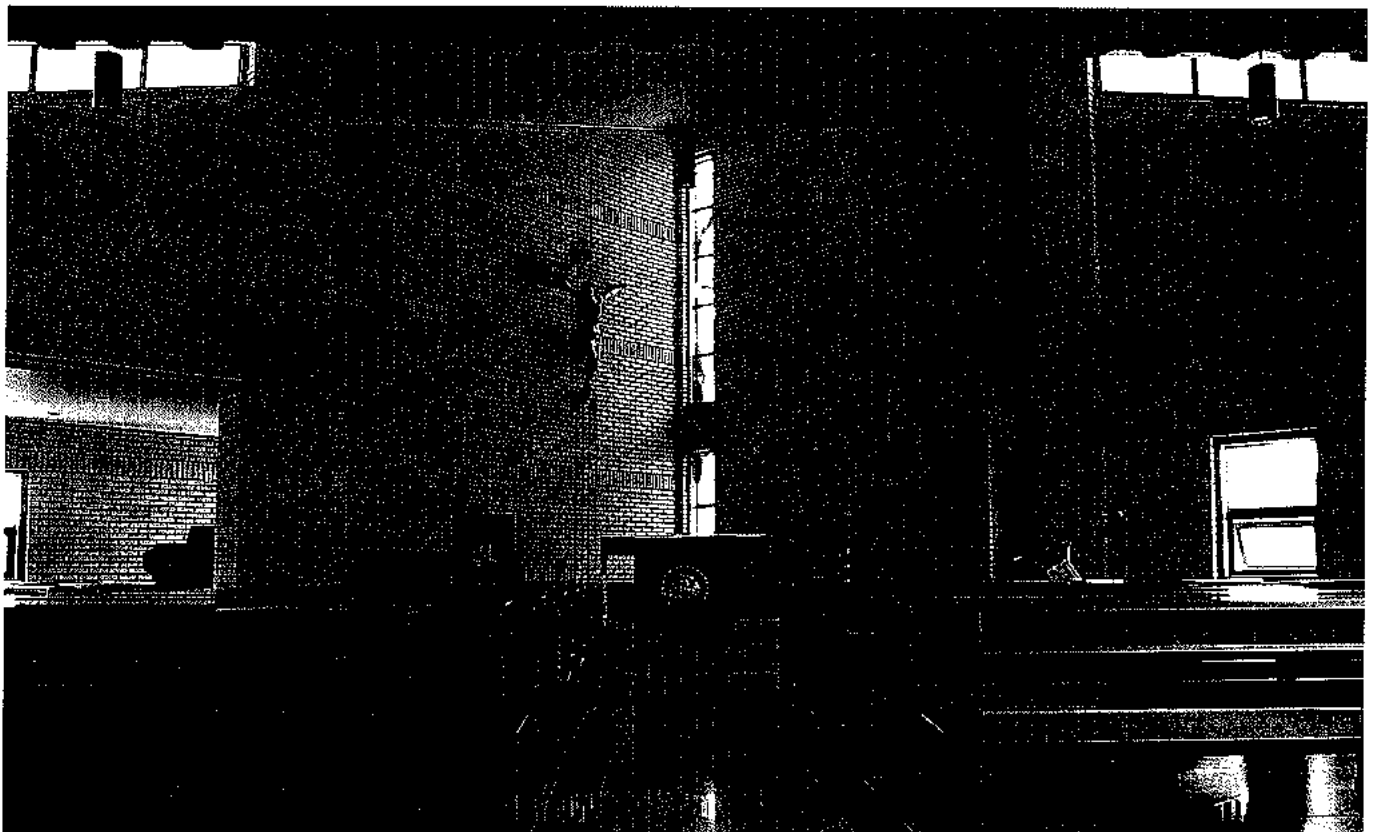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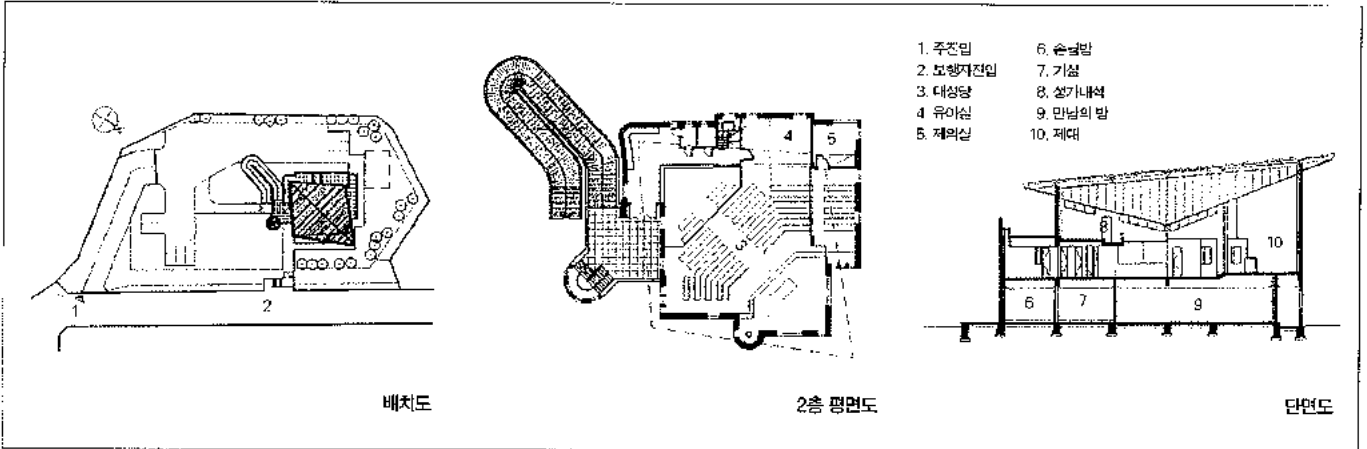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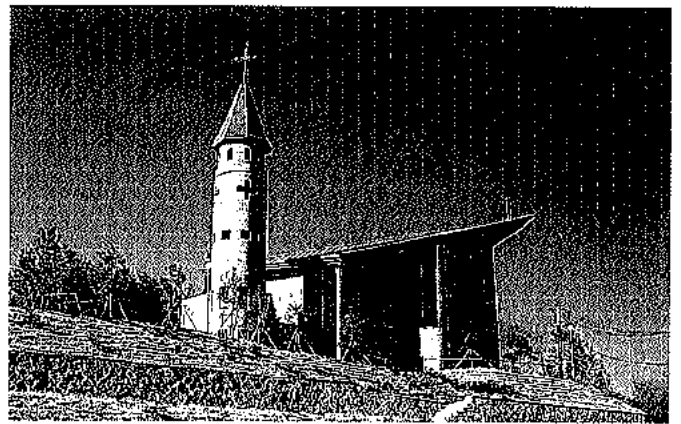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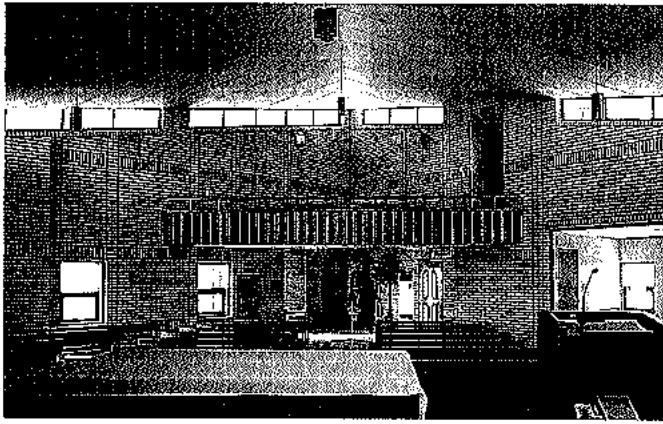
성당의 축(사진)은 북쪽 국도의 방향과 일치하고, 평면의 사각 변은 계획도로와 대지경계선에 대응케 함으로써 지면레벨에서의 안정감과 대지 활용도를 높였고 동시에 하늘에서의 역동적인 지붕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남측 도로에서의 접근시 건물은 일체감 있게 보이고, 대지 입구쪽 언덕은 처음에 대지를 보여 주다가 점차적으로 지붕의 일부와 십자가만 보이고 본체를 가렸다가 대지에 다 오르면 전체를 드러나게 하는 접근의 재미있는 시퀀스를 의도하였다.

쓰인 재료는 노출콘크리트와 토석벽돌이며 어떠한 마감처리도 없는 소재 그대로이다. 거칠고 힘있는 콘크리트와 벽돌은 중세건축에 접근하는 강한 표현성을 갖고 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어우러져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힘찬 거꾸집 패턴은 물과 빛과 시간을 말해준다. 여러 소재들이 모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이러한 구조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아닌가!

현대인들이 상실한 표면질감에 대한 감각적인 의식과 잃어버린 감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구에게나 열린, 특히 여행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부활의 신비에 동참케 하고 그들의 내부에서 영혼의 여파와 동화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성당이 되기를 바란다.



사선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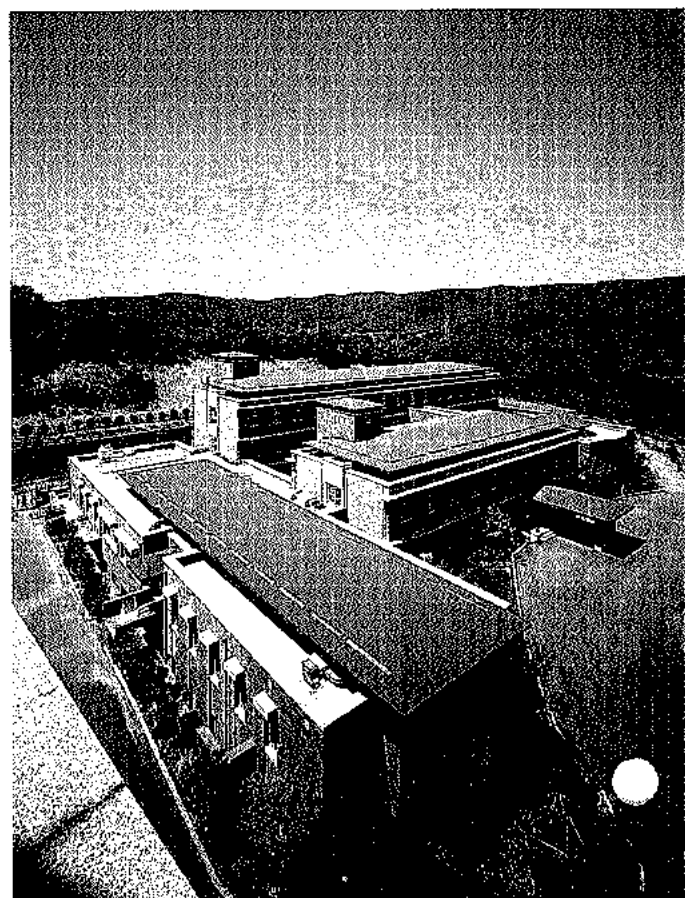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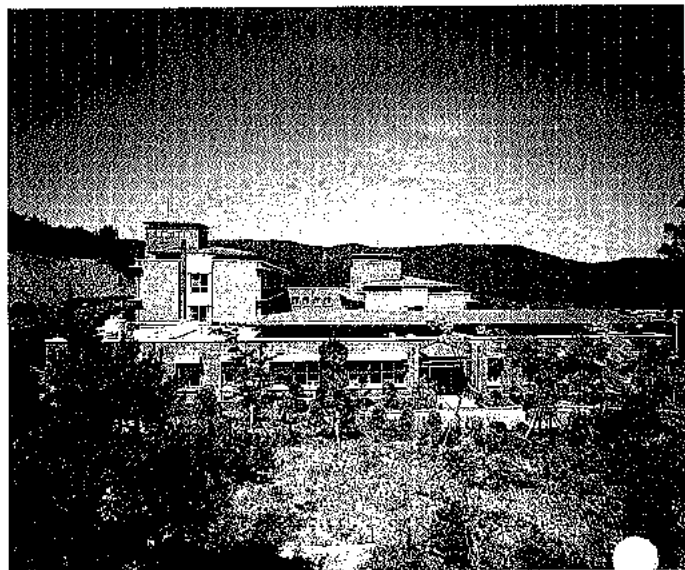
성모의 집 Holy Mother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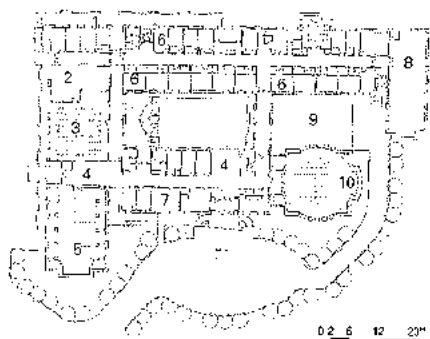
서보광 · 이중환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eo Bo-Kwang & Lee Jung-Hwan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이 옆을 흐르던 냇가에서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매주 들렀던 현장에서 만난 한 현장인부의 얘기가 생각난다. 아마도 이곳이 얼마전까진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던 모양이다. 무분별한 개발의 영향이 비록 코앞까지 다다랐지만, 그래도 수녀원이 자리잡은 이 터는 경이롭고 양지바른 곳이며, 바람을 막아주는 뒷산이 있고 옆으로 흐르는 내(川)가 있어서 좋은 곳이다. 나는 이곳에 주변의 나무를 닮은 지붕과 대지를 닮은 벽을 지닌 건물, 차분한 수녀님을 닮은 건물을 짓고 싶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병들어 연로한 노수녀님들의 안식처가 될 성모의 집은 기존의 성모 교육관과 장래 증축될 노인홈, 유치원 등의 중심적 공간으로서 터를 잡고, 매스별로 기능이 분화된 각각의 매스를 조합시켜 두 개의 중정을 포용하는 형태의 평면구성으로 각 공간의 영역성과 위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1층에는 구심점(머리부분)이 될 성당을 원형과 정사각형의 복합매스로 외부중정에 면하여 배치하고, 강당, 병실, 물리치료실 및 간호를 위한 공간, 관리시설 등을 매스별로 분리 배치하면서 기능적 상관성에 따른 유기적 조합을 시도하고, 2층은 노수녀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소성당과 함께 배치하여 기도와 안식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3층은 이들을 간호하고 보살필 수녀님들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주기능을 담은 두 개의 주매수와 유기적 연결을 위한 부매스의 조합에 의해 두 개로 분화되는 중정은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 구별되며 공간의 성격을 달리한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매스들의 독자성 표출과 유기적 조합, 입면형태 및 재료계획에 다소 차이를 두면서도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안전한 분위기의 연출로 현대적 종교건축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가진 수직박스형의 기존 성모교육관과 수평선과 지붕선의 조화에 의한 차분한 여성적 이미지의 성모의 집이 조화속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양지바른 이곳이 한 마음, 한뜻의 영원한 삶을 지향하고, 영성적생활, 일상적생활의 양면에서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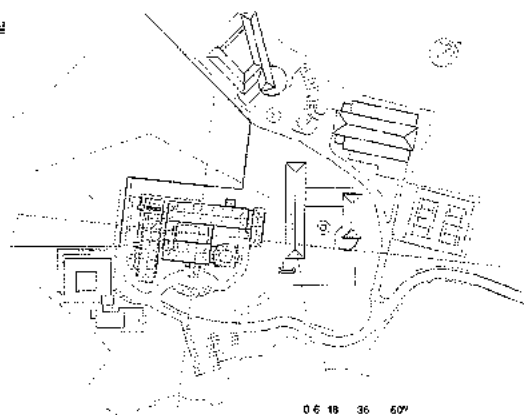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동천리 산6번지외 7필지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종교시설(수녀원)	내부마감	바닥 - 비닐타일, 벽 - 적벽돌+몬타일, 천장 - 암면흡음텍스+ 조리패드
대지면적	23,997.00㎡	외부마감	벽 - 적벽돌, 지붕 - 동판접기
건축면적	2,272.74㎡	주차대수	67대
연면적	4,943.06㎡		
건폐율	14.29%		
용적률	3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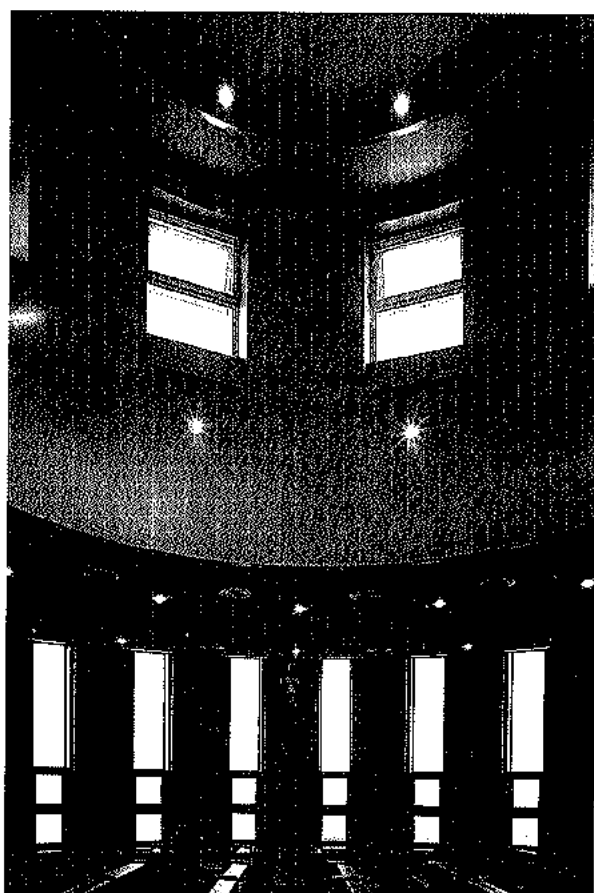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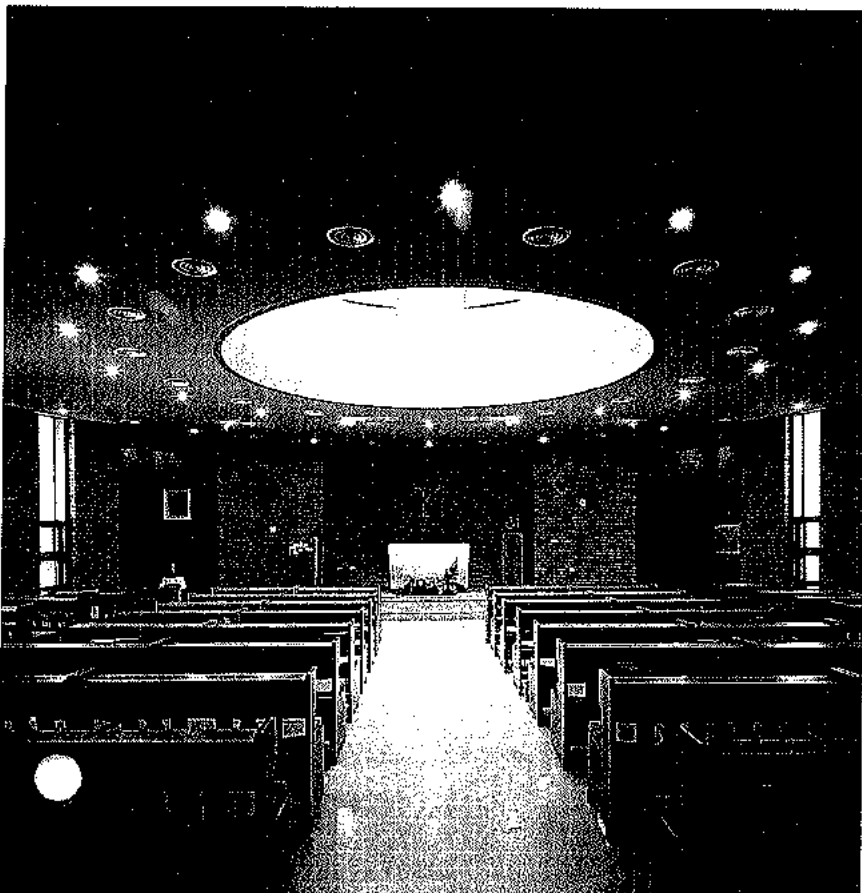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선관
2. 주방
3. 식당
4. 휴
5. 감당
6. 발실
7. 사무실
8. 물리치료실
9. 중성
10. 성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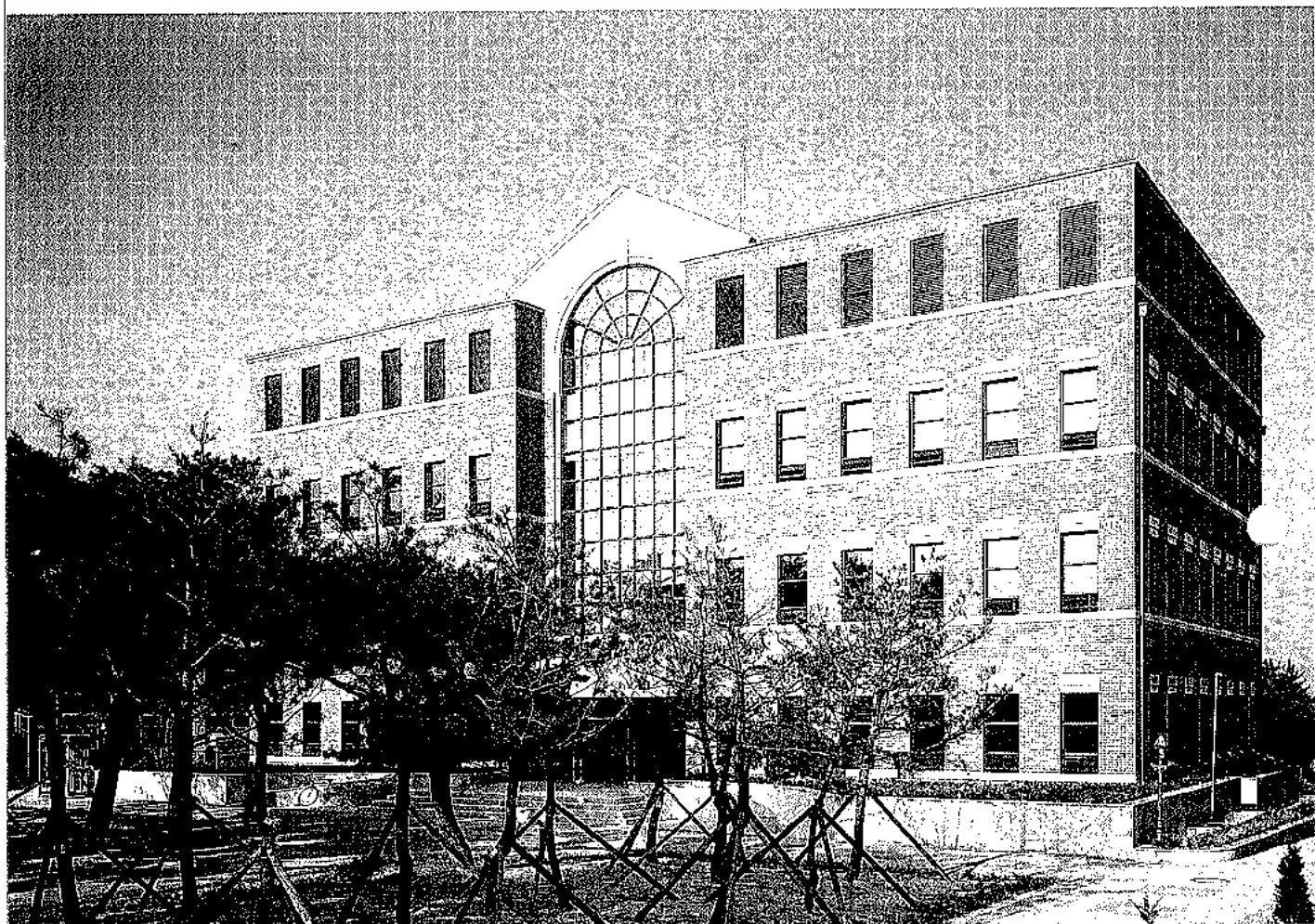


강원도립대학 도서관

The Library of Kangwon Provincial Junior Co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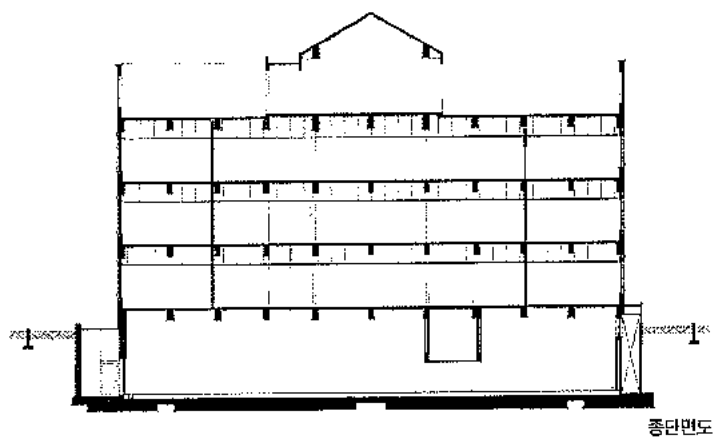
이각표 / (주)엡&이건축+한광호 / (주)종합건축 산

Designed by Lee Gak-Pyo & Han Kwa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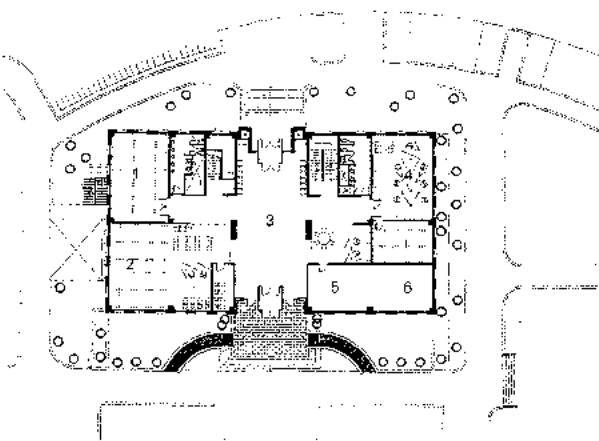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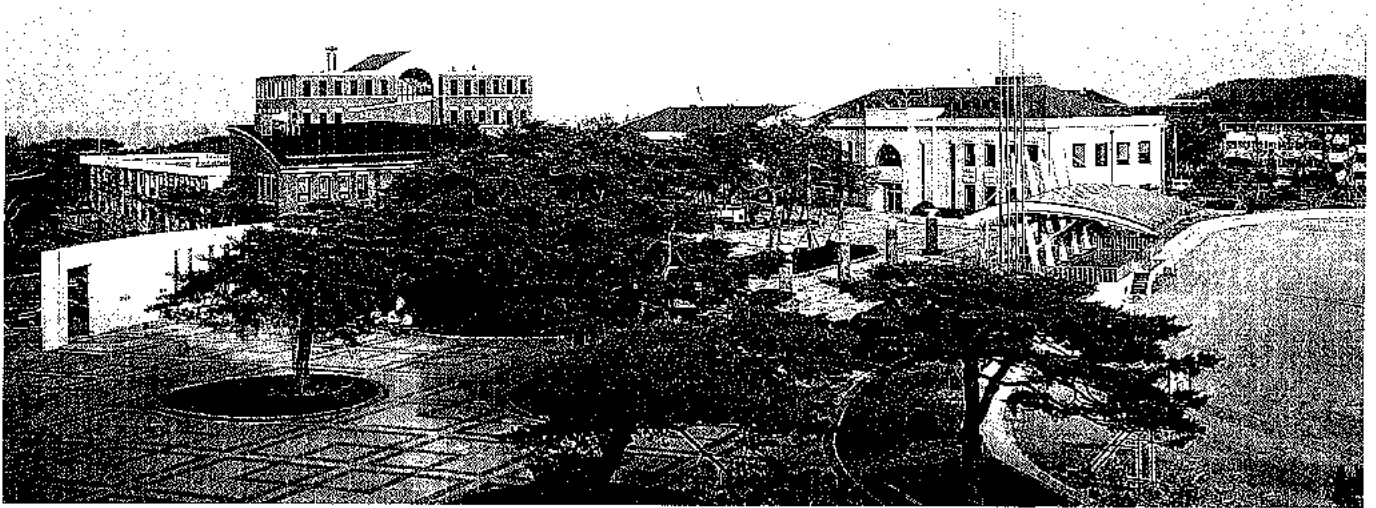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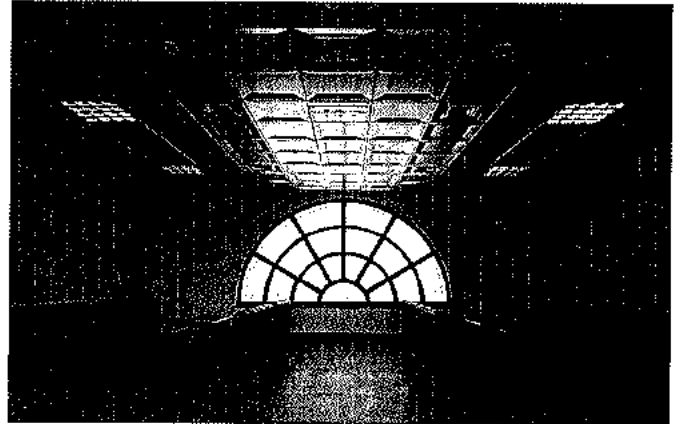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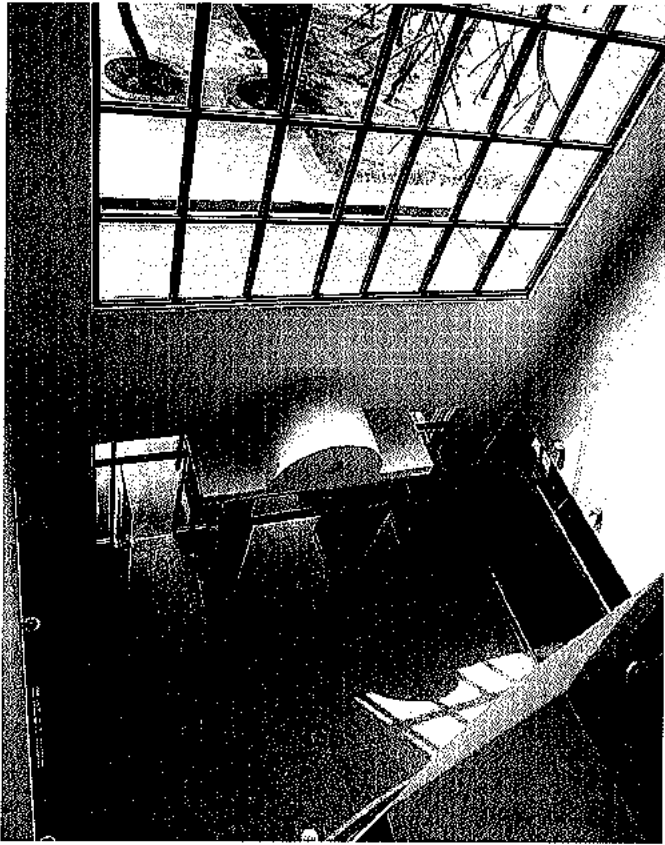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 8-2 외 5필지
건축면적	626.87㎡
연면적	2,562.8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옥탑층
외부마감	번색벽돌 치장쌓기, T16 컬러복층유리



종단면도



1층 평면도

- 1 서고
- 2 자유열람실
- 3 로비
- 4 수서정리실
- 5 정기간행물실
- 6 참고열람실
- 7 자료열람실
- 8 홀
- 9 세미나실
- 10 시청각자료실
- 11 시청각회의실
- 12 사무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아산루

Asanru

김형민 / 에명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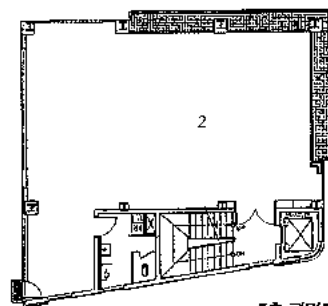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Hyung-Mi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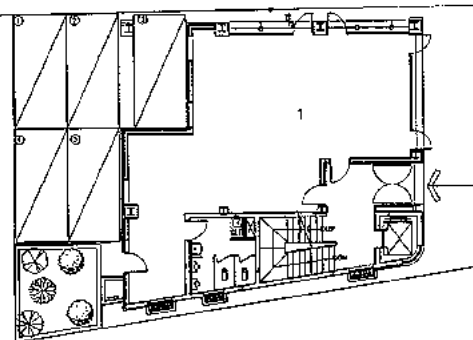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13-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5종)
대지면적	264.7㎡
용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157.41㎡
연면적	943.37㎡
건폐율	59.46%
용적률	285.76%
규모	지상1층, 지상5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물갈기+질석 뿔칠, 컬러 및 파스텔 복층유리
내부마감	바닥: 후로아덕트+비닐계쉬트, 벽: 수성페인트, 천정: 아미텍스
설계기간	1997. 9~1998. 2
공사기간	1998. 4~1999. 3

아산루는 지역에서 오랜 세월 기술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주와의 만남과 자연스런 사옥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계가 의뢰되었고,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이 그렇듯 법의 허용한도내에서 최대한의 면적수용, 설계비를 포함한 최소의 시공비로 마무리지어야 하는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디자인은 최상으로 비용은 최저로)를 진지하게 더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누구나 갖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표정한 건물이 아니라 건축언어를 보존하며, 내부공간이 자연과 호흡하고 거리의 표정을 담은 친근감 있는 건물형태는 무엇일까? 관청(아산 시청)건물과 아파트의 주거군, 몇몇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에는 덩덤한 표정의 주변환경에 안목의 도전을 주고 전도된 건축문화의 가치를 선도하고자 하는 소박한 기대를 가져봤다.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으로 나들이 오는 행렬과 외곽도로를 거쳐 예산과 수원으로 이동하는 객들과 부지 바로 앞에 있는 아산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지역의 이정표로써 불거리를 제공하며 관입과 조화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간선도로에서 온양온천으로 접어드는 코너에는 2층에서 4층까지 경사진 커튼월로 처리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담는다. 5층 발코니와 지붕난간은 적색, 청색의 불소수지 도장으로 액센트를 주어 마무리하고 1층, 5층의 눈썹모양으로 연출된 창문과 그 양편에는 전면의 원형과 측면 박스형태 창으로 조화를 갖고자 하였으나 건축심의 때 안목높은(?) 어느 위원께서 전면 모두 박스 형태를 요구하여서 파격의 운치가 거세진 아픔이 곡선형 지붕모습에 서너마 달래지기를 기대한다. 한옥의 귀처마처럼 둘러진 현관출입구와 배면의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의 노란색 난간이 분위기의 생동감을 더해주며, 주변정리가 되지 않은 산만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 모습을 찾고, 작품의 의도가 생명감 있게 드러나듯 아산시가 갖는 소규모 건물의 포스트사인으로 자리매김하며 행위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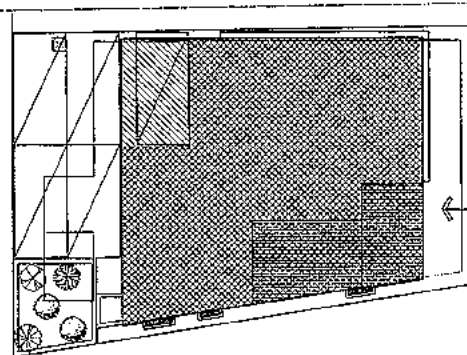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일반음식점
2.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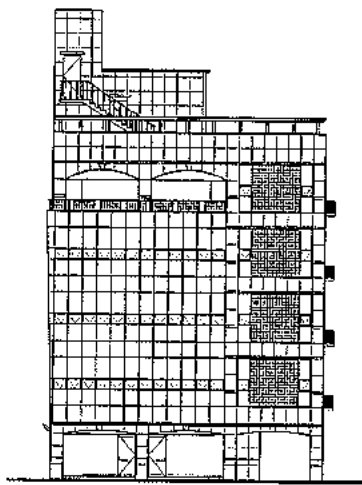


8m 도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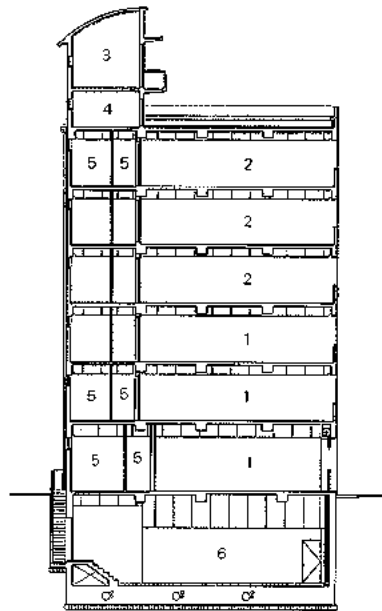
0 1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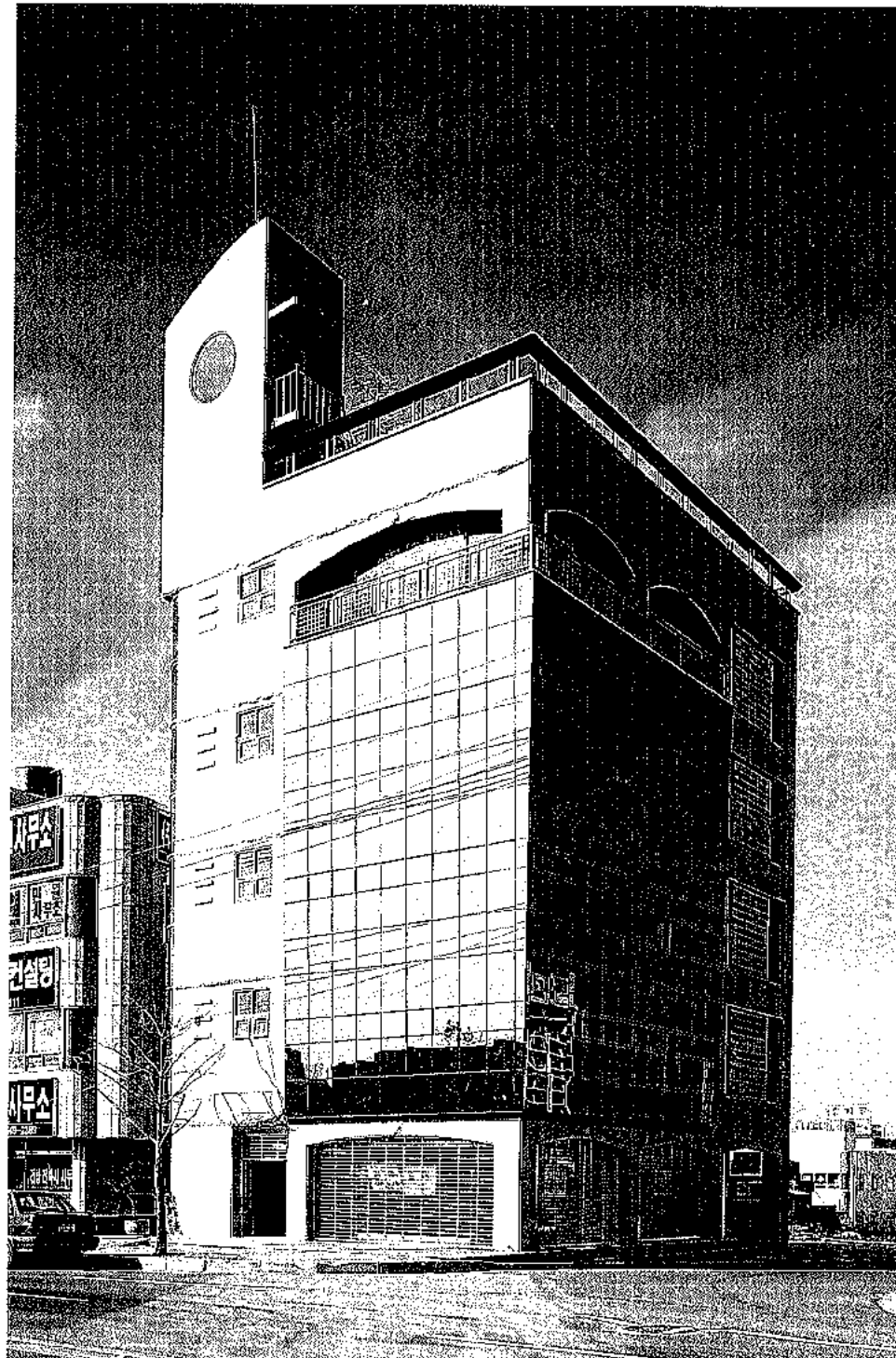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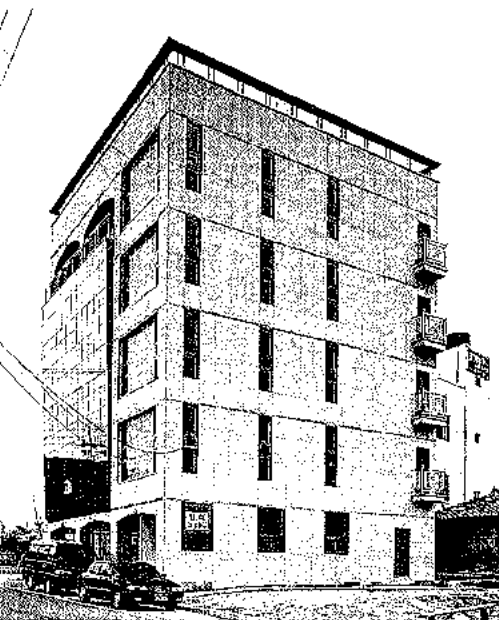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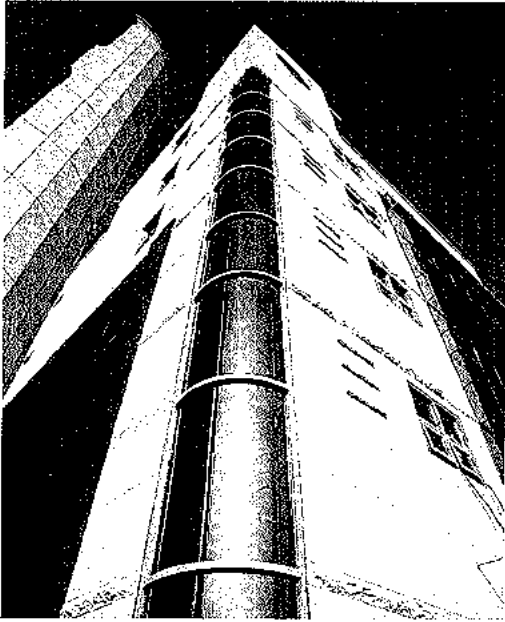
0 1 2 3 4 5

우측면도

1. 의원
2. 사무소
3. 기계실
4. 창고
5. 화장실
6. 휴게음식점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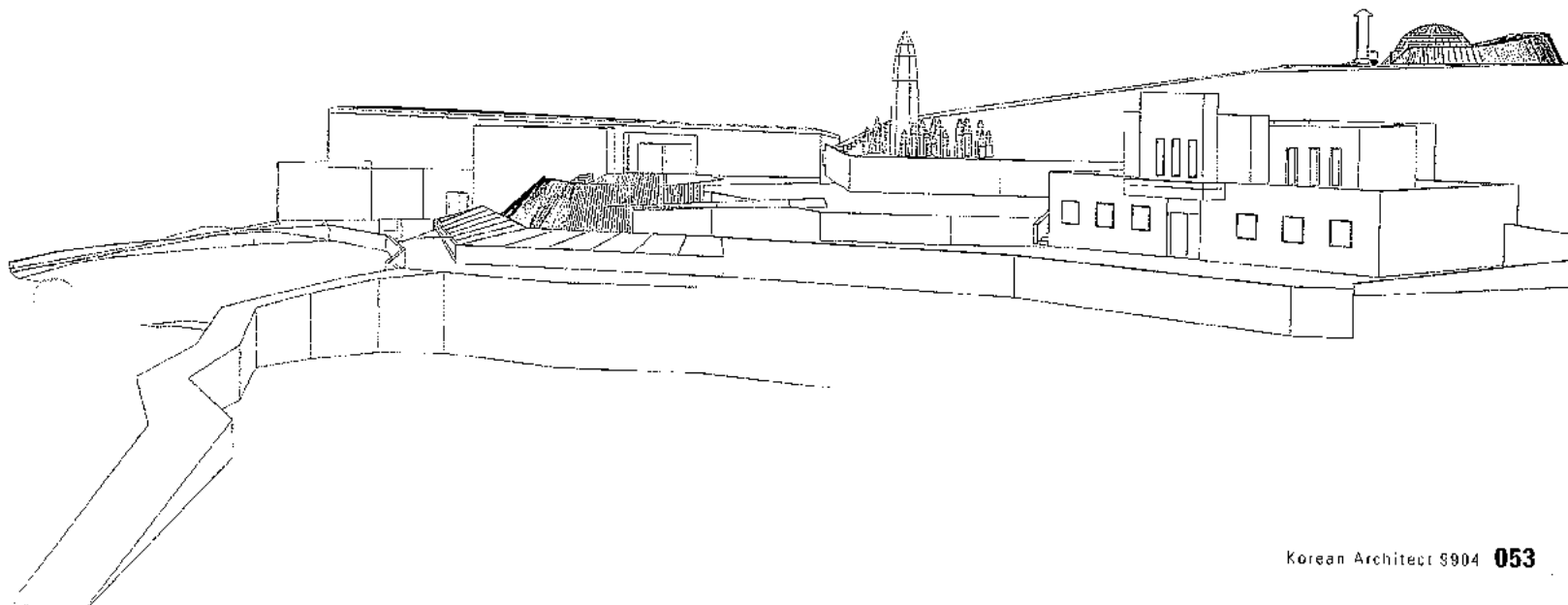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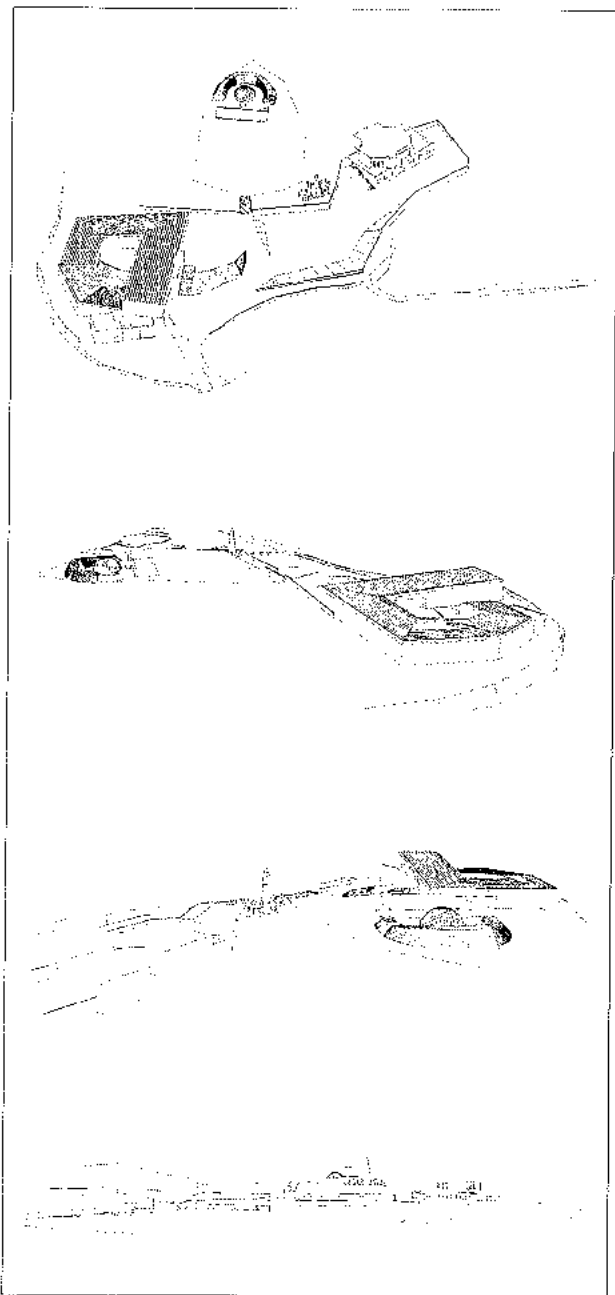
임재웅 / 건축사사무소 오. 씨. 에이.



이 프로젝트는 필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 건축이 '흔적 읽기이며 흔적 만들기'라는 생각을 일깨워준 프로젝트이다. 미국에서 작업할 때는 물론이고 귀국하여 일산 신도시의 주택 프로젝트를 할 때까지 '대지 읽기'를 하는 작업의 태도는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도 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나 땅의 흐름 등을 다루어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 컨텍스트를 읽어내고 거기에 기대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데 열심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귀국해서 처음 완공한 일산 주택 프로젝트에서도 분명히 한국 땅에서 하는 작업인데도 일산 신도시라는 도시의 특성이 서구적(?)이어서인지 한국적인 땅의 맛(?)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나마 한국어라는 땅이 다르구나 하는 점을 처음 느끼면서 했던 작업이 강화도에 위치한 연동교회 수양관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처음 맛보기 시작한 '흔적 읽기'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것이 바로 제암리 기념관 프로젝트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작업했지만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묻혀 버린 프로젝트다. 주최측이 밝힌 "대지 자체가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고 주변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곳 제암리를 찾는 관광객의 3분의 2 이상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가장 중요시 했다."는 심사위원 선정 경위 설명은 본인에게 '전통과 현대의 접목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숙제를 안겨 주었다.

이 프로젝트도 건축 행위는 대지가 지니고 있는 흔적을 읽어 내고 읽어낸 흔적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흔적을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본인의 사고 체계를 따라 진행되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읽어낸 흔적들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흔적 읽기

길과 축대: 첫 번째 대지 답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방향에서 대지까지 이르는 길과 축대들이었다. 자연적으로 포장된 길은 그 돌들의 크기에 따라 그 맛이 달랐고 마을 어귀에서 묘역까지 자연스럽게 동선을 이끌고 있었다. 길과 나란히 달리는 축대 또한 땅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듯 했다. 이 축대는 묘역 바로 아래에서는 마치 배경의 역할을 하는 듯이 느껴졌고 계획하려는 기념관도 마치 이 축대의 연장처럼 묘역의 배경이 되는 단순한 벽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디자인 모티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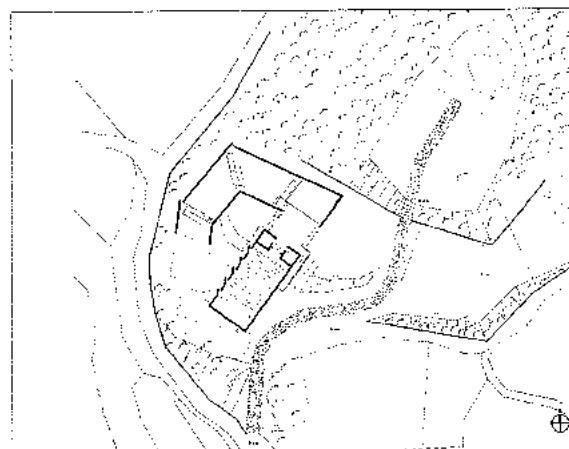
기존 교회의 중정: 대지에는 당국에서 철거하기로 결정한 관청은 기념관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기념관을 헐고 그 자리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되어 있다. 이 건축물의 건축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알바 알토를 좋아했던 분인 것 같다. 조그마한 중정이 좋았고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된 전시장에서는 공간의 흐름도 읽혀졌다. 이 교회는 철거하더라도 중정과 중정을 중심으로 흐르는 전시 공간의 느낌은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고 중정에 있던 나무 한 그루와 기념비는 새로 만들 중정에 옮기기로 생각하였다.

윗마당과 아랫마당: 현재 목사님 사택 앞에 아랫마당이 있고 그위로 3m정도 위에 기존 기념관의 진입 마당인 윗마당이 있다. 이 두 마당은 계단과 휘어져 오르는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기념관에서도 이 두 개의 마당을 그대로 살리고 계단과 오르는 길도 그대로 다치지 않게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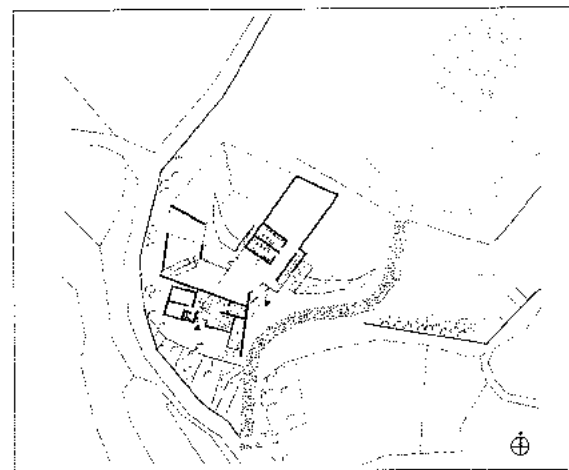
묘역: 기존 묘역은 대지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쪽으로 비교적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다. 기존 교육관 및 기념 조각상도 묘역에서의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비껴서 위치해 있다. 새로 지어질 기념관은 묘역을 담을 수 있는 간단한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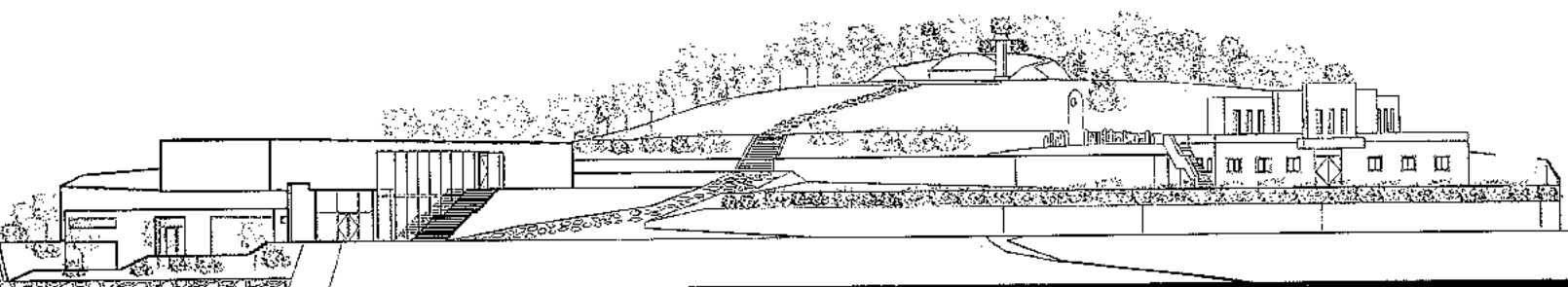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흔적 만들기: 흐름

읽어낸 흔적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 나간다. 제원된 기념관은 그 자체만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묘역을 중심으로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단순화된 매스의 움직임으로 계획되어졌다.

축대의 흐름: 단순한 매스의 움직임은 기존 축대의 이미지를 읽고 재해석되어진 결과이며 건물이 기존 축대의 움직임의 연장이 되고 땅의 형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상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매스의 움직임은 기존의 기념관의 전서 공간을 중정을 중심으로 흘렀던 것처럼 새로운 중정을 중심으로 흐른다. 이러한 흐름은 윗마당에서 시작하여 아랫마당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고 기존의 지형에 자연스럽게 순응한다.

길의 흐름: 기존의 길의 체계를 그대로 연장하여 길이 만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건물의 입구가 생기고 외부의 길의 흐름이 내부로 흘러든다. 또한 묘역에 이르는 기존 길들은 고스란히 보존되고 새로운 기념관은 기존의 동선체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계획되었다.

시간의 흔적 남기기 - 중정: 가운데 남겨진 중정은 기존 기념관의 중정을 재현한 것이며 기존 중정에 있던 기념탑과 나무를 그대로 옮겨서 과거의 흔적을 느끼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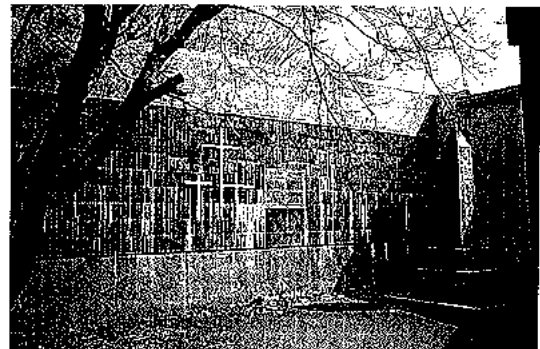
묘역과 묘역에 이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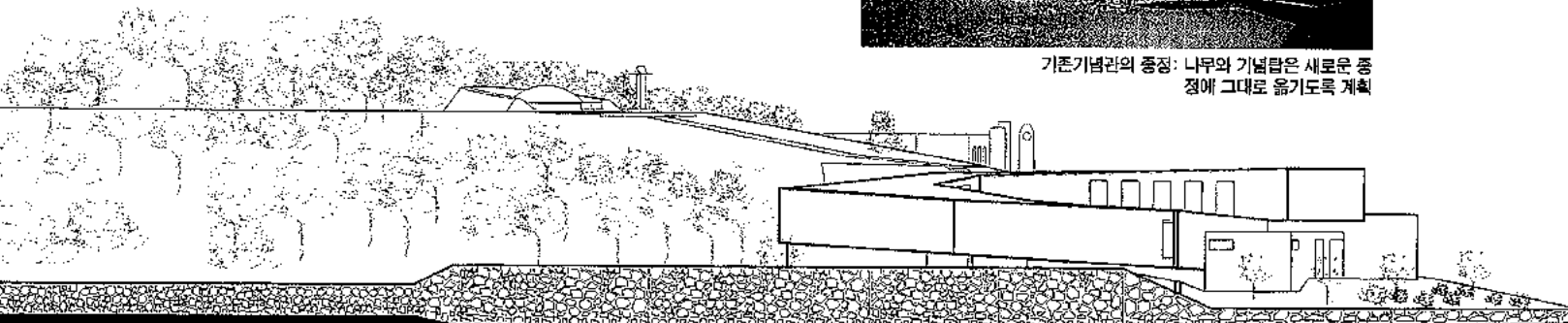
대지에 이르는 축대와 길



기존 기념관과 길의 흐름



기존기념관의 중정: 나무와 기념탑은 새로운 중정에 그대로 옮기도록 계획



아시아건축사대회

Introduction ACA(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아카시아의 행사들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건축사대회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함께 열리다가 1988년 ACA-3부터 아카시아 학술토론회(ARCASIA Forum)와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지난 1998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의 8차 대회까지 여덟번 열렸다. 아시아건축사대회(ACA)는 당대(當代)의 건축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지적인 교류의 장(場), 그 이상이다. 모든 참가자들의 문화활동을 겸한 괄목할 만한 행사인 것이다.

정관(定款)에 있는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격년제로 열려야 하고, 연례 이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아시아지역의 건축가들의 대회를 아시아건축사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s)라 하고 ACA라 줄여서 칭한다. ACA와 함께 열리는 건축학도들의 모임은 챔버리라고 부른다.
- 이사회는 각 회원국으로부터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다음번 ACA개최지의 장소와 때를 정해야 한다.
- 매회 ACA주최국의 건축사협회회장(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반드시 대회 의장이 되어 대회를 준비해야만 한다. 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사항과 대회의 주제 및 프로그램은 대회 의장(Convenor)이 아카시아 의장(Chairman ARCASIA)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챔버리는 주최국의 교육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 교육위원회가 있을 경우 대회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아카시아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대회를 준비해야만 한다.
- ACA 및 챔버리대회는 주최국의 건축사협회에서 모든 재정지원을 한다.

■ 주제 및 개최(Format, Theme, Time Program)

아카시아 점검표(ARCASIA Checklist)의 ACA주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행사준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내용은 많은 부분이 학술토론회에도 적용이 되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회의형식(Format): ACA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아카시아학술토론회와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열리며 대규모 국제회의의 형식(the Form of a large International Conference)을 취한다. 지금까지의 참석규모는 1990년 인도 델리에서의 ACA-4의 2백명에서부터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ACA-3의 6백명 까지도. 적절한 참석규모는 외국인 참가자가 2백50명을 넘어야하고 주최국의 내국인 참가자들의 규모는 주제나 등록비, 회의장소 등이 얼마나 흥미로운가에 따라 다르다.

주제(Theme): 대회주제는 반드시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 및 환경에 관한 절박한 문제들 중에서(Amongst Pressing Major Issues Concerning Architecture and the Environment in the Asian Region)' 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간계획(Time Program): 아카시아 이사회는 행사 2년전 연례 이사회에서 주최국과 대회주제를 정한다. 행사주최를 원하는 회원국은 ACA를 개최하고자 하는 해 직전의 ACA가 열리는 해 이사회에서(즉 2년전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만 한다. 20분 정도로 슬라이드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기념품이나 안내책자 등을 배포함으로써 대회를 주최할 만하다는 것을 각국 공식대표들에게 인식시킨다. 이사회에서 일단 주최국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이사회인 행사개최 일년 전 이사회에서(즉 ARCASIA Forum이 열리는 해의 이사회에서) 자세한 행사계획을 발표하여야만 한다. 1차 안내홍보물(The First Information Leaflet)은 행사일정, 주제, 행사장 및 주최국의 관광안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회 결정후 3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한다. 발표자 이름, 발표문의 제목 등이 포함된 2차 안내홍보물(The Second Leaflet)은 대회 일년 전쯤에 각 회원국에 보내져야 하고 계속해서 행사 한달 전까지 적당한 간격으로 기억시킬만한 한 리플렛이나 서신이 배포되어야 한다.

구성 및 조직

○ 조직위원회(Conference Organising Committee): 원만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안별로 담당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며 각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 위원회(Theme Committee): 주제, 연사, 토론자, 회기별 토픽, 발표문, 연사의 약력/요약문/사진, 보고서

(Rapporteurs), 결의문

- 재정분과(Finance): 재정 수립 및 책정, 예산, 기금조성, 후원자
- 사무국(Secretariate): 집행, 등록, 호텔예약 및 회의등록, 안내센터, 접수 및 회기별 레이아웃, 통역
- 행사위원회(Social & Special Events): 개회식 및 폐회식(Opening & Closing Ceremony), 친교행사(Social Events), 우정의 밤(Fellowship Night), 교통, 동반자 프로그램
- 출판 및 광고(Publication and Publicity): 초청장, 홍보(Public Relations), 정부 및 언론관계, 사진, 의전, 정보안내, 행사보도, 참가자 인터뷰, TV/라디오/신문 보도
- 전시(Exhibition): 건축작품, 건설회사, 아카시아 수상작, 건축관련자료, 전시형식 및 작품수집, 학생건축상 전시

○ 강연자(Speakers): 대부분의 연사는 회원국 또는 아시아국가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추최측의 연사는 한 세션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으로 제한한다. 연사로 선정이 된 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당분간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다. 연사 초청에 최소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종종 연사의 주소, 팩스, 전화번호들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사로 수락을 얻은 다음 곧바로 50단어 정도의 CV(개인약력), 여권사진, 발표문의 제목 및 요약 등을 요청해서 첫 번째 안내문에 넣기에 늦었을 경우 두 번째 안내홍보물에 넣는다. 연사 초청에 시간계획, 대우조건, 주제 및 발표문의 내용 등 기본사항을 통보한다. 토론자들에게도 위의 몇 가지 항목은 적용이 된다.

○ 회기 의장(Session Chairmen): 회기 의장은 체류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회원협회의 고참회원들 중에 대회에 가까이 참석하실 분들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 P.C.O.(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sers): 조직위원장이 회의주최에 경험이 있을지는 회의전문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 회의전문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대체로 회의에 드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ACA를 먼저 치른 회원국 및 아카시아 고문들 그리고 아카시아 의장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작업계획표를 작성해야 하며 고문 및 의장을 초청해서 한두번 사전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

○ 원고(Papers): 발표자에게 최소 6개월 정도의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한두달 지연될 것을 고려하여 원고의 마감일을 정한다. 원고 편집할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발표문 원고는 책으로(In a Book Form) 만들어져서 대회장가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 아카시아 사무국(Arcasia Secretariate):

아카시아 의장 및 서기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준비단계 조절작업을 한다.

○ 샘플들(Samples of Published Material): 먼저 대회를 치루었던 회원국으로부터 얻거나 또는 PAM(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아카시아 기록보관소(ARCASIA Archives)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가방(Conference Bag): 가방에 들어가야 하는 물건들은 대회 일정표, 연사명단 및 발표문 제목, 참가자 명단, 회의 주최자의 공식전화, 주최국 조직위원회 중요위원들의 연락처, 발표문, 아카시아 선전용 자료들, 노트, 연필/펜 등이다.

■ 그 동안의 아시아건축사대회(ACA)

ACA의 발표 및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협회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1984년 ACA-1 이래로 지금까지의 보고서가 건축사지에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과월호를 참고해도 되나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여 지난달의 학술토론회에서처럼 주제와 주최국 및 의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본다.

ACA1 주제: 아시아건축사들을 위한 전략(Strategies for Asian Architects)

개최: 1984. 10. 필리핀 마닐라 의장: 펄립 멘도사

ACA2 주제: 아시아에서 건축실무를 위한 전략 및 아시아건축의 설계방향
(Strategies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Asia Plus Design Direction in Asian Architecture)

개최: 1986. 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의장: 데이비드 테

ACA3 주제: 새로운 아시아 정신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The Asian Spirit: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개최: 1988. 11. 대한민국 서울 의장: 송기덕

ACA4 주제: 건축 및 개발과 환경(Architecture, Development & Environment in Asian Context)

개최: 1990. 9. 인도 뉴델리 의장: 미라 도바카/나투비 바드메카

ACA5 주제: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Towards a New Direction in Architecture)

개최: 1992. 10. 파키스탄 라호르 의장: 사이드 무하마드 이르판

ACA6 주제: 건축교육을 위한 혁신(Innovation in the Learning of Architecture - the Shaping of an Architect)

개최: 1994. 12. 필리핀 마닐라 의장: 네스토 망기오

ACA7 주제: 영혼을 간직한 도시 - 변화하는 세계에서 건축가의 역할(City with a Soul - the Role of Architect in a Changing World)

개최: 1996. 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장: 마이클 수마라잔토

ACA8 주제: 아시아 세기를 위한 건축(Architecture for the Asian Century)

개최: 1998년 11월 스리랑카 콜롬보 의장: 락쉬만 알워스

(글/조안숙, 본협회 국제위원, 다리건축)



제3회 아시아건축사대회 때의 모습
(서울 개최, 1988. 11. 7~11)

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 표준안(Ⅱ) - 부록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 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 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아예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 UIA 총회 결의내용

- UIA의 업무 진행과 전문 업무 위원회를 이끌어갈 정책적 추천장으로서 전문적인 건축 업무의 국제적인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안된 UIA 협정을 채택한다
 - 이 협정은 더 나아가 북경에서 열리는 제21회 총회를 준비하는 정책적 체제로서 회원들간의 협동과 참여를 요청하며 UIA회원 지역 전체에 전달된다.
 - UIA회장은 이 협정이 건축가의 전문성에 기준으로 여겨지는 기초적인 정책 체제로서, 앞으로 UIA가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UIA가 이 사안을 추진할 때 국제 무역 가과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는 점을 국제무역기구(WTO-OMC)에 전달하기 바란다.
 - 윤리와 행동에 관한 협정 방침에 권장되는 가이드라인의 텍스트는 "건설링 서비스에 관한 윤리와 전문적인 행위와 UIA규약" 이라고 한다.
- (이상은 1996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UIA 협정이 건축 업무에 있어서 권장되는 전문가로서의 기준을 제안한 내용의 결론을 요약한 것임).

1. 인정 / 확인 / 승인에 관한 조약 방침

이 과정은 5년 이내의 간격으로 대학과는 독립된 관련 기구에 의해 신임 / 인준 / 승인이 이뤄져야 하며 UIA는 수준 높은 국가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건축가의 전문교육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고 지적 논리가 정연하며, 실무에 바탕을 두며 결과 지향적인 내용으로 훌륭한 실습을 통하여 지도되고 이뤄지도록 진행하고 있다.

1) 서론

건축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은 교육기관이든, 엄격한 기관에 의한 임의로 시도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축 실무 능력과 관련된 디자인, 기술, 전문적인 기능, 윤리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정의 원칙은 인정 기관이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육적 노력과 인정 자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유지하도록 함에 융통성이 허용된다. 만족스런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평가 기준은 사전에 정의하여 합의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학교와는 별개의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기관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방향제시나 수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부 평가단은 학교 소재지 당국이나 별개의 건축 단체에 의하여 지명될 수 있으며, 건축 학교에 의한 외부 평가단이나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단의 임명 제도는 교육기관이 공립 또는 사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독립된 관련 단체는 건축위원회 또는 비정부 기관인 건축 전문 단체일수도 있고 국가, 지방정부 또는 위임된 단체, 혹은 외부 검증 단체와 같은 건축 관련 전문단체일 수 있다.

프로그램 확인 과정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알맞은 인정 방법이란 건축학교를 수료하는 모든 학생들의 작품을 교육기간동안 최소 일회 정도 리뷰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지만, 양측 모두 인정 / 확인 / 승인 과정에서 최종결과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 절차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인정받지 않았으며 최근에 채택되었는가와, 또는 제시된 부분이 변경 되었다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 평가단은 미리 지침서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여 시험지와 답안지, 설계 스튜디오 내용과 스튜디오 작업을 검토하며, 학생들과 교직원을 면담한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 평가단은 교육 프로그램 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인정을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수정을 권유하거나 조건을 제시한다.

2) 인정을 위한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기준과 건축사 자격시험

수준 있는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 지식과 기술은 수준 높은 관련 교육기관(Council of Ministe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Directive - 유럽연합 지도 위원장)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UIA의 건축설계 업무 국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미와 기술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축디자인 창출 능력과 환경 보존적
- 적절한 건축역사와 이론에 관한 지식, 관련된 예술, 기술학, 인간학과 관련된 지식
- 건축디자인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수 예술에 대한 지식
- 도시설계, 도시계획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그 과정에 관련된 능력
- 인간과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환경에 대한 이해, 건축과 공간과 인간에게 적합한 것과 규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 건축 전문직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역할인지
- 연구 조사 방법의 이해와 설계 준비의 이해
- 건축물 디자인과 관련된 구조, 시공 및 엔지니어링 문제의 이해
-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쾌적한 내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문제, 기술, 건물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지식
- 공사비와 법규 한도 안에서 건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능력
- 기관, 제도, 디자인 개념이 건물로 이전되는 과정상의 전체 및 세부 사항과 관련된 산업, 기관, 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
- 프로젝트의 재정과 비용 조절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이러한 지식은 건축가가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며 건축교육 프로그램은 그러한 능력, 지식, 이해 및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UIA는 인정 / 확인된 대학의 인정 받은 건축 프로그램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건축가의 교육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며, 동등한 수준에서의 융통성을 인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무 경력 / 훈련 / 인턴십이 교육보다 선행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의 능력이 제시된 기본 자격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인준은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준 변화를 고려한다. 건축가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변화되어 왔고 계속 변화될 것이다. UIA는 인정 / 확인 / 승인에 대한 지속적인 효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때로 권고된 조약 정책 지침

서를 재고하게 될 것이다.

전술한 여러 기준에 대한 비중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전통 때문에,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교육기관이 여러 기준에 서로 다른 비중을 둬므로, 결과적으로 그 국가에서의 건축가의 정확한 임무 / 역할이 그에 따라 영향 받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교육 프로그램은 앞서 기술된 항목과 비견될만한 주제나 과목의 학습 및 훈련 개요와 일치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인정의 기준은 학습 및 훈련 개요의 검토를 포함시킨다. 학습 및 훈련 개요는 중간 단계인지 또는 마지막 심사 단계인지 실습 훈련기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다.

3) 인정 방법

인정은 프로그램이 인정 받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구(학교)와는 별개의 적절히 조직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인정 기관은 상응하는 훈련과 경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축설계, 실무, 윤리 기준, 경력상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흔히 인정위원단은 등록된 단체들 중 하나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전문 건축직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건축의 객관적인 평가와 포괄적인 견해를 진척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어떠한 경우라도 교육기관이 '인정'에 관련될 경우, 그 해당 교육기관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건축 교육 프로그램 인정 과정

인정 위원단이 채택하는 구체적인 인정 절차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교육 인습에 따라 바뀌게 된다. 또한 인정 절차는 교육 프로그램이 인정이 규정되기 이전부터 고려되어 왔는가, 처음으로 평가되는가 또는 일정기간 제정되어 이미 인정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또는 인정을 얻기에 실패했거나 그 이전에 인정 철회를 당했다면 앞으로 새롭게 인정 받아야 한다. 인정 받는 방법이 일단적이나, 또는 그 이상이나에 따라 심의 과정은 바뀌게 된다. 일부 나라에서는, 학교 기간중인 3년째와 5년째, 학교 마지막으로 실습 훈련기간의 3단계 방법으로 인정 과정을 거친다. 다른 나라는 한 두단계 방법을 거치기도 한다.

인정의 과정은 평가단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그 프로그램의 성과가 기준에 미치는 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는 교육기관이 프로그램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다. 즉 개요,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시험 답안, 외부 시험관의 보고서, 교육기관의 자평 등을 평가단이 교육기관에 방문을 기초하여 작성한다. 또한 그 기간 중 학교장, 프로그램 관련자, 학생들과 회의를 갖고 학생들의 작업과 시설을 조사하기도 한다.

교육기관이 현 과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려고 할 경우 독립된 관계 기관에 의해 우선 내용과 구성과 프로그램 출처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 좋다. 제안서 내용설명이나, 철학적으로 접근된 제안, 학술적인 제안된 프로그램의 설명 등의 정보는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도표, 교육과정 골격 세부 사항, 이수과정의 조건, 구체적인 강의 시간표, 각 과목의 이수 시간 등의 해설을 포함한다.

5) 자료작성과 방문 방법

교육 프로그램 인정에 있어서 처음 시도되거나 이미 제정되어 진행중인 곳이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은 심의 당국에게 자료를 제출한다.

- 본 교육기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지역적, 도시적 환경에 관한 요소의 설명
- 교육과정의 내력에 관한 설명
- 교육 내용의 철학적인 이념
- 교육과정 지도에 영향이 미치는 학생들의 배경상 특성
- 교수들의 비교직 활동 및 연구, 출판 및 저서와 사회활동을 포함한 학문적인 프로파일 요약
- 물리적 상황의 설명 - 스튜디오, 강의 공간, 장비, 실습실, 작업장, 도서관시설, 지원시설, 컴퓨터와 정보 시스템
- 정책 결정 기구 및 관리구조
- 학문 프로그램의 틀, 완성 프로그램의 조건, 다른 프로그램 이수 조건(강의시간표,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교과서 사본)을 포함한 총괄적인 설명
- 학생 등록자 수와 졸업생 수 및 교수 수, 교수와 학생의 비율 등의 통계 자료
- 학교 교육 정책에 대한 자평 - 이전 인정 평가단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 이후 발전된 사항(자원의 준비 변화, 교육과정의 객관적인 비평, 교육과정의 특징, 기타 관련 사항)

인정 평가단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할 시 앞서 최소 12개월 이상 학생들의 완성된 작품이 방문기간 중 전시되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전시는 매년 예정된 교육 내용 프로그램의 발전된 교육과정이 최대한 보여지도록 스튜디오 작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성되고 그려진 작업은, 건축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야 한다. 출품되는 작품은 스튜디오 사진철 견본과 각 과목의 최고 점수 시험 답안지와 각 과목의 최저 등급은 전 교육과정, 모든 과목의 시험결과와 사정 결과에 의해 보충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조사시 인정 당국은 프로

그럼 교사 즉 학교장, 학과장, 스튜디오와 직원, 외부 시험관 등과의 모임을 통해 토론할 수 있다. 또 당국은 학생들을 단체나 개인, 단체와 개인 쪽 다 대화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의 부분으로 교육 평가 방법, 작품내용, 교과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작업, 전문 교수의 활용, 미래 발달에 관한 주제로 토론할 수 있다.

6) 보고 과정

인정 당국은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기록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인준 받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기록에 보충하여 추가된다. 보고서는 인정 당국에 의해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시사한다. 과정은 보고가 실체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신뢰있게 처리되며 모든 관련 단체의 입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정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한정된 존속 기간을 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신임을 권고한다.

2. 설계 실무경험 / 훈련 / 인턴쉽에 관한 정책 조약의 지침 제안서

건축과 졸업생은 건축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등록/면허/자격에 앞서 최소 2년 동안의 인정할 만한 경험/훈련/인턴쉽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등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가진다. 지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무 경험 / 훈련 / 인턴쉽 기간

등록 / 면허 / 자격시험 이전 하기의 경험을 포함한 2년 기간 이상 경력 기간을 가질 것을 정의하고 있다. 이 기간의 반은 인정 / 확인 / 승인을 얻은 교육 프로그램의 졸업 후에 받아야 한다.

2) 실무 경험 / 훈련 / 인턴쉽 기간의 목적

건축 실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실무, 활동, 인턴 경험은 기준 방법에 의해 기록되도록 확인하며, 인턴은 건축 실무에서 폭 넓은 경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경험의 범위

인턴의 실무경험과 훈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 중 최소 반 이상은 건축가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젝트 및 사무관리

- 건축주 상담
- 프로젝트 개요 및 기초 도면의 건축주와의 상담
- 건축주 요구 사항 정리
- 계약전 프로젝트 관리

-계약 조건 결정

-요구사항 정리

-전문 외주 업체와의 조정

-사무 및 프로젝트 원가 관리

● 디자인과 디자인 도서 작성

-부지 조사 및 평가

-대 관청 협의

-관련 법규 검토

-기본 및 D.D. 설계 도서 작성

-인 · 허가 도면 작성 및 검토

-예산 / 적산 / 설계 비용 산출 및 사업성 검토

● 시공 도서 작성

-시공도면 및 시방서 작성

-설계기간 / 원가 계획서 검토

-법적인 요구 서류 검토

-협력 업체 서류 조정

-공사 계약용 도서 및 시방서 조정

● 계약 관리

-부지 회의

-공사 감리

-시공자への 지침, 통보, 승인 지시

-건축주 보고서

-변동 관계와 재정상의 허용 범위 관리

4) 실무 경험 / 훈련 / 인턴쉽 기록

인턴은 훈련, 경험, 인턴쉽 기간동안 받았던 교육 내용을 기준 양식에 따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위의 2항에 명기되어 있는 분야와 관련지어져야 하며, 지도 건축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 근거는 등록 / 면허 당국의 요구에 의해 완료된 실습 경험 / 훈련 / 인턴쉽의 증거 자료로서 제출된다.

5) 지도(감독자)

인턴은 지도 아래 경험을 쌓는다. 감독자는 등록이나 면허를 갖춘 건축가로, 인턴쉽의 관할 지역의 명시된 경력 기간동안 고용주나 건축가로서 인턴 기록을 맡게 된다.

6) 핵심 지식과 능력 요구 사항

실습 경력 / 훈련 / 인턴쉽 기간의 완료시 실습자는 다음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실증 받거나,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축 실습

-국내 · 외 건축 전문직 개요

-지식과 윤리 기준의 올바른 인식

- 지역 건축단체에 대한 인식
- 지방 건설업 및 건설 법규 개요
- 전문 협력업체의 지도와 조정
- 사무 관리 및 조직
- 개업에 따른 법적 사항
- 책임, 위기 관리, 보험
- 프로젝트 관리
 - 건축주의 합의 유도 및 관리
 - 프로젝트의 진행과 목표의 일정 관리
 - 법규, 조례, 규제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비용 관리
 - 프로젝트 조달과 계약 체계
 - 분쟁 해결
 - 하청업체 관리
 - 프로젝트 관리 및 확인 체계
- 기초 설계와 대지 분석
 -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문제 정립, 분석, 기록
 - 디자인 개념의 정립과 명확한 정의
 - 대지 조건의 확인, 분석, 기록-
- 프로젝트 수행과 체계
 - 프로젝트 진행상의 디자인과 문서작업의 체계화
- Chematic
 - 건축주 요구 사항 분석과 가정, 평가 및 재검토를 통하여 가능한 디자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2안, 3안의 그래픽 표시
 - 건축주와 관심 단체와의 PRE 디자인 제안서 설명 및 합의 도출
- Design Development와 Design Documentation
 - 프로젝트 내외의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공간, 기구, 동선의 분석 및 확인
 - 공종, 사용법, 재료 등의 고려 및 확정
 - 건축주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도면과 도서 작성
- 공도서 작성
 - 건물의 적절한 재료와 시스템의 연구, 분석, 선택
 - 공사와 관련된 공종, 성분, 마감, 비품과 시스템이 표현된 정 확하고 일관성 있는 완전한 시공도면, 설명서 및 일정표
- 공사계약 관리
 - 입찰 서류나 견적서 준비서 작성
 - 입찰과 받은 견적에 관한 평가와 권고 작성
 - 최종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관리
 - 계약 조건상의 요구사항 조사 및 관계 당국 요구 조사

-계약 도서 조건 이행 확인을 위한 시공자의 실적 조사 및 평가

3. 전문 지식과 능력 입증에 대한 조약

건축가가 되기 위하여 등록/ 면허/ 자격 신청 한 모든 개인은 국가 관련 당국에 의해 인정받을 만한 전문지식 과 능력을 실증 하여야 한다.

1) 서론

전문적인 습득은 대학수준의 교육기관에서의 연구와 설계 사무소에서의 조직적으로 지도 받아 평가된 경험 등 양 쪽 모두를 의미한다. 전문 지식과 능력의 입증은 교육과 실무사이 에 협력 요구와, 학문 기관과 실습 자격을 갖춘 건축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출판된 UIA / UNESCO 교육 현장과 또 다른 지침서에서 폭넓게 제시되어 있다. 습득 수준은 '인식 과 '이해' 와 특별한 전문적인 임무를 할 수 있는 능력 등 수준이 다양하다. 일부 과제는 주로 대학 환경 내에서 습득되며 그 밖의 다른 과제는 건축가 사무실의 작업 과정에서 익히거나, 건설 현장에서 습득하게 된다.

지식과 능력의 평가 방법은 다르다. 대학 교육 에서는 설계 작품의 비평과 평가, 리포트 제출, 시험의 다지선 다나 눈술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 실무 경험은 케이스 스터디나 실습 기록에 의한 기록 평가, 필기 및 실기시험, 경력 있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심사 받는다. 적절한 평가방법은 각 국의 구조와 다른 문화적인 차이로 나라 마다 다르다. 하지만 '건축가' 라는 직함은 대학수준의 학문적 인 프로그램의 이수과 평가받은 실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개인에게만 수여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은 신성한 분야라고 본다.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는 능력은 설계 과목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설계 스튜디오의 목적은 적절하고 미적인 디자인을 만들며, 전문가로서의 건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와 같은 능력을 배우고 증명해나가는 것이다.

2) 권고된 UIA 모델

① 전문적인 학교 교육

건축가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는 UIA / UNESCO 교육현장에 권고된 대학 수준의 전문적인 학 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식과 능력 평가를 위한 정확한 양식은 프로그램 공급자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대학이다. 학문 평가 기준은 인정 / 확인 / 승인에 대한 위 원회의 권고된 정책 지침을 응용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② 인턴쉽 / 설계 경력

앞서 정책에 실무 경험이 건축사 등록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전문적인 경험 기간을 위하여 조약 정책 확인 필요하다. 전문적인 경험 심사는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건축가의 지도 아래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여 심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요즘은 사무소에서 보낸 기간보다도 평가와 습득 결과 기록이 강조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실습을 통한 지식 습득 기록에는 신청자의 활동, 주된 프로젝트의 연구비평, 신청자가 맡은 프로젝트, 전문 실습 지식과 능력에 대한 시험과 경력 있는 전문 시험관과의 인터뷰 등이 남는다.

③ 최종 전문분야 심사

어떤 지역에서는 더 높은 지식과 수준 평가가, 중앙 관리된 시험이나, 실기시험, 전문직 실습 시험관의 인터뷰 등의 형식을 대체한다. 실무 경험은 UIA 권고문에 따른 교육이나 실습의 결과물로 평가하여야 한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된 평가 제도는 시험 결과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는데 특유의 어려움을 인지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강요나 과도한 제도는 피해야 한다.

인증을 받아 학문적인 전문 프로그램을 폭 넓게 양립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미리 승인 받은 학문적인 건축 교육 자격이나 또는 평가받은 전문적인 실습을 통해 최종 심사를 하나, UIA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가받아 오지 못했던 다른 범위에 관하여 최종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한다. 외부로부터 전문분야에 대한 검증이 되어있지 않은 광범위한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UIA는 종합적인 최종 전문 심사를 통해 전문직의 원숙함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를 선호한다.

④ 일반적인 습득 결과와 특별한 전문 지식

주로 지식과 능력에 관계된 적격성은 UIA / UNESCO 교육헌장에 채택된 대로 건축가의 실습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특별한 시기와 장소에서는 설계사무소 운영에 요구되는 지식 범위의 차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계약법이 현존한다는 것은 세계 공통이지만,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관련 법규는 보다 구체적일 수 있다. 힘력에 대한 구조의 이해는 공통적이지만 지진에 대비한 디자인 방법이나 지질학 조건의 지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UIA는 전문 분야의 경쟁력을 일반적이고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실습 시간을 초월하고 실습 위치에 관계없이 똑같은 습득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전문직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UIA는 인식하며 대부분의 건축가 지도 규범은 건축가들이 지식

과 능력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수입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UIA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이미 검증된 부분에 대한 재검사는 (또는 시험은) 지양한다. 첫째는 자원 낭비이며, 둘째는 건축 영역의 자유로운 교류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⑤ 능력에 바탕을 둔 건축사 등록과 실무 경력 요구 조건 UIA는 능력에 바탕을 두지 않는, 예를 들어 '거주지 조건'과 같은 교류 및 등록 제한에 반대한다.

⑥ 능력 향상 평가 VS 반복 시험

건축 행위는 복잡한 전문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한 일이다. UIA는 시험은 학생의 발전에 따라 계획된 단계에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의 전공 교육 기간중이나 마지막에 학위에 위해 표시
- 전문적인 실습기간 말기에 또는(and / or)
- 전공분야 또는 일반 본질에 대한 최종시험

이것은 이전의 평가 특성에 달려 있다.

⑦ 관계 당국에 의해 능력 실증

관계 당국이 면허 등록, 기능, 전문협회, 회원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관련 당국에 요구되는 기준이다.

-UIA에 의해 권고되거나, 다른 다국적인 자료나, 국제적으로 인정할만한 국가 기준과 같은 능력 기준 채택

-독립된 신임 / 인준 단체에 가입하여 추천을 받는 등 능력 평가를 통한 건축의 학문적인 성과, 인턴쉽 / 전문적인 경력, 특정 전문 지식 분야의 능력평가 기준설정

건축가의 모든 교육과 실무 습득 단계에서의 능력 기준과 범위는 면허 인증단체나 전문 교육기관의 보고나 프로그램을 객관적인 평가단에 의해 인정 / 확인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지배를 받는다.

⑧ 건축교육과 교육 요구 변화에 대한 모니터

건축 교육과 실무 훈련은 사회의 기대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하여야 한다. 내구성, 건강과 안전, 지체부자유자의 접근성 등이 지난 10년간의 교육과 실무에서의 변화의 예이다. 능력평가방법과 범위가 전문직 발전이 정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능력지침서는 건축 교육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막연한 지침서는 일반인이 건축가의 능력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기대에 부응을 못할 수 있다. UIA는 건축 교육과 실무실습의 인정 / 확인 / 승인 과정과 검토기준이 현실성이 있도록 매 5~6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권고한다.

4. 건축설계의 등록 / 면허 / 증명서에 관한 협정 조약

1) 등록 / 면허 / 증명서

등록 / 면허 / 증명서는 각 개인의 자격 부여를 공식적,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각 개인이 독립적인 건축가로 활동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고품격이면서도 건실한 건축 환경을 위하여, 위험성,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결과물로부터의 대중이익 및 보호 차원에서, 건축 설계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 건축가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 / 면허 / 증명서는 교육, 경험, 대중의 보호를 충족시킬 만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실습, 시험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능력 기준에 기초한 것이다. 직업적인 개업인가는 시민의 건강, 안전, 부를 보호하는 각 지방 고유의 처안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업인가가 옳다고 여겨지는 다섯 가지 기준이 있다:

- ① 무자격자의 실무 운영은 건축주의 삶, 건강, 안전, 경제적 이익 등을 위협하고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 ② 설계업은 고도의 기술, 지식, 훈련을 요한다.
- ③ 설계사무소 개업자의 능력과 책임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의 회원이어야 한다.
- ④ 업무 수행 범위는 다른 면허나 면허가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 ⑤ 이와 같이 규정된 건축가 집단의 대중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은 정당화된다. 건축에 관한 업무는 이런 전통적인 기준을 만족시킨다.

2) 업무 규정 VS 면허등록

“업무규정”, 즉, 전문가로서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특정한 법적 기준(교육, 훈련, 시험)을 만족시키는 사람만 전문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무 규정 또는 개업인가권은 - 국가와 고객이 비용부담을 할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로서의 문호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 무면허인 사람들은 공공의 건강, 안전, 부를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전문가와 직업에 관련된 국가 기관에서 맡는다. 전문가가 업무 규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지를 평가 할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에 해를 끼칠 것인지, 또 그런 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가? 공식적인 규제 외의 수단이 있는가? 법, 규약 또는 규범이 있음으로써 국민이 보호를 받는가, 그런 법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들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또 그런 규제 하에 대중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면허등록”이란 각 개인이 특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면허만을 사용하는 것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업무를 계속 할 수는 있다. 면허 등록이라는 것은 보호받는 면허를 뜻한다. 면허 법안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규정한 어떤 일이라도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함이다(주: 적합 등록은 대부분의 주에서 “증명서”라고 한다. “면허”라는 단어는 주 단위의 규제에서 보호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업무 규정을 의미한다).

면허 등록의 목적은 일반인이 훈련되고 자격이 있는 전문인과 훈련받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면허 등록은 자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걸 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축가의 자격 판정의 척도로 제정될 뿐이다. 공공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적당’의 수준정도로 여겨지지만, 고객들은 건축가의 자격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오해할 수도 있다. 면허 등록은 국가와 고객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적격자들로부터 훈련이 충분하고 자격 있는 사람을 구별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면허 등록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업무를 계속할 수는 있다: 그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면허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3) 법적인 지침 제한

국제 건축가 연맹(UIA)은 건축가라는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칙이 건축 설계 업무에 대한 규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의한다. 이에 따르는 지침은 이런 제의를 반영하며, 각 주의 범위를 넘어서 서로 관련되는 규제의 한정된 문제영역을 다루는 규정을 내놓는다. 국가와 국제의 관할권간에 상호 승인된 조약은 문서화되어야하며, UIA는 승인된 건축가(업무규정이든 면허 등록이든 간에)의 위치만을 인정한다.

기초적인 법정 용어보다는 지침이 권장되는데, 이는 UIA와 회원 구역이 대표하는 각 주의 법이 그 주의 독특한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언어, 조직, 규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정확한 법정 용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줄 것이 뻔하다.

● 건축 설계 업무

등록을 규정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 업무의 정의는 UIA가 채택한 건축설계업무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국제 표준 조약의 정의여야 한다

—정 의: 건축 설계업무는 도시계획 및 설계, 공사(Construction), 확장, 보존, 복구 또는 단일 건물이나 건물군(群)의 개조 등과 관련된 전문 영역의 제공으로 구성된다. 이 전문 영역은 도시계획(Planning) 및 토지이용계획, 도시설계, 기획설계, 실시설계, 모형, 도면, 시방서 및 기술 관련도서, 기타 인물(컨설팅 엔지니어링, 도시 계획가, 조경 건축가, 기타 전문 컨설턴트)에 의해 준비된 기술문헌들의 조정 등을 비롯하여 시공 경제성, 계약관리, 공사 감독 및 프로젝트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런 건축설계 업무의 정의는 건축가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런 서비스는 건축가가 특별한 훈련을 받고 직업적인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 훈련, 능력의 기준 폭이 좁은 관할구에서는 UIA규정의 정의도 더 좁은 기준을 반영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람도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법령상의 허락 없이는 어떤 건축설계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건축설계 업무를 하도록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건축가라고 호칭할 수 없으며, 대중에게도 건축가라고 할 수 없다. 몇 가지 예로, 각 주의 법령은, 법령의 사전 검토부터 건축 업무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범주를 제외하고 있다. 이런 예외 사항들은 건축 업무와 다른 법적인 디자인 관련 활동을 구분하는 수단으로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 관할 구역에서, 엔지니어에 관한 등록 법률은 엔지니어가 수많은 다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는 “사람이 사는” 건물과 부수적인 시설만 설계하도록 법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UIA는 건축 전문가를 규제하는 법규가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서는 안되며 건축가는 자신이 설계하는 건축물을 통해서 사회의 문화적, 미적 가치의 근원을 표현하도록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등록자의 행동 규제

—허 가: 건축가의 행동을 주관하는 규칙 또는 법령을 채택하기 위한 건축 규제 기관의 허가는 반드시 성문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과정과 위법 행위에 따른 취소, 정지 또는 등록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위법 행위의 요소가 되는 게 무엇인지 입법 과정에 의해 더 자세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행동규칙: 성문법은 건축 면허 등록 기관이 단독 역할의 일부로서, 등록된 건축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동 규칙을 공포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성문법은 그런 규칙의 범위와 취지의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또, 성문법은 건축 등록 기관이 관장하는 행동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면허 취소 또

는 정지, 벌금 부과에 대한 근거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 등록 자격

등록 자격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등록 법률을 결정할 때는, “UIA의 건축업무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국제 표준 조약”을 적절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즉, 건축가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방침 또는 지침, 교육 / 인정 / 확인 / 승인 / 실무 경험 / 훈련 / 교육 실습과 실무관련 시험 /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의 증명, 성문법이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시민권이나 주재기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 위: 등록 신청자는 건축학에서 공인된 전문적인 학위 (Professional Degree)를 따라 하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등록된 기관에서 실무 훈련을 받아야 한다. UIA는 건축 교육에 관한 UIA / UNESCO 현장이 건축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확립될 것을 권장한다.

—시 험: 등록되기 위해서, 신청자는 법령에 의해서, 등록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몇몇 과목을 공부하고, 점수를 따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개별면접: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자에게 개별 면접을 요구할 수 있다.

—도덕적 품성: 국가에서 등록 기관에 “도덕적 품성이 선”하지 못한 신청자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분별력을 부여하려 한다면, 신청자의 배경 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를 법률상에 조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 중대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 신청자가 신청서와 관련해서 거짓 진술이나 가짜로 제출한 경우

• 등록자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칙, 성문법이나 법규에 나와 있는 것 중 무엇이든 어겼을 때

• 업무를 행한 관할 지역의 등록 법률을 어기면서, 등록되지 않은 채로 건축 업무를 했을 때

신청자의 배경에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관련 있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시정을 할 것이라는 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등록시킬 수 있도록 등록 기관에 인정하여야 한다.

● 상호 이해 절차

성문법에는 섹션 3의 등록 자격에 약속되어 있는 규정 외에 비거주자인 신청자를 등록시키는 규정도 있어야 하며, 상호 인증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야 한다.

—비거주자인 신청자가 일을 하고자 할 때: 한 관할 구역에서 거주자가 아닌 신청자가 건축업무를 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그 관할 구역에서 상호 인증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등록 기

관이 인정해서 발행했고, 현재 유효한 면허가 있을 때;

- 그 관할 구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그 신청자가 적절하다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비거주자인 신청자가 설계 수임하려 할 때: 어떤 관할 구역에서 건축 설계 수주를 하려는 비거주자인 신청자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건축 서비스를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면허가 없는 사람을 먼저 관할구역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관할구역 차원의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그 관할 구에서 상호 인증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등록 기관이 인정해서 발행했고, 현재 유효한 등록서가 있을 때;
- 관할구청에서 문서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을 때, 즉 (a) 건축업무를 해나가기 위해서, 아직 관할 구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등록될 것이라고 그 관할 구에 상호 인증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등록 기관이 인정하여 발행한 현재 유효한 등록서가 있을 경우 (b) 신청자가 건축 서비스를 하게 될 고객들에게 (a)에 속한 내용의 사본을 보낼 예정일 때 (c)신청자가 그 구역의 건물 설계를 위한 건축가로 뽑혔을 때 즉시 관할구청에 출원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사실, 신청자는 등록될 때까지 건축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 경기: 등록되지 않은 채 어떤 관할 구에 한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 설계 경기에 참여해서 건축 설계 수주를 하려는 사람은 그 경기에 참가하도록 허락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그 관할 구에 상호 인증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등록 기관이 인정해서 발행했고, 현재 유효한 등록서가 있을 때;
- 관할 당국에 문서로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 관할 구에 상호 인증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등록 기관이 인정해서 발행했고, 현재 유효한 등록서가 있을 때;
- 그 프로젝트에서 건축가로 뽑혔을 때 즉시 관할구청에 등록 출원하겠다고 보증할 경우.

4) 업무 형태

UIA의 설계 업무 위원회의 양케이트에 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에서 건축 업무를 파트너십 형태와 전통적인 법인 조직 형태로 허락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인이나 유한 책임 회사를 규제하는 건 성가신 일이다. 따라서 일반에게 건축 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한편, 견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당하고 국제적인 규정을 찾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업무 구조: UIA의 지침은 성문법이 파트너십(유한 책임을 지도록 등록된 조합을 포함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또

는 주식 회사가 그 주에서 건축 업무를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의 3분의 2; 유한 책임 회사에서 매니저의 3분의 2; 주식 회사에서 경영진의 3분의 2가 건축이나 엔지니어링에 대해 주나 국가에 등록된 경우;
-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의 3분의 1; 유한 책임 회사에서 매니저의 3분의 1; 주식 회사에서 경영진의 3분의 1이 건축업무에 대해 주나 국가에 등록된 경우;
- 파트너십의 경우 책임파트너가, 유한 책임 회사에서는 매니저, 주식회사에서는 경영진 중 하나가 건축 업무의 책임자 자신이고, 그 관할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된 경우.

성문법은 등록 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에 의하여 그 주에서 건축 업무를 하는 파트너십, 유한 책임회사, 주식 회사에게 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임원, 경영진, 매니저, 수권권 소유자, 기타 사업 조직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회사명: 한 주나 나라에서 업무 자격을 얻은 회사는 그 주나 나라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되어야 하며, 이 때 주식 회사라면 모든 경영진, 유한 책임 회사라면 모든 매니저, 파트너십이라면 모든 파트너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하며, 주나 국가로부터 건축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하고, 등록 기관이 요구하면 온당한 법령에 따라 회사의 경영진, 매니저, 조합원과 관련된 중요정보, 주소, 이름 등을 제출해야 한다.

5) 공사 기간동안 건축가의 참여

정기적인 현장방문, 삽도면 검토, 계약 서류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도면과의 상이 사례를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건설 지도 및 감리는 건축가의 중요한 책임 중 한 요소가 되며 공공의 건강, 안전, 부를 보장한다. 아래의 지침은 설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공관련 참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 사람이 거주나 사용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의 건설을 진행하는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건축 업무에 관하여 건축가를 채용하거나 건축 설계 사무소와 조우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부지조사, 도면검토, 계약 서류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시공오류 사례를 건축가가 본 대로 건축주와 건축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것 등
- 설계 건축가가 6. 1항에 명시된 공사 감리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공무원과 등록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설계자의 책임이다.
- 위의 6.1에 기술된 건축가의 서비스가 일반인이 충분히 보호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등록 관할 구청이 이런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

6) 건축 설계 업무를 하는 무면허 자에 관한 규제
무면허자의 건축 설계 업무는 국민의 건강, 안전, 부를 위협할 수가 있다. 아래의 지침은 법령 집행의 바탕과 수단을 제공한다:

- 무면허 자들이 건축 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나, 무면허 자들, 무면허 자들을 돕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근절 시키기 위한 지령을 내리거나 정해진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 역시 등록 기관에 주어져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법 제정 기관뿐만 아니라 등록 기관도 무면허 자들, 무면허 자들을 돕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의 행동에 금지령을 내리고 등록 기관이 부과한 벌금의 법적인 시행권을 갖게 해야 한다.
- 건축 설계 도면, 시방, 계산서는 건축가의 도장이 날인되어 지방 건축 부서 또는 공안(公安)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되며, 만약 주의 법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기술 의뢰서 중 어떤 예외를 본다면, 기술 의뢰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주의 법이 그 기술 의뢰서를 제외했다고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상기의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윤리와 행동 정책 조약

현 UIA 자문위원회의 국제 윤리법은 권고된 윤리 행동 강령 조약을 위한 지침서가 베이징에서 열린 UIA 이사회와 총회에서 채택될 시기까지 유효하다. 제안된 새로운 법의 원본이 부속 B에 부착되어 있다. UIA는 그들의 회원 지부가 국제법이나 자국의 법에 금지되지 않는 한 그들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행해지는 나라와 관할권 내에서 이 윤리 행동강령이 지켜지도록 권장한다. 권고된 윤리와 행동 정책 조약을 위한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1) 서 문

멕시코시티 회의가 계기가 되어 수정된 UIA 국제 윤리법과 자문 서비스를 위한 행동법은 1998년 4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합의되어 회원 지부에 의해 베이징 총회에 상정되어 채택되어야 한다. 기초 위원단은 전세계 회원들로부터 나온 윤리 행동 강령의 원칙과 정책이 명료한 조약이 되도록 이사회와 총회에 권고한다.

2) 전 문

건축 전문회원은 전문화, 성실, 능력을 통하여 단일화된 기술로 사회복지와 문화 발전에 공헌한다. 다음의 건축가의 행동 원칙을 자문의 서비스(Consulting Service) 맡을 때의 의무이다. 윤리 행동 강령은 어느 곳이든 모든 전문적인

활동에 적용된다. 전문건축 회원은 건축환경에 도움이 되는 고객, 건축사용자, 건축산업에 대해 책임을 갖고 건축 예술, 과학 확립에 기여한다.

3) 일반적 의무

건축가는 교육, 훈련 경험에 의해 발전된 건축 과학과 예술의 이론, 지식의 조직적인 자체기준을 가진다. 건축 교육, 훈련, 심사의 과정이 체계화되어 일반에게 확산을 주게 된다. 건축가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에 알맞는 합법적인 기준에 의한다. 건축가는 건축 과학과 예술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 의무를 갖는다. 건축가는 건축적 업적 자체를 중시하며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고, 건축 예술, 과학을 추구함에 있어(다른 어떤 목적으로 인한 이상의) 강경한 전문적 판단을 우선한다.

- 건축가는 그들의 실무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건축가는 심미적으로 뛰어나고 건축적인 교육, 연구, 훈련, 실험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 건축가는 건축 산업의 지식과 재능에 기여하고, 동류의 건축 작품을 증진시킨다.
- 건축가는 내부 실무작업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자격 있고 지도 받은 직원이므로 실무 과정을 확실히 보장한다.
- 건축가를 대신하여 고용인이나 지도 감독 아래 어느 누군가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건축가는 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 볼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면 충분히 감독, 지시해야 한다.

4) 공공에 대한 의무

건축가는 그들의 전문적 업무를 규정하는 법의 정신과 문자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공공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그들의 전문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건축가는 그들이 건축물 창조에 있어 지역 사회의 자연 문화적 유산과 가치 체계를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주거의 삶의 질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자신의 작품을 이용할 사람이나, 작품을 즐길 모든 자들의 폭 넓은 이해를 구한다.
- 건축가는 직업 활동에 있어 자신에 관한 거짓이나 그릇된 홍보나 현혹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건축가의 실무에 있어서 사업 형태는 또 다른 실무나 용역을 겸하는 혼동과 오도가 없어야 한다.
- 건축가는 전문직 활동에 있어서 행동법을 준수한다.

-건축가는 국제 조약문, 합의문, 자국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와 관할권내의 윤리, 행동 법을 준수한다.

-건축가는 시민과 전문가로서, 시민 활동에 적절히 참여하여 건축적인 쟁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대시켜야 한다.

5) 고객에 대한 의무

건축가는 전문적 태도로 고객에게 진실하며 양심적으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전문 서비스가 행해질 때 기술적 전문 기술들을 위한 판단은 편견과 선입관 없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적 판단은 건축의 예술과 과학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목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가는 고객에 대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재정과 기술 자원이 보증되는 곳에서만 전문적 작업이 수행된다.

-건축가는 기술적 책임과 근면함으로 그들의 전문적 업무가 이루어진다.

-건축가는 그들의 능력이 합의된 제한된 시간 내에서 과도하고, 지연 없는 전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건축가는 건축의 질, 비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점과 주어진 업무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가는 그들이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경험, 훈련, 교육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들과 함께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독립된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건축가는 상대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업무 영역
- 책임 배치
- 책임 외 한계
- 요금, 또는 계산 방식
- 종료에 대한 조항

-건축가는 고객의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고객의 사전 승낙이나 다른 법적 권위없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개 될 수 있다.

-건축가는 고객, 소유주, 계약자에게 이해의 혼란을 초래하여 그들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건축가 의 공정한 판단이 방해 받을 경우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6) 전문성에 대한 의무

건축가는 성실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익을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한다.

-건축가는 정직과 공정성을 추구한다.

-타의로 건축가 등록을 제명 당했거나 협회 회원 자격으로 인

정받지 못한 부적합한자와 파트너나 공동 관리자와 일하지 않는다.

-건축가는 그들의 활동을 통해 전문가의 품위와 성실을 촉진 시키며 그들의 대표자나 고용인은 이 기준에 의해 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어떤 활동이나 경영도 그들의 (대표자나 고용인) 확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회원들은 오설, 사기, 속임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7) 동료에 대한 의무

건축가는 동료의 전문성에 대한 열망과 기여를 인정하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건축가는 인종, 종교, 장애, 결혼 여부, 성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건축가는 창작한 건축가의 표현 허가 없이 다른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취해서는 안된다.

-건축가는 계약을 얻기 위해 선물이나 유인물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건축가는 독립된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청 없이 비용 견적을 낼 수 없다. 부도덕한 건축가로부터 고객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비용 견적 내용을 명확히 가려 제공되어야 한다.

-건축가는 독립된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도덕한 건축가로부터 고객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서비스에 대한 다른 건축가의 견적 비용을 고려하여 견적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건축가는 다른 건축가의 임명에 있어서 부당하게 찬탈해서는 안된다.

-UIA나 그 회원 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건축경기는 참가하지 않는다.

-건축가는 건축경기 심사위원으로 임명되면 그 행사에 대하여 다른 어떤 자격으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부당하게 악의를 갖고 다른 건축가의 업무를 불신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된다.

-건축가가 사업이나 다른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려함에 있어서 같은 고객이 다른 건축가와 계약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다른 건축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다른 건축가의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임명되었을 때 하는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 소송에 불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축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건축가는 적절한 작업 환경과 공정한 대우를 협회와 고용인에게 제공하여 전문성 개발을 활성화시킨다.

-건축가는 개인의 전문적 재정이 신중히 운영되도록 한다.

-건축가는 자신의 명성이 서비스와 실천의 가치를 통해 얻게

되므로, 실행된 전문 작업이 타인에 대해 인정받고 신뢰받을
록 해야 한다.

6. 지속적인 직업 발전에 조화를 이루는 정책

UIA는 각 회원들에게 대중의 이익에 서서, 회
원의 의무로서 직업적인 발전을 계속 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건축가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확실히 능해야 하며, 행동
규약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기본 조건” 또는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알려진 기준을 유지하지 않으
면 안되게 해야 한다. 그 사이에, UIA는 등록을 갱신하면서 직
업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니터 해야 하며, 모든 나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지침을 공포하고 이런 주제에 대한 정책
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1) UIA의 지속적인 전문직 발전 시스템

지속적인 전문직 발전은 좀 더 높은 등급으로
정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필요에 맞는 건 축가의 지
식과 능력을 확실히 하도록 그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고, 강화하
고, 높아 가는 평생 교육을 뜻한다.

옵션 I) UIA의 정책은 회원 각자가 건축가로
서의 책임으로 전문직 발전을 계속 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건
축가의 지속적인 직업 발전은 대중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UIA
의 지속적인 직업 발전 지침은 UIA의 회원들에게 일련의 기준
을 제공함으로써 각자 현재의 직업적인 발전 방법을 판단하도
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정책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며 미래에
는 각 회원들간의 직업적인 발전간에 유동성과 상호 교류를 가
능케 할 것이다.

옵션 II) UIA의 수많은 회원들이 직업적인 발
전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어도, UIA의 정책은 모든 건축가의 기
본적인 책임으로서 지속적인 직업 발전을 고무시킨다. 강제적
으로 직업적인 발전을 요구하도록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건
축 등록 관할지역이 많다. UIA의 지속적인 직업 발전 지침은 지
속적인 직업 발전 정책, 그 조건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있는
UIA 회원들과 건축 등록 관할지역에 일련의 기준을 제공하고,
여기에 따라 다른 UIA 회원 지역과 건축 등록 관할 지역의 프로
그램에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지속적인 직업 발전
의 명성을 보장하게 된다. UIA의 지속적인 직업 발전 지침은 유
동성과 교환 가능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를 높인다. 만약, 직업 사회의 회원증을 계속 갱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직업 발전이라는 강제적인 형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요즘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직업 발전의 교환 가능성
은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하
여, 지속적인 직업 발전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직업 발전의 기록
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확실히, 건축가의 지속적인
직업 발전이란 대중의 요구이다. 직업적인 발전 지침을 계속 내
놓고 있는 UIA의 참립 목표 중 하나는 UIA 회원 지역간에 지속
적인 직업 발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도록 틀을 짜는 것이다.

UIA 회원 지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직업 발전
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직업 발전의 서비스와 과정을 확인하고, 심사하고, 평
가하도록 권고된 절차 지속적인 직업 발전에 등록된 공급자 프
로그램과 독학 프로그램을 동시에 커버하도록 권고된 프로그램
- 지속적인 직업 발전 프로그램의 구상과 배급에 연구와 요구
사항을 집어넣기 위해 권고된 기준
- 학습을 강조하기 위해 권장되는 과정은 공급자와 참가자간의
상호 작용을 높여주는 학습 활동의 동기를 포함해서 학습자
와 그가 얻는 지식에 따르는 것으로서, 즉, 상호 작용하는 프
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 나타나는 실제 학습을 판단하는 도구
로서, 공급자와 참가자가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를
학습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촉매로서 추천된 프로그램의 질
적 수준과 기준,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길이(앉아있는 시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질에도 바탕을 두고 이익
을 얻어내야 한다.
- 공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활동의 효율성을 모
티터 하도록 평가 기준이 되는 권고 과정에 따라, 공급자나
이용자에게 모두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 보관 시스템은 등록
된 공급자와 믿을 만한 바탕에 의해 건축가가 널리,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업 발전에 도움을 주며, 그 바탕은
등록이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업 발전을
요구하는 등록기관과 직업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다.
- 매년 늘게 되는 학습 단원의 권할 만한 요구 사항
- 공공의 건강, 안전, 부를 보호하는데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지
속적인 직업 발전의 이득에 대해 권장할 만한 최소한의 요구.

UIA의 지속적인 직업 발전 시스템은 이에 참
여하는 UIA 회원들과 최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식, 기술, 연
구 결과로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
준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발행한 기술 의
뢰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자료제공: 건축3단체 국제교류협의회〉

장례시설에 대한 건축적 제안

Architectural Proposal of Funeral Facilities

전병직 / (주)코아건축사사무소
by Jeon Byeong-Jig

머리말

생물체인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다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의 죽음은 당사자의 생명이 소멸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집단의 의식(儀式), 즉 상례(喪禮)를 통해 넘을 기리는 것이 특징이다.

상례(喪禮)는 돌아가시는 이를 위하는 절차로써 가장 정중하게 치루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에 생사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차림이 될 수밖에 없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장례 절차가 가정의례 긴소화에 의해 간략화되면서 장례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 국민 3명 중 2명은 사후 화장(火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화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¹⁾ 2천만가의 분묘면적이 전국토의 1%에 이르고 매년 여의도의 3배에 가까운 면적이 묘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묘문화²⁾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묘지 사용권도 6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내년부터 공동묘지에 묻히는 사신은 60년이 지나면 강제로 화장과 납골당에 안치된다. 이에 따른 문제와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회장을 장려해야 한다는 견해와 효를 중시하는 전통에절이 우선이라는 양측 주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례에 대한 절차 및 종교적 의식

상례(喪禮)가 망자(亡者)와 생자(生者)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전과정에 수반되는 절차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면 장례(葬禮)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만을 뜻한다. 이 과정은 그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 시신을 땅위에 버리는 풍장(風葬), 땅속에 묻거나 돌 등으로 덮는 매장(埋葬),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 물속에 버리는 수장(水葬)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시신처리 방법은 매장과 화장인데 각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매장은 선사시대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주자가례'에 따라 시신의 엄(殮)을 한 뒤 관을 넣고 매장하는 유교식 장례가 확립된 이래 지금까지도 장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화장은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4~5세기부터 도입됐으며 현재의 화장법은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일본식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됐고,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44개소로 모두 공설로 운영되고 있다³⁾.

현대식 가정의례 절차에 따른 상례 절차⁴⁾는 임종(臨終) - 수시(收屍) - 발상(發喪) - 부고(訃告) - 염습(殮襲) - 입

1) 동아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98년 10월 전국의 성인 남녀 1천10명을 상대로 화장문화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후에 회장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66.2%로 나타났다. '98.12.22, 사회면

2) 동아일보, 서울시 장묘사업소에 의하면 여의도면적(7.5km²)의 3배가 넘는 땅이 매년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다. '98.8.31, 사회면

3) 동아일보,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44개소로 모두 공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화장능력은 '99년 4천구이치한 회장을 기피하는 탓에 가동률은 40%선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화장률은 97%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5만 7천건(전체 장례건수 24만7천건)으로 22.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8.12.22, 사회면

4) www.kdnet@chosun.com

관(入棺) - 성복(成服) - 발인(發靚)(영결식) - 운구(運柩) - 하관(下官) - 성문(成墳) - 위령제(慰靈祭) - 삼우(三虞) - 탈상(脫喪)으로 이루어진다.

각 종교식 절차에 의한 상례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독교식: 추도식 - 추모예배 - 차례예배
- 천주교식: 종부성사 - 운명 - 초상 - 연미사 - 장례식 → 장례후 3일, 7일, 30일에 또 소상과 대상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 불교식: 개식선언 - 삼귀의례 - 약력보고 - 착어 - 창흔 - 현화 - 독경 - 추도사 - 분향 - 사홍서원 - 폐식

장례식장의 계획

1) 장례식장의 내용

예전에 장례식이 가정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핵가족화되어 가면서 장례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로 장소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한국적 풍습에 모든 사람들이 망자에 대한 예의를 표해야 하나 장례식장이 시내로 들어올 경우 인지성이나 교통은 좋으나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 설치가 불가능하고, 교외에 입지할 경우 설치는 가능하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도심지에 위치한 장례식장 대부분이 종합병원의 영안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례식장에는 장례절차에 필요한 조문객 조문장소 제공, 식사편의 제공, 사진, 비디오, 조화, 수의 등 장례용품 구매 지원 등의 서비스 등이 수반되어 제공되고 있다.

2) 장례식장의 기능

장례식장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 ① 사무관리기능: 장례식의 예약 및 접수,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 대행, 묘지 및 화장장과의 연계, 물품구매 등 유지관리기능
- ② 사체 처리 보관 기능: 사체의 보관, 부검, 염습(殮襲)처리 기능
- ③ 예식행사기능: 빈소를 포함한 영결식장을 제공, 장례식을 거행하는 기능
- ④ 서비스(Service)기능: 상주(喪主), 복인(服人), 문상객들에게 식사, 휴게를 제공하는 기능

화장장의 계획

1) 화장장 시설 내용

화장장의 주기능이 시체를 화장하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족, 친인척들을 위해 시설물을 배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장장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친 상태에서 화장을 하게 되는 유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화장, 수골(收骨) 또는 분골(粉骨), 부대적인 매장, 식당, 휴게실, 사무실, 중앙제어실 등이 계획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려하지 않고 엄숙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가지면 좋다.

2) 화장장의 기능분석

① 화장장 요구기능

- 환경성: 매연, 분진제거를 위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 편리성: 이용에 불편이 없고 편리한 시설
- 쾌적성: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 조형성: 혐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외관

② 기능별 주요실 내용

- 사무/관리기능: 관리사무실, 기계실
- 화장기: 고별실, 유족관망실, 시체화장실, 유족소각실, 분골실, 수골실
- 납골기능: 납골실
- 서비스기능: 대기실, 휴식실, 식당

③ 단위공간의 기능분석

㉠ 분향실

고별실에서는 각 종교에 따라 제단이나 준비물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종교별로 분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의 크기는 수행한 모든 주문객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와 제단을 설치하고 사체를 실은 Stretcher가 통행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 대기실

화장이 종료될 때까지 친지나 조문객들이 대기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차나 과자, 음료수 등이 딸린 매점이 있으면 좋겠고 식당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별도로 마련하거나, 완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망실

개별실로 구분 설치하여 전면의 화장로를 직접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된 칸막이의 크기는 4인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하고 특별한 설비나 장식을 요하지 않으며 화장로측 전면에는 작은 대를 마련하여 영정과 촛대, 향로를 설치하면 된다.

④ 주요 시설을 계획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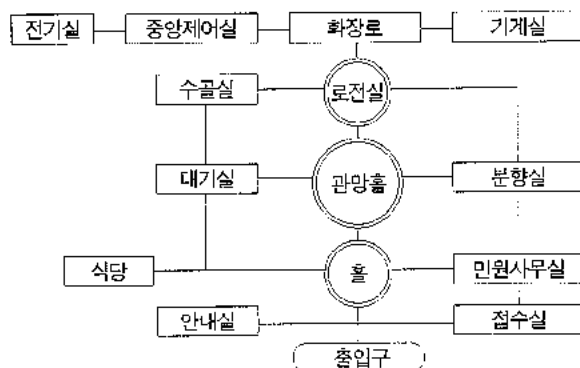
- 화장동: 화장의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계획
- 관리동: 화장동과 연결해서 진입로에서 인자가 잘되는 곳에 배치
- 주차장: 영구차 동선의 원활한 흐름과 주차의 편의
- 유품소각로: 화장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
- 옥외분향소: 최대인원에 대비한 계획 마련
- 쓰레기소각장: 화장동 건물과 이격시켜서 소각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

⑤ 주요 실별 계획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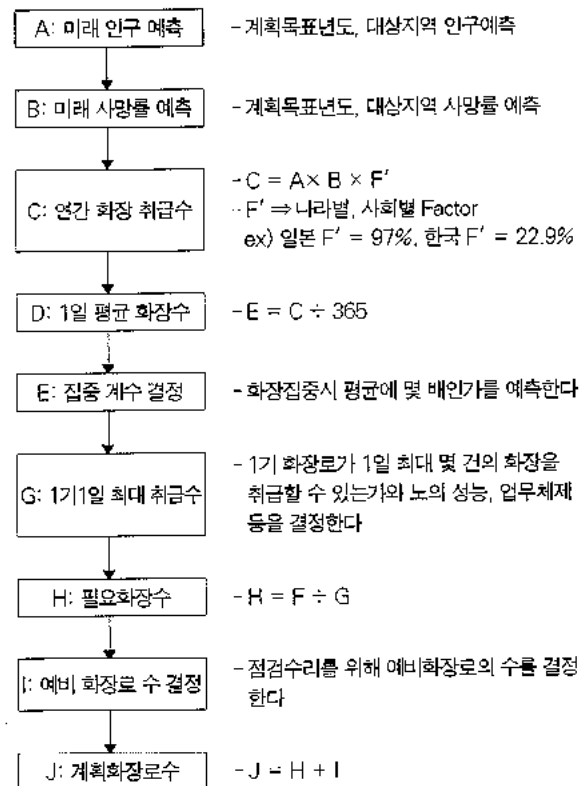
- 홀: 시신이 들어오는 공간으로서 엄숙함을 위한 공간, 관람홀과 분향실과 연계
- 분향실: 유족과 문상객의 동선을 고려
- 관람실: 전체 유족과 문상객의 최대인원을 대비한 동선과 면적 계획
- 로전실: 대차의 원활한 동선을 위한 통로 폭을 6m 이상 확보
- 수골실: 엄숙한 수골의식을 위한 수골전실의 공간 연출이 필요
- 대기실: 홀, 관람실과 분리시키고, 밝은 공간의 느낌으로 편안한 대기공간 분위기 연출
- 식당: 화장동 건물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선 큰 등을 통한 자연채광 도입

3) 화장장시설 건축계획

① 화장장의 기능관계도



② 미래인구를 통한 화장 취급수 예측



③ 건축면적산출⁵⁾

• 시가지에 위치한 화장장의 규모

대상인구(만명)	6~10	10~20	20~30	30~40	40~50
계획로수(기(基))	4	6	8	10	12
건축면적(m ²)	2,000	3,000	3,800	4,500	5,500
구내도로(m ²)	2,000	2,500	3,000	3,500	4,000
주차대수(대)	60	70	80	90	100
주차장(m ²)	2,400	2,800	3,200	3,600	4,000
조경면적(m ²)	600	900	1,200	1,500	1,800

• 교외(郊外)에 위치한 화장장의 규모

대상인구(만명)	6~10	10~20	20~30	30~40	40~50
계획로수(기(基))	4	6	8	10	12
건축면적(m ²)	2,200	3,400	4,500	5,400	6,500
구내도로(m ²)	3,500	4,000	4,500	5,000	5,500
주차대수(대)	70	80	90	100	110
주차장(m ²)	2,100	3,200	3,600	4,000	4,400
조경면적(m ²)	1,200	1,800	2,400	3,000	3,600

5) 建築設計資料46 葬祭場・納骨堂,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1994, pp.24~25
 일본의 경우 화장률이 97%이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22.9%임

④ 실별 면적산출⁶⁾ (화장장시설 각실 계획면적)

대상화장로수 (기)	4	6	8	10	12	평균기수 (10대기준)
Entrance Hall(m ²)	80	120	160	200	240	200±5%
고별실(m ²)	120	140	180	210	240	210±5%
로전실(m ²)	100	140	200	260	360	260±5%
전송홀(m ²)	-	60	100	120	140	120±5%
수골실(m ²)	120	140	180	210	240	210±5%
영안실(m ²)	15	20	25	30	30	30±5%
노(爐)실(m ²)	150	200	250	300	350	300±5%
작업원실(m ²)	30	40	50	60	80	60±5%
제어실(m ²)	20	30	40	45	50	45±5%
기계실(m ²)	120	200	250	300	350	300±5%
전기실(m ²)	40	50	60	70	80	70±5%
창고(m ²)	30	40	50	60	70	60±5%
복도, 계단(m ²)	40	60	75	90	110	90±5%
합계(m ²)	865	1,240	1,620	1,955	2,340	1,955±5%

* 建築設計資料46 葬祭場・納骨堂,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1994

* 일본에는 고별실이 있으며 한국에는 같은 개념의 분향소가 있다(한국의 분향소: 60±10m²,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실정리가 필요함)

* 화장실, 주차관리실, 성직자대기실, 오수정화시설 등의 면적은 1기당 50±5m²가 더 필요함

⑤ 국내건축학론에 의한 규모산정(화장로 15기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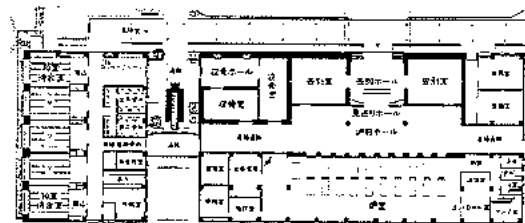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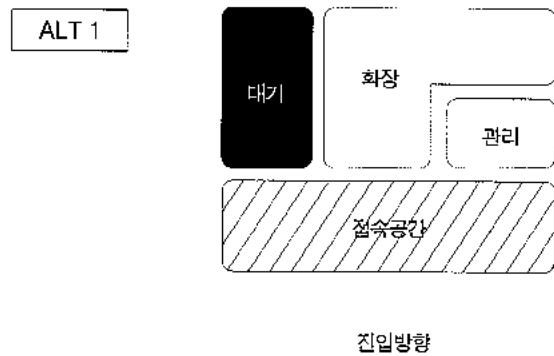
	1구당 평균인원	총 적체 인원	1인당 소요면적 (각론에 의함)	요구 면적	비고
홀	25명	150명 (25명×6구)	1.5m ²	225m ²	
대기실	12명	180명 (12명×15구)	1.5m ²	270m ²	
관망홀	13명	195명 (13명×15구)	1.5m ²	305m ²	
수골실	12명	36명 (12명×3구)	2.0m ²	72m ²	
식당	10명	150명 (5명×15구)	1.5m ²	225m ²	
총계		706명		1,097m ²	

* 1구당 인원은 국내 화장장 현황조사에 의한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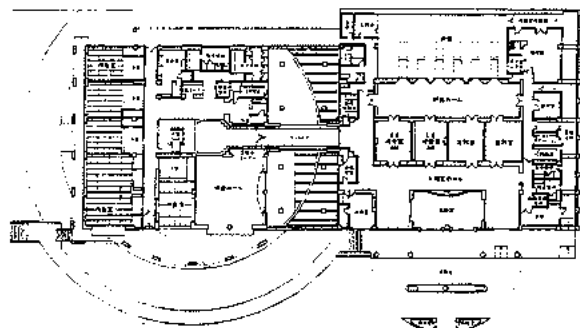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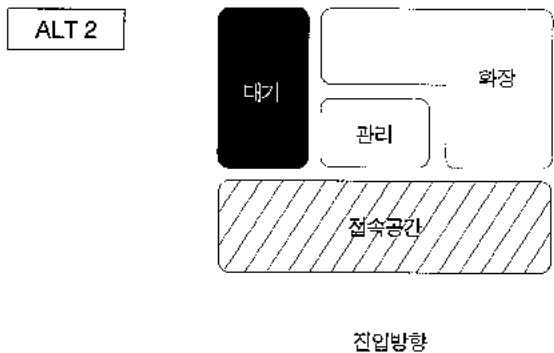
* 화장로 15기까지 운영시 동시 정체를 감안한 인원산정임

4)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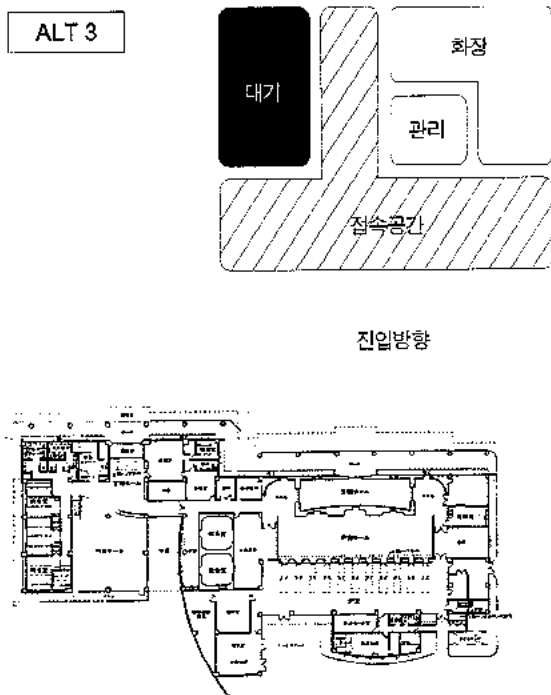
① 건축계획 기능 및 배치



〈사례〉 일본 高知市葬場



〈사례〉 일본 函館市葬場



〈사례〉 일본 神戸市立西神祭場

5) 국내 화장장시설 사례

① 서울시립장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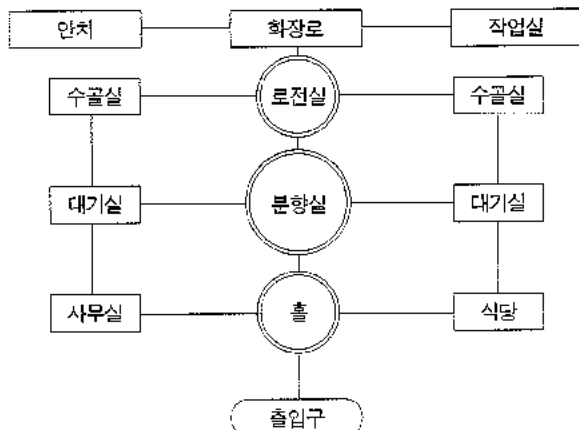
③ 설계개요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 178-1
- 연면적: 4,176 m²
-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설 비: 집진기, 자연소로 및 무공해 화장시설

⑤ 시설내용

- 화장동: 화장로(16기), 분골실, 수골실, 분향실, 관망실, 대기실
-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 사무실 등

⑥ 공간기능 체계도



② 부산영락원

④ 설계개요

- 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산83-14
- 연면적: 6,770m²
- 규 모: 지하1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설 비: 컴퓨터 자동화 제어

⑤ 시설내용

- 화장동: 화장로(15기), 분향실(3기), 수골실(3기), 유족대기실
- 부대시설: 대기실, 대기홀, 식당, 매점, 회의실, 사무실, 납골당

⑥ 특징

- 분향 후 시신과 유족이 분리됨.
- 화장로의 자동화 도입으로 동선이 단순함.
-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과의 유기적 관계가 좋음.
- 관망홀이 없다.

맺음말

매년 약 20만기의 묘지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여의도 크기 3배에 달하는 땅이 묘터가 된다는 통계는 우리의 앞날에 큰 고민을 던진다. 이에 정부당국도 화장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 납골당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으며 시설납골당 설치장소를 사찰 등으로 제한해온 규정도 없앴다고 한다.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화장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장시설에 대한 건축적인 시설기준 및 계획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화장장, 납골당 등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장묘시설의 명칭을 외국의 경우처럼 '공원'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장묘시설의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해 돌아가신 조상에게 분향과 헌화를 하고 영정은 물론 목소리까지 보고들을 수 있는 '사이버(가상) 납골당'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에 참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화장납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화장 장려와 효를 중시하는 전통예절의 계승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녹색에너지설계』로부터

Energy Saving of Buildings the Green Energy Design

이실근 / 에너지관리공단 GEF팀장

by Lee Sil-Keun

배경

녹색에너지가족(GEF: Green Energy Family)운동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자발적인 범국민 참여운동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95년 9월 발족하였다.

GEF운동은 GEF운동본부와 기업이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장이나 건물 등을 고효율기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참여와 활력을 유도하기 위한 파트너십 개념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GEF운동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녹색조명운동은 5개년('96~2000) 계획으로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분야 전력소비량의 약 20% 감축 목표로 현재 377개 기업 1,180개 사업장이 참여 7만여 KW에 이르는 전기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GEF운동의 두번째 프로그램인 녹색모터운동은 국내 전력소비량의 6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터 부문 전력소비량의 약 5.5% 감축을 목표로 10개년('98~2007)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신축 건물부분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 및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신기술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GEF운동 TASK-III(녹색에너지설계)는 우리나라 전체 건물 전력사용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신축 건물부분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통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로 점차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5개년('98~2002)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연평균 신축건물 건설규모는 상업건물이 2,800만㎡(약38,000동)와 주택 60만호로서 이를 설계 시부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및 신기술로 선택하도록 추진하여 총 2,413GWh의 전력량 감축을 5개년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환경오염배출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를 약 118만톤, 황산화물(SO_x)을 5,019톤, 질산화물(NO_x)을 4,076톤 감축시키는 환경개선효과가 있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필요성

건축물의 특성상 준공과 동시에 시작되는 유지보수 및 일반관리비용은 건설비보다 몇배나 더 들어간다. 이에 건축물의 계획, 설계단계에서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는 전체적인 건축시스템에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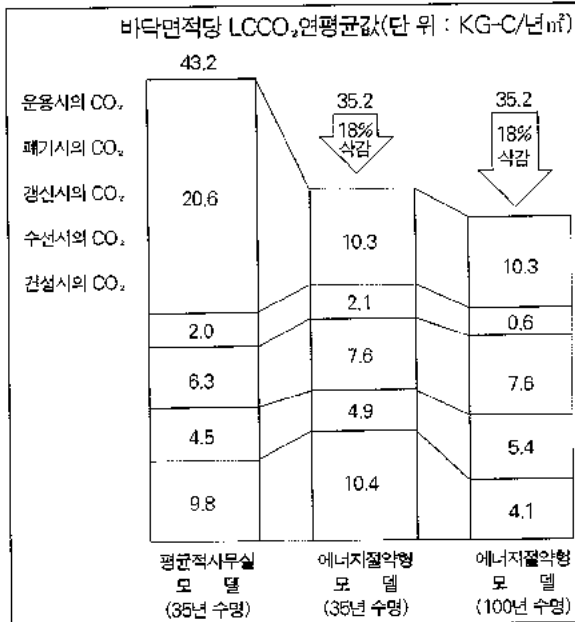
〈표 1〉 중간규모 사무실 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비교 예

생애총비용(LCC) 100%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기획·설계비	0.7	운용비	30.8
건설비	16.3	기타 운용관리비	3.9
유지비	32.1	폐기처분비	0.5
수선비·개선비	15.7		

(자료: 日本 건축보전센터 :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코스트(LCC) 1993년)

또한 건축물의 건설, 운용, 개수 및 폐기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자원은 이산화탄소(CO₂)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표 2〉 사무용 빌딩의 라이프사이클 CO₂(LCCO₂) 발생



(자료: 『BEC』 NO 77 (재)주택·건축 에너지 절약기구)

녹색에너지설계운동 참여 대상

첫째, 설계사무소 대상 프로그램이다.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건축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에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계인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반영토록 추진하여 건축물을 최초 건설할 때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설하여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설계계획 수립 시에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반영하려는 설계사무소와 GEF운동본부간에 실천 약정체결방식으로 추진하는 파트너십 (Partnership) 프로그램이다.

둘째, 기술사회 회원 대상 프로그램이다.

이는 건축설비부문의 기술사회원들을 대상으로 『녹색에너지설계기준』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설계시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우수회원 표창등을 시행하여 GEF 운동 TASK-III (녹색에너지설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건설 및 설비회사 대상 프로그램이다.

이는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분양공고나 기업 이미지광고시 GEF운동 심벌을 사용한 매스컴 홍보를 통해 기업의 실천적 환경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고 GEF참여 민간단체들의 녹색소비자활동 등을 통하여 녹색에너지설계에 대한 홍보 확산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녹색에너지설계기준

〈표 1〉 건축전기설비부분 에너지절감등급(A:최상급, B:우수, C:일반적)

분류	녹색에너지설계항목	등급	입무 발당	공동 주택	적용 대상 일반 주택	상업 시설	병원 시설	숙박 시설
조명제어로 에너지감소	1) 개별스위치 설치	C	○	○	○	○	○	○
	2) 옥외등 자동점멸장치	B	○	○	○	○	○	○
	3) 인체감지형 조명점멸장치	B	○	○	○	○	○	○
	4) 청색조명의 일광제어	B	●	○	○	○	○	○
	5) 조명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A	●	○	○	○	○	○
광원·조명 기구의 효율화	6) 전구식 형광등기구 사용	A	○	○	○	○	○	○
	7) 26mm32W형광램프 및 고효율안정기 사용	A	○	○	○	○	○	○
	8) LED램프 사용	A	○	○	○	○	○	○
	9) 고조도 반사경 채택	B	○	○	○	○	○	○
	10) 공조형 조명기구 사용	A	●	○	○	○	○	○
	11) 태양광 가로등 설비	C	○	○	○	○	○	○
	12) 유도등 소등제어(3선식배선)	A	○	○	○	○	○	○
	13) 고효율 변압기 사용	A	○	○	○	○	○	○
	14) 변압기 탭수제어 기능구성	B	●	○	○	○	○	○
	15) 직강압 방식 변전시스템 (One-step)	C	○	○	○	○	○	○
전원설비의 에너지절약	16) 역률자동제어 설비	A	●	○	○	○	○	○
	17) 최대수요전력제어(Demand control)	A	●	○	○	○	○	○
	18) 적합한 기동방식 채택	B	○	○	○	○	○	○
	19) 역률개선용 전상콘덴서 설치	B	○	○	○	○	○	○
	20) 발전소의 부하중심점 위치 설치	B	○	○	○	○	○	○
	21) 인버터(VVVF) 승강기 제어	A	○	○	○	○	○	○
에너지절감 제어설비	22) 인버터(VVVF) 공조설비 제어	A	○	○	○	○	○	○
	23) FCU제어회로 구성	B	○	○	○	○	○	○
	24) 수변전설비 중앙집중 제어설비	B	○	○	○	○	○	○
	25) 건물자동제어설비 구성(BAS)	A	○	○	○	○	○	○
	26) 건물자동제어설비 구성(BAS)	A	○	○	○	○	○	○

〈표 2〉 건축전기설비부분 에너지절감등급(A:최상급, B:우수, C:일반적)

분류	녹색에너지설계항목	등급	입무 발당	공동 주택	적용 대상 일반 주택	상업 시설	병원 시설	숙박 시설
에너지절감 설비시스템	1) 방축열 냉방방식	A	○	○	○	○	○	○
	2) 냉·온수 축열방식	B	○	○	○	○	○	○
	3) 가스직화 냉방방식	A	○	○	○	○	○	○
	4) 태양열 급탕방식	B	○	○	○	○	○	○
	5) 외기 냉방방식(엔탈피제어)	B	○	○	○	○	○	○
	6) 풍속도설비 도입	B	○	○	○	○	○	○
	7) 중앙관제식 자동제어 설비	A	○	○	○	○	○	○
기계설비의 효율향상	8) 고효율 모터 사용	A	○	○	○	○	○	○
	9) 열효율 높은 보일러 설치	B	○	○	○	○	○	○
	10) 고효율 냉동기 설치	B	○	○	○	○	○	○
	11) 부분부하에 대비한 보일러 대수 분할	B	○	○	○	○	○	○
	12) 부분부하에 대비한 냉동기 대수 분할	B	○	○	○	○	○	○
	13) 냉동기 냉수온도 상황 공급	B	○	○	○	○	○	○
	14) 변압장(VAV/VVVF) 공조방식	A	○	○	○	○	○	○
냉송동력의 에너지절약	15) 변유량(VVW/VVVF) 펌 프시스템	A	○	○	○	○	○	○
	16) 고효율 송풍기 설치	A	○	○	○	○	○	○
	17) 고효율 펌프 채택 및 대수분할	B	○	○	○	○	○	○
	18) 저충부의 작수사용 시스템	C	○	○	○	○	○	○
	19) 배관, 덕트의 공극부 최소화	C	○	○	○	○	○	○
	20) 최소 외기유입 조절	B	○	○	○	○	○	○
	21) 배관 및 덕트의 단열 강화	C	○	○	○	○	○	○
냉·난방 부하감소	22) 무누출 밸브(에어타이트 형) 채택	B	○	○	○	○	○	○
	23) 폐열 회수 시스템	A	○	○	○	○	○	○
기 타	24) 자연환기의 적극 이용	B	○	○	○	○	○	○
	25) 질수형 위생기구 채택	A	○	○	○	○	○	○
	26) 펌프 축열장치 역류미커니 컬 시설 사용	C	○	○	○	○	○	○
	27) 냉각용수 처리설비 채택	B	○	○	○	○	○	○
	28) 온산형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C	○	○	○	○	○	○
	29) T.A.B 실시	A	○	○	○	○	○	○
	23) 폐열 회수 시스템	A	○	○	○	○	○	○
	24) 자연환기의 적극 이용	B	○	○	○	○	○	○
	25) 질수형 위생기구 채택	A	○	○	○	○	○	○

입무발당, 병원·숙박시설(○: 10,000㎡미만, ●: 10,000㎡이상)

상업시설(○: 6,000㎡미만, ●: 6,000㎡이상)

공동주택(○: 중 저층(10층이하), ●: 고층(11층이상))

에너지절약시스템설계인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은 조명제어설비 및 광원·조명기구의 고효율화설비, 전원설비 및 에너지절감 제어설비 등의 건축전기설비부문과 고효율 기계설비 및 반송동력 에너지절약설비, 냉난방부하 감소설비 등의 건축기계설비부문으로 되어 있다.

약정 참여 방법

1) 녹색에너지설계 참여신청

GEF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설계사무소는 신축 건물에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참여신청서를 GEF 사무국(에너지관리공단 내 GEF팀)에 제출하면 된다.

GEF 설계사무소의 참여 신청기준은 참여 신청 후 1년간은 총 설계 물량의 60%이상, 2년간은 80%이상, 3년간은 90%이상 설계에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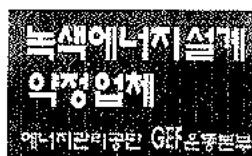
2) 녹색에너지설계 약정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설계사무소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반영한 건축물의 약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약정신청서의 내용은 녹색에너지설계 실무지원단의 심의 및 GEF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후 녹색에너지설계 약정대상 건축물이 될 수 있다.

3) 녹색에너지설계 제1차 약정식 10개 업체 참여

작년 12월23일 녹색에너지설계 부문의 첫 번째 약정식을 가졌다. GEF운동본부와 설계사무소간의 실천 약정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계인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설계 시에 우선 순위로 반영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한 1차 약정업체는 건축전기설비부문 5업체와 건축기계설비부문 5업체이며 이번에 참여한 설계사무소에는 약정 업체임을 홍보하는 현판과 에너지절약형 설계도면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탬프를 사법적으로 제작 보급하였다.



참여 혜택

『녹색에너지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된 도면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각각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에 대하여 자금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건축주가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약정참여 설계사무소에는 GEF운동 심벌사

용권을 부여하며 이 심벌을 자사의 이미지광고나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사용하여 실천적 환경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녹색에너지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은 분양광고나 각종 홍보에 GEF운동 심벌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에너지절약형 건물이라는 홍보가 가능하다.

약정참여 설계사무소 홍보는 GEF운동본부에서 28개의 민간단체에 뉴스레터를 통하여 참여 설계사무소 명단을 전달하고 단체의 소식지 등 홍보자료에 수록하며 『녹색에너지설계기준』에 대한 교육, 캠페인 등의 녹색소비자(Green Consumer)활동을 실시하여 약정참여 설계사무소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 설계사무소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 녹색에너지설계 지급지원 (에너지융합리화를 위한 금융 지원)

구분	지 원 비 율	이자율	대출기간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태기에너지화수설비 (산업, 건물 공통)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5.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동일사업자당 : 30억원이내
고효율 유체가기 및 제어장치 등 (산업, 건물 공통)	소요자금의 90%이내			동일사업자당 : 10억원이내
건물에너지절약설비				동일사업자당 : 10억원이내
정력수요관리설비 (산업, 건물 공통)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동일사업자당 : 30억원이내 (건물은 10억원이내)
전기대체냉방시설	소요자금의 90%이내			동일사업자당 (동일시스템 적용 건물) : 10억원이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비				동일사업자당 : 30억원이내
주택단열개수산업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7.5%		1주택당 1,000만원이내
산업체·건물열병합 발전시설	소요자금의 90%이내	연리 5.5%		동일사업자당 : 30억원이내 (산업체열병합발전투자는 50억원이내)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소요자금의 100%이내			지역에너지개발사업자당 : 50억원이내

녹색에너지설계 大賞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제품소비를 권장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이용 극대화에 기여한 녹색에너지설계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금년에 제1회 녹색에너지설계 大賞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일은 어떤 경우든 절제가 필요하고 상당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근본적인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원가절감과 국제수지를 개선하게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가가 되겠다는 아들을 위해

For Those Would Be Architects

김인환 / TAS 건축사사무소

by Kim In-Hwan

필자에게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아들이 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대통령이나 경찰관, 군인이 되겠다고 하던 녀석이 중학교 때부터인가 갑자기 건축을 공부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어릴적 장래희망들처럼 그저 깊은 생각없이 말하는 것이라니 생각했는데 언젠가 가족끼리 동해안으로 여행갔을 때 녀석이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일을 따라 하겠다는 녀석이 대견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필자가 하는 일의 무엇이 좋아보여서 그랬는지, 혹은 아버지로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어 책임감마저 느끼게 했다.

그러던 녀석이 금년 대학입사에서 드디어 건축과에 합격했다.

복잡한 입시절차에 따라 몇 개 대학의 건축과에 원서도 제출했지만 최종 발표날까지 마음 풀이면서도 오직 건축과만을 고집스럽게 지원한 결과였다. 비록 애당초 기대했던 대학이 아니어서 아쉬긴 했지만 녀석의 점수로 그 대학 건축과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만족하였고 남들에게도 건축과라는 것을 강조할 만큼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사실 건축과가 다른 유사학과들 보다 20~30점 가량 커트라인이 높았기에...).

이제 건축가가 되기 위한 일차 관문인 대학입시를 통과한 아들에게는 내가 겪었던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필자처럼 특별한 생각도,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건축을 할 일이 아니라 "뚜렷한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건축을 공부시키고 싶다.

먼저 건축은 공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 사회, 과학 등이 종합된 분야이고, 흔히들 건축을 설계와 시공에 국한해 생각하지만 최근 관련 컴퓨터분야만 해도 매우 다양해서 건축환경 등 많은 분야로 보다 세분화, 전문화 돼가는 추세이므로 자신의 적성과 그 분야의 장래성 등을 고려해 진로를 설정해주고 싶다.

또한 건축은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종합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양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음악, 연극, 영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

해 마음의 양식과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하고 싶다.

훌륭한 음악가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나고 실수없는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가 아니고 얼마나 심오하며 내면적인 음악적 표현을 자신의 감정에 맞게 연주를 하느냐에 달려 있듯이 건축가도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종합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여러 곳의 여행을 권하고 싶다. 여행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상상력과 꿈을 갖게도 하며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도 해준다. 복잡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으로 보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웅장함도 그렇거니와 다양한 건축물들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지 않는가. 아마도 여행에서 느끼고 배운 인간적인 삶의 현장과 야국적인 정취 등은 교실에서 배우는 그 어떠한 훌륭한 강의보다 내면적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음악가나 예술가들 또한 여행을 통해 그들의 예술성을 높이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건축가 르 꼬르뷔제도 청년시절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큰 감명을 받아 건축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여행은 건축가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땅에서 건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쉬움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건축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고 이러한 토양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다.

한 학과에서 설계교육과 공학관련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는 문제(건축과와 건축공학과는 분리돼야 한다), 실무교육의 부족, 짧은 수업연한 등 현재의 건축교육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건축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오랜 건축실무경험에서 느낀 것은 학교교육과 실무현장간의 현격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아들도 이러한 체제의 건축교육을 받아야 할 것

이고 그 틀 안에서 공부하게 될텐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이러한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충시켜 주어서 진정한 건축가의 길을 걷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스케치는 건축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작업과정에서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학교교육은 형식적이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며 사실 실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수준 또한 현저하게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건축과 관련된 컴퓨터분야는 어떠한가.

모든 설계사무소에서 제도판과 T자가 사라지고 CAD로 도면작업을 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각종 현상설계나 프리젠테이션 도면 등에 있어 그래픽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엔 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단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아마도 이들 세대가 건축활동을 할 때쯤이면 이 모든 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지 모를 일이 아닌가!

이밖에도 아무리 학교교육이 건축적인 소양을 배양하는 단계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고 더욱이 건축은 실제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외국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의 현장실습이 필수화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경험을 쌓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필자의 여러 건축경험이 실제로 아들의 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자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뒷받침을 다해 녀석의 앞날에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특히 녀석이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훗날 정말 아들이 건축가가 되어 이 아버지의 건축행적을 보고 무어라 말할까 솔직히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필자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건축가로서의 첫 관문을 통과하고 건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아들이 거쳐가야 할 과정들을 상상해보면 또 솔직히 이 분야의 장·단점과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자신의 적성과 꿈에 따라 선택한 건축가로의 앞날이 형통하기를 이길 앞서 걸 어온 아버지로서 빌어본다.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4)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불레(Boullée): 혁명적 고전주의자

불레(Boullée)가 저술한 건축: 예술에 관한 수상(Architecture: Essai Sur L'art)은 담백한 필체와 논리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책에 나타난 불레(Boullée)의 사상은 건축과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에 관련되어 있어서 자연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끌로드 페로(Claude Perrault) 및 프랑스와 블롱델(François Blondel) 등의 사상가들과의 의견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건축은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창작인가 아니면 자연으로부터 그 근본 법칙을 유도하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건축을 단순 기술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하여 불레(Boullée)는 예술로서의 건축과 석공기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론서들이 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은혜로운 예술(L'art Bienfaiteur)'인 건축을 열

* 본명 김원식

정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는 건축이란 창조적 영감에 의하여 탄생하는 것인 반면 석공일은 '하나의 기계적 예술(Un Art Mécanique)'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건축은 예술을 숭고함으로 이끄는 것이며 건축을 강의하는 교수는 엄격하며 오지부동인 것 이외의 사실들을 가르쳐야 한다. 건축을 교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생각에 따라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전통에 관한 한 볼레(Boullée)는 고전주의의 주범(柱範)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동시대의 타건축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고대의 대가들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마저 무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은 과거로부터 진화한 대상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려한다면 아무도 그를 과거에 철저히 집착하는 건축가로 연결지을 수는 없으리라. 이처럼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였던 예로서 그는 루이(Louis) 14세 시대의 두 대가로 숭앙받던 페로(Perrault)와 블롱델(Blondel)이 각기 고대의 건축언어체계를 사용하고 있음과 논리의 박약성으로써 진정한 건축의 본질과 문제거리를 다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구성하는 원칙에 관해 아무런 견해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감히 비난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루브르(Louvre)의 열주랑을 설계한 페로(Perrault)와 Saint-Denis의 문을 설계한 프랑스와 블롱델(François Blondel) 사이에 일어났던 유명한 논쟁을 알고 있다. 전자는 건축이 자연에 기인하는 것을 부인하며 그것을 공상의 예술, 순수한 창조의 예술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 페로(Perrault)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블롱델(François Blondel)은 너무도 박약한 논증을 채용함으로써 풀어야 할 문제거리들을 남겨두었다. 내가 그 논쟁을 새로이 다루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게 응답한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히려 반대로 확신있는 사람들은 페로(Perrault)의 주장을 신봉하게 되었음을 일벌하게 되었다.'¹⁾

볼레(Boullée)는 그리스의 사원들이 각자 고유한 특성(Caractère)을 가지지 못하고 모두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²⁾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에 관해서는 그 형태는 훌륭하나 졸렬한 감식안 때문에 추가된 장식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불평한다.³⁾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볼레(Boullée)의 개선문은 과거의 개선문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마도 이것은 블롱델(Blondel)의 Saint-Denis 문이나 샬그랭(Chalgrin)의 파리(Paris)의 개선문보다 더 아름답게 바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그의 미학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그가 때때로 대칭과 같은 디자인 요소의 장점을 찬양함을 감안

하면 가능한 일이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볼레(Boullée)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대칭은 바로 인체로부터 전해오는 자연의 대칭이다. 볼레(Boullée)는 대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칭은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고 위대한 인물(Montesquieu)이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증성,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오브제를 정신으로 하여금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한눈에 포착하게 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볼레(Boullée)는 언급된 바와 같이 수학적 법칙의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의 오브제로서의 건축물에서 최고의 미, 즉 명증성이 보장된 합리적, 형이상학적인 미와 철학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를 향한 관심의 결과물로서 당시의 주된 흐름을 구성하고 있던 절충주의는 볼레(Boullée)의 책 'Architecture'에선 간간히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볼레(Boullée)는 종종 그리스의 고전미학체계와 고딕의 합리적인 구조를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책에서 발견되곤 하여 일관된 이성의 건축을 향한 집념이 흐려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건축에 새로운 혁명적 사상을 불어넣으려는 볼레(Boullée)는 'Architecture'의 작은 단락에서 아주 간략한 소재목으로 그의 사상을 압축하였다. '동체(胴體)의 본질에 관하여, 그것들의 특성에 관하여, 그것들의 우리의 신체기관과의 유사성에 관하여' 'De L'essence des Corps. De Leurs Propriétés. De Leur Analogie Avec Notre Organisation'⁵⁾ 라는 소재목이 달린 부분에서 취급되는 내용은 바로 건축의 양태이다. 양태를 달리 말하면 외부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볼레(Boullée)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론가로서의 볼레(Boullée)는 형태에 있어서 가장 인간의 몸에 가장 가까운 것들은 규칙적인 모양의 형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구체(球體)로서 지고한 미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레(Boullée)는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형태적 위대성, 그 윤곽선의 우아

1) 'On connaît la fameuse discussion qui s'est élevée entre Perrault, l'auteur du péristyle du Louvre, et François Blondel, l'auteur de la porte Saint-Denis. Le premier niait que l'architecture tînt à la nature; il la dénommait un art fantastique et de pure invention. En essayant de réfuter cette opinion de Perrault, François Blondel a employé des arguments si faibles que la question est restée à résoudre. Quand il m'est arrivé de la renouveler, je n'ai trouvé personne qui m'ait répondu d'une manière satisfaisante. J'ai entretenu au contraire que des hommes instruits embrassaient l'opinion de Perrault.' ibid. p. 51, fol. 71.

2) Boullée는 그리스 건축이 훌륭한 질서를 지닌 건축으로 모범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이 건축에 적합한 특성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서술하며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Leurs temples ont une similitude frappante; ils ont tous, à peu près, la même forme. Ceux-ci sont trop courts, ceux-là sont trop hauts, mais ils ont tous, à peu près, la même forme. Ils ont tous, à peu près, la même forme.' ibid. p. 161, fol. 142.

3) ibid. p. 119, fol. 110-111.

4) 'La symétrie plaît', dit un grand homme(Montesquieu). 'perce qu'elle présente l'évidence et que l'âme, qui cherche sans cesse à concevoir, embrasse et saisit sans peine l'ensemble des objets qu'elle présente.' ibid. p. 64-65, fol. 79.

5) ibid. p. 62, fol. 77. 본문에서 편이상 건물과 동체로 번역한 corps는 Boullée의 문장에서 문맥에 따라 인체의 신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함, 그들로부터 빛나는 곳까지의 점진적 추이를 지니는 이상적인 물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구체에서만 기본형태를 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든 규칙적인 형태에서도 발견되는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연스럽게 관념적 기하학을 취급하는 건축이론가가 되었다:

‘불규칙한 동체(胴體)의 무표정하고 메마른 이미지에 지쳐 나는 규칙적인 동체를 조사(調査)하는 것으로 이행하였다... 무엇 때문에 규칙적인 동체의 형태는 첫눈에 파악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형태들이 단순하기 때문이고 그 표면이 규칙적이며 반복되기 때문이다.’⁶⁾

이렇게 자신의 관심이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향하게 된 배경설명의 일환으로 불레(Boullée)는 ‘Architecture’의 도입부에서 새로운 동체의 이론을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 불레(Boullée)는 자기의 임무가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감각에 형태가 미치는 예술적, 미학적, 심리적인 효과를 탐구함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암시하고 있다:

‘나는 동체의 이론을 연구하여야 했고, 그것들을 분석하여야 했으며, 그것들의 특성들과 우리들의 감각에 대한 그것들의 힘을 인지할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⁷⁾

불레(Boullée)는 특히 양계의 배치, 조명, 기념비적 차원, 그리고 건물의 특성에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 그의 이론을 많이 전개시켰고 양계를 결합하는 기술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은 전체의 효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부분적인 세부 효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이란 단지 양계에 의하여 야기된 최초의 인상에 첨가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Etienne - Louis Boullée는 신고전주의적 건축으로써 은유적, 표현적, 그리고 상징적으로 분류되는 3가지의 특성(Caractère: 건물의 고유한 특성, 성격 등 의미함)을 확립하였다. 은유적인 성격은 혁명적인 공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공간을 설화적(Narrative)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고 표현적 성격은 프랑스 혁명의 가치관들을 반영하거나 거꾸로 위배함으로 구현된다. 상징적 성격은 신전과 같이 생긴 공간들을 창조함으로써 얻어지는데 프랑스 혁명기간 동안 이 방식이 반복되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 고려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레(Boullée) 및 당대의 건축가들은 위대한 건축을 재현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볼륨과 비례체계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레(Boullée)가 설명하듯이 ‘거대하도록 보이게 하는 것은... 상질(上質)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당시에 쓰이고 있던 디자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파사드를 인간적 치수로 구성된 층을 여러 번 반복하여 구성하는 대신 황적인 방향의 구분을 거의 없애고 층고를 높이고 위압적인 느낌의 건물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 구성은 대부분 루브르(Louvre)의 동쪽 파사드(1667)로부터 고무되고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훗날 19세기의 보자르(Beaux-Arts) 디자인의 기념비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가인 Etienne - Louis Boullée와 Claude-Nicolas Ledoux는 블롱델(Blondel)의 가르침을 따라 단순하고 무장식이며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의 매스의 구성을 가지고 건축을 혁명시켰고 장려한 공간을 만드는데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후 장려한 공간의 연출은 단순히 매스만의 배합과 연출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축제의 즐거움과 야간의 신비성 등이 디자인 조건에 첨가되었다. 1930년대에 인공조명을 가지고 디자인하기 이전에 이미 계몽주의 건축가들은 인공조명으로써 파사드를 덮어씌울 계획을 하였던 것이다.

형태의 명증성 : 은유, 풍유

불레(Boullée)가 특성(Caractère)의 이론을 더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르맹 보프랑(Germain Boffrand)과 니콜라 까뮈 드 메지에르(Nicolas Le Camus de Mézières)의 저술로부터 내용을 발전시킨 불레(Boullée)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보았을 때 건물의 목적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블롱델(Blondel)의 이론을 변형시켜 건물에 고유하고 적절한 감흥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어떤 오브제를 보자!’ ‘우리가 최초로 경험하는 감흥이란 그 오브제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방법으로부터 온다. 나는 이 오브제로부터 나오는 효과를 특성(Caractère)이라고 칭하며 그것은 우리 내부에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불레(Boullée)는 하나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

6) Fatigué de l'image muette et stérile des corps irréguliers, je suis passé à l'examen des corps réguliers... Pourquoi la figure des corps réguliers se saisit-elle au premier aspect? C'est que leurs formes sont simples, que leurs faces sont régulières et qu'elle se répète. Ibid. p. 63, fol. 78.

7) Je devois faire des recherches sur la théorie des corps, les analyser, chercher à reconnaître leurs propriétés, leur puissance sur nos sens... Ibid. p. 31, fol. 48

태의 매스가 인간의 깊은 영혼을 자극함으로써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미적인 경험을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대중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건축적인 감각이란 일반 청중들 역시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그들 역시 자신과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리라고 믿었다. 키가 큰 건물은 영감적이고 키가 작은 건물은 슬프며 수평적인 형태는 기쁨이 있다는 따위의 사실을 누구나 공히 느끼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있어서 특성(Character)의 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두 가지 보충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다. 우선, 외부의 모양은 그 건물의 용도를 보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1793년 브뤼메르(Brumaire)에서 개최된 경연(Concours)에서 예술심사위원회(Jury des Arts)의 임원들이 내세운 요구조건, 즉 외부에 용도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는 불란서 혁명의 요구는 만족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었던 화가 네뵈(Neuve)는 출품작 중 '어떠한 건물도 그 외부에 용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사계획안들을 모두 탈락시켰는데 '일단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는 그것들을 군수공장, 조폐국 또는 거대한 국가 농장 등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Vitruvius 또는 블롱델(Blondel) 등이 힘, 또는 우아함과 절제 또는 흥겨움 등을 정도에 따라 구분한 방법에 기인하여 Neuve가 만든 건물 유형표에 따르면 각 디자인은 그룹(Grouping)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런데 그 법칙과 패턴에 따라 어떤 특수한 유형의 건물을 이 그룹과 저 그룹으로부터 구분하는데 있어서 애매성과 어려움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므로 일단 건물의 용도가 알려지지만 하면 시각적 표현의 적절성을 인정하는 성격(Character)의 보충적 개념을 도입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

둘째로 볼레(Boullée)는 위에서 설명한 분류 조건에서 볼 수 있는 애매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거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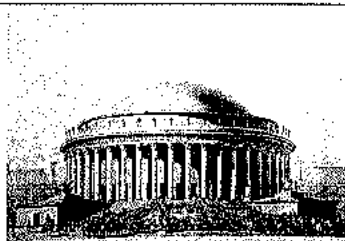
하여, 그리고 은유적 또는 풍유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미학적 차원을 첨가하기 위하여 성격(Character)이 지니고 있는 표현적 차원을 뛰어 넘어야만 하였다. 이 조건들, 즉 은유적이나 풍유적이나 하는 조건은 그 특성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건축물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 표현적 성격을 위하여 수평적 분위기를 중시하고 길게 누운 양례를 으뜸가는 요소로 일괄적으로 채택하는 여러 종류의 공공건물들을 확연히 구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하나인 재판소가 갖추어야 할 성격에 관하여 볼레(Boullée)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재판소: 이 재판소의 장식은 위엄있고 위압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압적이고 위엄 있는) 효과는 건축에 특유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요구하는 기념물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서 이것 - 이러한 위엄 있고 위압적인 성격 - 을 잘 지정할 수 있는, 그 목적에 합당하고 그 건물에 고유한 수단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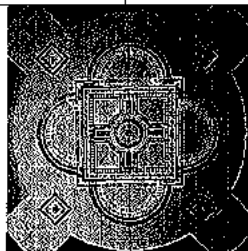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볼레(Boullée)는 공공건물을 적당한 은유와 풍유에 따라 디자인하였다. 말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이상적인 건축에 있어서 각 건물은 표현적이고 아마도 은유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용도를 말하고 있다. 각 건물은 그 외관으로써 관자로 하여금 그에 적합한 느낌, 기분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처럼 표현적이고 은유적인 성격 외에 볼레(Boullée)는 건축에 제3의 성격인 상징성을 첨가시켰다. 예를 들어 계몽주의의 후계자로서의 볼레(Boullée)는 공공건물을 신전과 같이 생긴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는데 반원형의 평면이 전면부에 배치된 공립도서관의 계획안은 우주에 관한 인간의 지식창고임을 상징하는 거대한 원형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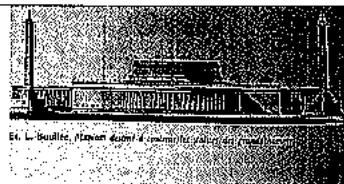
8) La décoration de ce palais doit être majestueuse et imposante. Ce tableau appartient à l'architecture. Mais comme il y a plus d'un monument qui exige un caractère à peu près semblable, j'ai cru devoir chercher à bien désigner celui-ci par des moyens convenables et qui lui fussent particuliers.



Opéra



미술관의 평면



미술관의 입면

가 계획한 법원 건물을 위한 프로젝트는 감옥 위에 법원을 둠으로써 선이 악을 이기는 풍유를 나타내고 있다. 낮고 거친 형태의 감옥은 땅으로 가라앉음으로 투옥은 영원한 죽음과 같다는 것을 은유한다. 사람들의 회합이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되던 때, 즉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제작된 파리(Paris)의 시청계획안은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상징하기 위하여 벌집처럼 설계되었다.

이 건물은 커다란 개구부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수월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넓은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비슷하게 혁명정부를 위한 국민궁(Palais National)은 장식, 개구부 등이 없는 막힌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판을 따라 헌법의 구절이 새겨져 있다. 왕립 도서관 계획은 라파엘로(Raphaelo)의 '아테네 학당'의 번역물이다. 여인들이 최신 의상을 뽐낼 파리(Paris)의 오페라 하우스 계획은 비너스 신전, 미술관 계획은 Parnasus 신전, 스포츠 경기장은 콜로세움, 그리고 파리(Paris)의 공동묘지는 이집트풍의 폐허를 상기시킨다.

그가 실제로 건물을 지은 일이 거의 없고 단지 귀족들을 위해 그가 설계한 몇 개의 건물만이 파리(Paris)와 그 주변에 세워졌을 뿐이다. 그는 많은 노력을 거의 건축묘사를 위한 수채화에 퍼부어서 그림 이외의 것 즉 실질적인 건축 제작을 추구하지 못하였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의 사상을 기술한 원고들은 그의 뜻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 귀속되었고 최근에는 건축사가이자 이론가인 장 - 마리 페루즈 드 몽글로(Jean-Marie Pérouse de Montclos)에 의하여 비로소 출판되었다.

책의 대부분은 초보적인 이론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을 독자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구성된다. 그는 마치 뉴턴(Newton)의 이론만큼이나 정확하고 유효한 요지부동의 건축 디자인의 법칙을 만드는 데에 전력을 쏟았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그는 입체의 속성에 관하여 관심을 쏟았으며 당시 전성기에 다달아 맹위를 떨치던 로코코(Rococo) 양식의 복잡성과 불규칙한 형태를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었다. 로코코(Rococo)의 불규칙한 형태를 거부하고 규칙적인 형태로 그의 관심은 집중됨으로 마침내 고전적 미학개념 내에서 그가 열망하던 질서있는 형태를 만드는 3가지 조건, 즉 규칙성(Néglarité), 대칭(Symétrie), 다양성(Variét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구형(球形)은 모든 규칙적인 형태물들에서 볼 수 있는 속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구의 표면상의 모든 점은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관자

의 이동에 따른 어느 곳에서도 시각조건이 동일하므로 형태 자체의 미가 변화되지 않는 완전형태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체는 다른 입체형태들과 비교하여 볼 때 관자로 하여금 가장 넓게 오브제의 표면을 볼 수 있는 형태라는 또 다른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 표면엔 단절됨이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이루며 그 윤곽은 완전히 매끄러워서 플라톤주의자들이 동경하는 가장 우미(優美)한 것이다. 한마디로 구체는 완전성의 모범이다. 그것은 단지 우주적 조화를 상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다.

이처럼 구체가 지닌 우미성 때문에 많은 불레(Boullée)의 계획안에 있어서 공의 모습을 한 형태는 지배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Paris)의 뜨윌리리(Tuileries)정원과 루브르(Louvre)궁 사이에 두도록 계획된 오페라(Opéra)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오페라(Opéra)를 품위 있는 취미의 사원, 그리고 파리(Paris)의 여인들의 고유한 매력을 기리는 성소인 비너스(Venus)의 사원으로 불레(Boullée)는 생각하고 건축적으로 번역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실질적인 문제와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8세기의 극장들은 때때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의 극장들은 모두 벽돌과 석조의 재료를 쓰기로 계획되었고 파사드 전면에 위치한 거대한 열주랑(Peristyle)은 건물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하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오페라(Opéra)를 설계한 이후 몇 년 뒤 뉴턴(Newton)을 위한 세노타프(Cénotaphe: 기념묘)를 계획하는데 이것은 명실상부한 완전 구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세노타프(Cénotaphe)는 마치 뉴턴(Newton)의 동상을 건립하듯 기념비적으로 설계되어 거대한 공간을 수용하고 있다. 건물은 어떠한 장식도 없고 다만 그 주위가 단순히 삼목과 꽃으로 둘러싸여 마치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대머리 선수가 월계관을 쓴 모양이나 띠를 두른 토성(土星)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 크기로서 방문객을 압도하여 왜소하게 위축되도록 만든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는 기단을 뚫어 만든 궁륭천장(Vault)의 지하통로를 통하여 석관 밑으로 인도되는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면서 계산된 작가의 의도에 따라 극도로 이질적인 시각적, 공간적 경험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현관을 출발하여 좁은 통로를 지나면 내부에 이르러 돌연히 펼쳐지는 광활한 공간의 폭발적인 전가가 극도의 시각적 대비감과 충격울 갖도록 의도되어 있다.

글자 그대로 방문객은 내부에 도착하면 광대

한 내부 공간 안에 외로이 고립되어 있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석관을 제외하면 아무런 오브제를 찾을 수 없는 단지 광대무변한 공간과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관념의 연상이나 암시를 연출하는 기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거대한 공허함으로써 방문객을 압도하도록 계획되었다. 볼레(Boullée)가 이토록 난폭한 대비를 계획한 이유는 로코코(Rococo)의 디자이너들의 관심사였던 환상적 디자인과 시각적 착각효과 등을 거부하고 엄밀하고 과학적이며 항시 불변하는 기본 기하학의 법칙으로써 표현되는, 그리고 극심한 대비에 의하여 한층 더 그 성격이 강조되는 확고한 이성의 법칙을 건축 안에 표현하려는 때문이다. 볼레(Boullée)는 건축에 있어 거대한 스케일은 단순 기하학의 형태에 강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거대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스케치들마저 큰 포맷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필연적으로 모든 건물이 도서관이나 대성당만큼이나 거대해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물이 위압적이거나 당당함 등을 요구하는 용도의 것이 라면, 실제로는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시각적 효과와 내부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기만 하여도 볼레(Boullée)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結

지금까지 고찰해 본 볼레(Boullée)의 주장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특성(Caracère)이다. 특성(Caracère)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는 단지 이것이 진부한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실제로 권위, 힘, 특정한 느낌 등을 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표정이 풍부한 표현적인 풍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작품에 자연 환경의 묘사를 곁들이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기하학과 소위 픽취레스크(Picturesque)식 구성방법이 함께 사용되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책 마지막에 그는 이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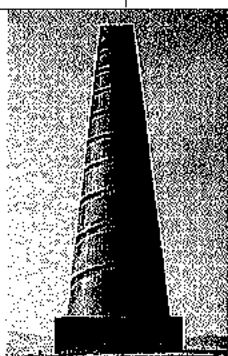
‘나는 이때까지 써 온 회화적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연극적(Théâtral)인 것 그리고 건축이 요구하는 이 순수성으로부터 멀어짐을 걱정해 왔다...’⁹⁾

어찌되었든 볼레(Boullée)의 작품에서는 과거 바로크나 로코코의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기하학에서 나온 기본형태를 편애하며 간단한 윤곽선을 애용한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그가 당시 유행하던 이국 취향에 반기를 들고 있었으며 까를로 로돌리(Carlo Lodoli) 등의 기능주의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지 순수히 예술지향주의적 문제에 집착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을 전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기념비적 건축물을 고안하는데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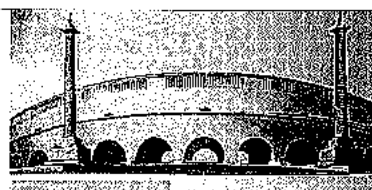
9) ‘J’avais à craindre, en employant les moyens pittoresques dont je me suis servi, d’être ce qu’on appelle théâtral et de m’écarter de cette pureté qu’exige l’architecture.’ Ibid. p. 145, fol. 130.



뉴턴을 위한 기념묘



탑



Circus

협회소식 / 86

건축계소식 / 91

현상설계 / 97

해외잡지동향 / 103

회원현황 / 109

세미나 / 110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2

협회소식 KIRA news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공제규정제안(안)
98년도회계별수지결산(안)
99년도건축사시험회계제1차추가
경정수지예산(안)



총회광경



개회사를 하는 이의구 회장



치사를 대독하는 최종찬 차관



치사를 하는 이인구 자민련부총재

우리협회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3월 26일(금) 오전 10시부터 협회 대강당에서 열려 정관개정(안), 공제규정제정(안), 98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99년도 건축사시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결산(안) 등 상정된 부의안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재적대의원 501명중 342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는 역대회장들을 비롯해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해 최종찬 차관과 자유민주연합 이인구부총재 그리고 송현섭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추대회원(20명) 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전회 회의록 승인에 앞서 1999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장학생(5명)에 대한 장학증서(장학금 1인당 4백만원)가 수여됐다.

이날 이의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 회원들이 겪는 고통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온갖 역경을 딛고 한국건축의 오늘을 이룩해낸 저력을 발휘하여 다시한번 심기일전의 자세로 선진 한국건축의 새 천년을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무처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회원서비스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 하겠으며,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건축과 건축사의 위상정립에 앞장서 오늘의 고통을 재도약을 위한 전회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21세기 선진 한국건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최종찬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건축설계의 질적 향상과 성실한 감리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과 「다가오는 21세기의 건축설계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은 모두 사라지고 전세계의 건축사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므로 건축사 스스로가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함」을 당부했다.

아어 있는 자유민주연합 이인구부총재는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협회의 육성을 위해 그 동안의 보호장치나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중에 있다」며 「새로운 규제 사회속에서 건축사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게끔 지금은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도기가 아닌가?」하며 회원들의 단결과 예지 모으기를 당부했다. 감사보고에 이어 시작된 부의안건 심의에서는 정관개정(안)이 일부 수정됐을 뿐 대부분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은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총 4,027,026,637원보다 384,856,854원이 초과된 4,411,883,491원의 세입이 결정되어 회비 및 광고수입, 미수 이월금 수입 등 총 557,315,000원이 미수된 3,854,568,491원(예산대비 95.7%)이 세입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액의 68.5%인 2,757,613,853원을 집행하여 세입세출 차감잔액 1,096,954,638원과 미수금 557,315,000원 등 총 1,654,269,638원을 99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수입으로 이월하여 결산하는 원안을 승인.

▶제2호의안 - 99년도 건축사시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당초 예산액 441,836,000원보다 26,622,843(6.0%)원이 증액된 468,458,843원으로 편성한 원안을 승인.

▶제3호의안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은 제39조 제3항(임시총회 소집)의 '...소집할 수 있다'를 '...소집한다'로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제8조: 정회원의 설계도서 신고의무 추가, 제20조 정기총회 개최시기 변경(연2회→1회), 제41조 건축사회 총회의 성립요건 완화)는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 공제규정 제정(안)승인의 건은 공제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됐다.

99년도 시·도 건축사회 임시총회

98년도 수지결산(안) 등 부의안건 심의

우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의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2월 22일(월) 경북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각 건축사회별로 열렸다. 99년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각 시도건축사회별 임시총회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2일(월) 11:00
- 장소: 경주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 참석인원: 229명중 167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부분에서는 '98회계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예산액보다 7,318,710원이 초과된 286,285,71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에서는 예산액 278,967,000원의 93%인 260,535,382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잔액 25,750,328원을 99회계년도로 이월하여 결산 처리

◆전라남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3일(화) 11:00
- 장소: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 참석인원: 99명중 76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당초예산액 212,882,710원보다 695,880원이 증액된 213,028,59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206,336,404원으로 세입세출 차감잔액은 6,692,186원
 - 제2호의안: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98년도 수지예산 집행결과 발생된 6,692,186원의 잉여금을 99년도 이

월금 수입으로 이월하고 본협회의 각시도 건축사회 지원금 연1천8백만원을 수입으로 반영, 운영회비수입을 10%하향 조정한 총 예산액 112,996,186원 규모로 편성

- 제3호의안: 대의원 선출의 건
- 김광호대의원의 임기만료와 총원2을 포함 3인 선출(김호신, 심우석, 조도인)

◆제주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3일(화) 16:00
- 장소: 제주 하늬관광호텔
- 참석인원: 65명중 37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예산액130,000,000원보다 16,690,254원이 증액된 146,690,254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총액은 117,059,040원으로 잉여금 29,631,214원 발생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4일(수) 14:00
- 장소: 현대해상빌딩 15층 강당
- 참석인원: 82명중 50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부분은 총 예산액 370,000,000원보다 31,422,273원이 감소한 338,577,727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총 예산액 중 74.3%인 275,683,706원을 지출하여 세입세출 차감 잔액인 62,894,021원과 미수금 571,000원을 합한 총 63,465,021원을 차기이월금으로 결산 처리
 - 제2호의안: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조건부 원안승인→출판사업비(법령발간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3백만원 증액
 - 제3호의안: 대의원(본부)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고창명, 김정수, 김일호, 이교진, 안상훈)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6일(금) 10:00
- 장소: 대구 파크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511명중 287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의 건

- 원안승인→세입부분에서는 예산액 619,831,261원보다 156,123,450원이 감액된 463,707,811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총 예산중 359,572,209원을 지출하여 260,259,052원의 잔액이 발생하므로 세입세출 차감잔액 104,135,602원을 98회계년도 결산 후 99회계년도 이월금으로 결산 처리

• 제2호의안: 99회계년도 '향' 간 전용에 따른 간사회 위임승인의 건

- 99년 회계연도 당해의 자금운영이 당면한 경제적인 여러 여건으로 보아 유동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의 돌발적 사태에 대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간사회에 '향' 간 전용 위임

◆전라북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6일(금) 10:30

○ 장소: 전북건축사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181명중 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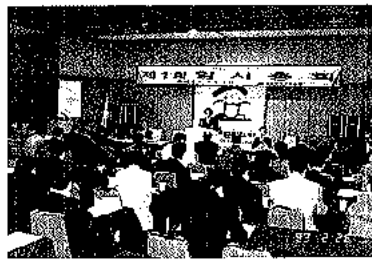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심의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부분에서는 98년도 예산액 491,500,000원보다 1,640,731원이 초과 세입되어 493,140,731원이 세입되었고, 월정회비 미수금 2,990,000원은 1999회계연도로 미수이월되었으 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의 70.3%인 345,365,765원을 지출하여 146,134,235원의 예산잔액이 발생, 초과세입금 1,640,731원과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146,134,235원을 합한 총 147,774,966원 중 설계감리 분리제도 시행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파태로 4,500만원 및 본부 재정지원 차입금 28,600,000원 상환에 대비키 위해 100,000,000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이관 적립하고 47,774,966원은 1999회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결산 처리

◆충청북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6일(금) 10:30



○ 장소: 청주 명암파크호텔 2층

○ 참석인원: 178명중 95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은 예산액 352,000,000원보다 85,653,881원이 증가된 437,653,881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중 83%인 293,850,364원을 집행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6일(금) 13:30

○ 장소: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222명중 138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에서는 98년도 예산액 208,775,780원보다 17,363,092원이 증가된 226,138,872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92.5%인 193,304,065원을 집행하여 15,471,715원의 잔액이 발생, 세입세출 차감 잔액 32,834,807원을 99회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결산 처리

• 제2호의안: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99회계연도는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204,951,22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8회계년도 이월금 32,834,807원과 월정회비 미수이월금 4,150,000원, 그리고 본협회에서 지원되는 시도건축사회 경영합리화 지원금 12,000,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 그러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설계도서 신고제도 폐지가 예상되어 운영회비 징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회비 세입결손을 세출항목에서 조정하므로 예산삭감요인이 발생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1999년 2월 26일(금) 14:30

○ 장소: 울산건축사회관 5층 강당

○ 참석인원: 120명중 87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예산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은 예산액 227,783,139원보다 33,148,740원이 감소된 194,634,399원이 실제 세입되었고, 세출은 총 세입결정액 194,634,399원에서 189,412,050원을 지출하여 차감 잔액 5,222,349원을 99회계연도로 이월 결산 처리

• 제2호의안: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예산은 98회계년도 이월금이 당초 2,000,000원이었으나 실제 세입결정금액이 3,222,349원이 초과 세입된 5,222,349원으로 계산되어 당초보다 3,222,349원이 증액된 225,722,349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및 회사부담금의 요율변경(3%→4.5%)과 고용보험료인상(1.3%→2.0%)됨에 따라 당초 222,500,000원보다 3,222,349원 증액된 225,722,349원으로 조정 편성

◆경상남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3월 3일(수) 10:30

○ 장소: 마산 크리스탈호텔 11층

○ 참석인원: 56명중 42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은 예산액 439,750,000원보다 45,669,855원 감액된 394,080,145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중 91,550,880원 감액된 348,199,120원을 집행하여 차감잔액 45,881,025원을 99회계연도로 이월 결산 처리

• 제2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임원 2명(조태화, 설종국), 대의원 5명(박형규, 허필도, 차창석, 정용규, 김동준) 선출

◆경기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3월 4일(목) 11:00
- 장소: 경기도건축사회관 6층 회의실
- 참석인원: 270명중 156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에서는 예산액 총 1,225,000,000원보다 189,324,074원이 감액된 1,035,671,926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76.5%인 938,029,030원을 집행하여 286,970,97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 세입세출 차감잔액 97,642,896원을 99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수입으로 이월 결산 처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일시: 1999년 3월 5일(금) 10:30
- 장소: 본협회 강당
- 참석인원: 2,707명중 455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은 예산액 2,102,628,575원보다 14,648,152원이 감소된 2,087,980,423원의 세입원이 결정되었으나 미수금 321,276,000원이 발생되어 1,766,704,423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73.1%인 1,537,265,242원을 집행하여 565,363,333원의 예산잔액이 발생, 세입세출 차감잔액 229,439,181원과 미수이월금 321,276,000원 등 총 550,715,181원을 99년도 일반회계이월금 수입으로 이월 결산 처리
- 제2호의안: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세입 총 예산규모를 99년도 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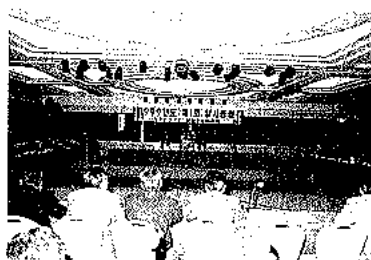
1,327,424,265원보다 12.6%(167,926,868원)증액한 1,495,351,133원으로 편성

- 제3호의안: 대의원 보선의 건
- 회장에게 위임(장성진, 최정일, 한규봉 회원 선출)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1999년 3월 9일(화) 10:30
- 장소: 둔산웨딩타운 3층 컨벤션홀
- 참석인원: 243명중 141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에서는 98예산액 346,147,000원보다 79,366,211원이 감소된 266,780,789원의 세입이 결정되어 월정회비 7,920,000원이 미수된 258,860,789원이 세입되므로 예산대비 87,286,211원이 감소 세입되었고, 세출은 98예산액의 64.21%인 222,266,880원을 집행하여 123,880,12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 세입세출 차감잔액 36,593,909원과 미수금 7,920,000원 등 총 44,513,909원을 99년도 이월금수입으로 이월 결산 처리

◆강원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3월 12일(금) 10:00
- 장소: 현대 성우리조트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161명중 87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은 예산액 434,370,021원보다 31,667,591원이 감소된 402,702,43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에서 349,429,091원을 집행하여 84,940,93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 세입

세출 차감잔액 53,273,339원과 월정회비 및 운영회비 미수금 19,134,500원 등 총 72,407,839원을 99회계년도 이월금 세입으로 결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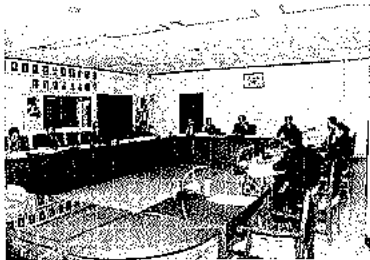
- 제2호의안: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총 규모 244,557,839원에서 세입의 월정회비, 잡수입, 세출의 회비비 일부 과목을 조정하여 2,100,000원이 증액된 246,657,839원으로 승인
- 제3호의안: 대의원 개선의 건
- 김성호, 이재춘, 정부교, 박종삼, 이정욱, 박용인 회원을 간사로 선출(김성호 간사를 제외한 5인의 간사는 지역건축사회 회장을 겸임토록 함)
- 제4호의안: 총회 운영방안 결의의 건
- 총회 운영방안을 지역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으로 3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단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1인을 더 선출하며 임원, 지역회장, 역대회장, 본협 대의원은 선출인원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여 총회를 운영키로 결의

◆충청남도건축사회

- 일시: 1999년 3월 18일(화) 10:00
- 장소: 천안 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168명중 85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세입은 예산액 502,700,000원의 93%인 468,911,431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총예산의 57%인 286,713,737원을 지출하여 215,986,263원의 예산잔액이 발생, 세입세출 차감 잔액 182,197,694원을 99년도 이월금으로 세입 이월하여 결산처리
- 제2호의안: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의 회관임대수입 4,000,000원 삭제, 세출의 예비비가 16,645,000원에서 12,645,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액 286,402,000원에서 282,402,000으로 조정 승인

이사회 개최

제10차 아카시아포럼 개최 계획
승인의 건 등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12일(금) 14시30분에 협회 중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
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3회

〈부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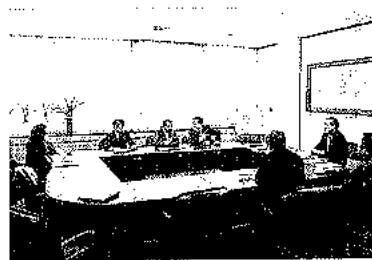
- 제1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개정(안)을 일부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99년도 제1회 임시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2호의안: 공제규정 제정(안)에 대한 협의
- 공제규정 제정(안)을 99년도 제1회 임
시총회에 상정키로 함. 다만 용어정리
는 회장에게 위임.
- 제3호의안: 98년도 회계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99년도 제1차 건축사시험
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 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추대회원 추대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광고료 미수금 결손처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협의사항〉

- 제1호: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임원
업무분담에 대한 협의
- 건축사현장감독은 김인곤감사가, 정관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회장과 상근부
회장이, 공제규정 제정(안)에 대한 답
변은 이종정이사가, 98년도 회계별 수
지결산(안)과 99년도 건축사시험회계
제1차추가경정 수지예산(안) 그리고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추진에 대한
답변은 회장이 각각 하기로 함.

아카시아회장 P. Kasi, 우리협회 방문

아카시아포럼 행사관련 협의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2월 8일 아카시아
(ARCASIA) 회장인 P. Kasi를 초청,
오는 9월 13일부터 열리는 아카시아포
럼 행사 관련사항에 대해 협회 소회의실
에서 협의했다. 우리측 인사로 이의구 회
장을 비롯해 아카시아포럼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지덕 회원과 집행위원(이근창, 이
정근, 조인숙)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행사기간(1999. 9. 13~17.), 개최장
소(HOTEL INTER-CONTINENTAL
SEOUL), 포럼주제(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를 비롯해 행사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99건축사예비시험 접수마감

총 4,803명 접수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99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접수결과, 총 4,803명이 접수
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
국 각 시도건축사회별로 접수가 이루어
졌는데 응시지원자 수가 작년 8,222명
에 비해 58%수준에 그쳤다. 각 지역별
로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이 2,916명으
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6명, 대구 265
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접
수한 지역은 충남으로 36명이 접수했다.

우리협회, 공제사업 본격 추진

지난 3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결정

우리협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3월 26
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설계이동 등 보증
발급업무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공제
규정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업무를
시행키 위해 실무추진팀 구성과 세부사
업계획 작성에 착수키로 했다. 공제사업
기본계획은 회원사의 자유의사에 가입여
부를 맡기는 한편 사업시행 초기에는 위
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계약 등 일
반보증업무와 용자업무를 취급하고 추후
사업성과를 보아 손해배상업무를 비롯하
여 어음할인, 법률자문 등으로 업무영역
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건교부는 물론 재경부가 보증서 발급기
관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도 보증기관으로 반영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장학금 전달

김완수(숭실대)외 4명
지난 3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의구 회장

우리협회(회장 이의구)는 지난해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신설한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및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건축분야에 재능이 탁월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아 그 중 5명을 1999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각각 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장학금은 정부시책으로 5개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91년도 10월부터 98년도 2월까지 시행된 신도시 공동감리단 운영에 따른 감리비 예치액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중 공동감리단 지도위원회 및 우리협회 총회 결의에 따라 일반회계 잡수입계정으로 세입화한 93~98년도까지의 이자발생분을 제외한 91~92년도 조성분 감리단 운영비(이자발생분)를 신도시 공동감리단 지도위원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여 장학사업 목적에 사용토록 지정, 결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장학금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김완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4학년 박남기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박희준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임명수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허 선

장석웅회원, AIA 명예회원

故김수근, 이광노에 이어

장석웅(아도우건축, 전한국건축가협회회장) 회원이 건국 이래 세 번째로 AIA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인천건축사회 사무실 이전

남동구 구월동 태정빌딩 2층으로

우리 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지난 3월 24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22(태정빌딩2층)

전화: 032-437-3381~4,

팩스: 032-437-3385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가협회, 21C 한국대형 건축전

4월 22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에서는 99 건축문화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600년 기념관에서 「21C 한국대형 건축전」이 열린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21세기 한국의 건축문화를 대표하게 될 대형 건축물들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 ASEM, 2002월드컵경기장, 고속철도역사,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포함되며, 모형과 패널전시를 비롯해 각종 영상물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한국건축가협회는 이들 프로젝트가 21세기초에 완공되어 이후 한국의 도시환경을 대표하게 되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고, 건축적으로는 물론, 완공 후에도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건축물이라고 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전시회가 건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한국의 건축문화와 그 역량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762-8090

제18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요강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건축대전의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초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제18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되며,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에 관계되는 작품 포함)을 응모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단, 1인 1작품에 한한다. 올해 대전의 심사위원은 고주석, 김병운, 김병현, 김봉렬, 유원재, 이종호, 최두남씨가 맡는다.

◇ 작품규격, 요령

〈1차〉 원서 및 작품계획안(원서교부시 미리 교부되는 소정의 양식에 작성) 우편접수도 가능(8월 27일 소인에 한함)

〈2차〉 패널 및 모형(1차 예비심사에서 입선된 작품에 한함)

규격/패널(가로90cm×세로180cm 이내)
모형(가로90cm×세로90cm×높이90cm 이내)

요령/·도면에는 주제와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유리, 플라스틱류 등 반사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운반이 용이하도록 조립할 것.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원서교부(일반공모전)/99. 4. 5.(월)~4. 30.(금)

◇ 작품접수

·초대전 - 99. 10. 11.(월),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일반공모전-1차: 99. 8. 27.(금), 사무국에서 9시부터 17시까지, 2차: 99. 10. 11.(월),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 심사일정

·1차 예비심사: 9. 1.(수)~9. 3.(금)
·본심사: 10. 11.(월)~10. 12.(화)
·3차 공개심사: 10. 13.(수) 오전 9시

◇ 심사결과

·1차: 99. 9. 4.(토) 오전 11시 예총회관
·2차: 99. 10. 14.(목) 오전 10시 예총회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시상(일반공모전)

·대상(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5백만원
·우수상(3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2백만원(한국건축가협회장상, 대한건축학회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각1점)
·특별상(1점): UIA(국제건축가연맹) 회장상

·특선(약간): 상장 및 상금 각 5십만원
·입선(다수): 상장

◇ 수상작설명회/99. 10. 22.(금) 오전 10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시상일지/ 99. 10. 22.(금)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 2층

◇ 출품원서대금

·1차 원서비: 4만원
·2차 출품비: 3만원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02-744-8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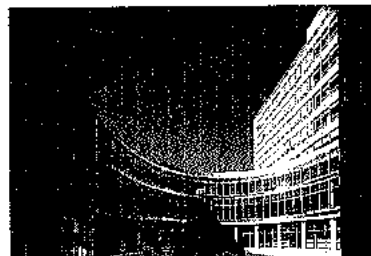
한국건축역사학회, 4월 월례발표회

4월 17일(토) 오후 2시
덕수궁내 궁중유물 전시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4월 17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덕수궁내 궁중유물 전시관(석조전) 2층 세미나실에서 4월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건축과 공동성(共同性)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현교수가 발표한다.

17회 서울시건축상 발표

금상에 기상청청사(원도시건축)



기상청 청사(원도시건축)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제17회 서울시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준공건축물 부문에서는 원도시건축이 설계한 기상청청사가 관공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건물 뒷면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형중정을 배치해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금상을 차지했다. 또 올해 신설한 서울시건축상야간조명상부문에는 코스모타워(담배인삼공사 사옥)가 멀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도를 높이고 조명을 통해 건물이 수직상승하는 듯한 발상지향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이 호평을 받아 금상을 차지했다. 오는 5월 12일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갖기로 했으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준공건축물부문 ▷금상: 기상청청사 ▷은상: 한국중공업사옥·초록마을아파트 ▷동상: 고려포리머사옥·연세대상남경영관·양천소방서·도곡우성캐릭터199 ▷장려상: 김옥길기념관·호혜설유사옥·퀀테스레지던스.

야간조명상부문 ▷금상: 코스모타워(담배인삼공사사옥) ▷은상: 포스코센터 ▷동상: 송레문 ▷장려상: 갤러리아백화점·한국방송공사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일용도군내 주차장설치기준 단일화

건설교통부는 동일한 용도군내의 건축물설치기준이 단일화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용도군내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군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하고, 다만 시설물 연면적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기 관련한 관립장, 골프장시설 등과 동일한 용도군에 속하나 주차수요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방송국,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용도군은 아니지만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의료시설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로 동일하게 조정해 주차장 추가설치 없이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설치기준의 조정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및 판매시설은 80~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은 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되고, 특히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완화시켜 주차장의 추가설치 없이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건축학교, 제3쿼터 일정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서교부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문교육과정으로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건축학교(교장 조성룡)의 98/99년도 제3쿼터 일정이 발표됐다.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서가 교부되고, 12일부터 24일까지 입학지원서,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서류를 접수받아 4월 3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제3쿼터의 설계스튜디오에는 김영준 스튜디오(주제: 낮선 곳), 김 헌스튜디오(주제: Camera Cognita-mindscape), 서해림스튜디오(주제: Costume/Custom II), 이종호스튜디오(주제: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 - 대학로에서)로 진행되며, 건축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기본적인 설계작업 훈련과정으로 예비스튜디오과정도 새롭게 개설돼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최 옥(KPC건축)씨가 진행한다. 진행기간은 정규과정의 쿼터기간과 동일하며, 쿼터말 학우위원회의 실사를 통과한 학생은 설계스튜디오 과정에 진급할 수 있다. 1999/2000년도 제1쿼터(0909-1106)는 오는 6월중에 모집한다. 문의: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설계전임교수 영입

민선주씨 등 6명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유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4명의 전임교수외에 99년 3월 1일부터 6명의

신임교수를 초빙했다. 따라서 건축전문대학원 단독으로 모두 10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게 되어 건축학부 교수 8명과 더불어 SAK, GSAK 전임 교수진은 총 18명에 이르게 됐다. 신임전임교수는 다음과 같다. 천의영(서울대공학박사/하버드대학원/서울대/건축설계) 민선주(하버드대학원/콜럼비아대/건축설계) 헬렌박(서울대공학박사/하버드대학원/하버드대/건축설계) 박홍서(밀라노대건축학박사/경희대대학원/경희대/건축설계) 안창모(서울대공학박사/서울대대학원/서울대/건축학설계) 이영범(AA스쿨건축학박사/서울대대학원/서울대/건축설계) 문의: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학부 02-390-5245

한국건축사진가회(APOK) 발족

초대회장에 임정의씨

한국건축사진가회가 서울 강남구에 사무국을 두고 지난 3월 6일 발족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건축사진가들이 모여 새로운 꿈을 꾸며, 스스로 지금의 상황과 직무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축사진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자 건축사진가 임정의(청암스튜디오)의 25명이 그 뜻을 같이하고 정기모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 모임은 앞으로 건축사진계의 회보 발간(계간), 정기적인 전시회(10월 25일~30일, 중구문화원 예정), 전체적인 사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기초작업, 연 2회 정기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좀더 성숙된 문화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참여건축사진가는 다음과 같다. 강일민, 김경호, 김용관, 김재경, 김재운, 김철현, 김태오, 류정훈, 문정식, 박광선, 박영채, 박원순, 박호관, 백운열, 송재영, 염승

훈, 유경수, 이기현, 이만상, 이인미, 이재형, 임정의, 전성영, 정정웅, 조명환, 조태룡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2-3
신발당 1층
전화: 02-567-2700, 팩스: 02-569-0061

미국 임산물협회(AF & PA), 제6기 목조 건축 설계교실 개최

현업 건축사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진행
오는 5월 8일부터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목구조 건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업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6기 목조 건축 설계교실'을 개최한다. '목조 건축 설계교실'은 한국형 목조주택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개설하여 현재 제5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개방에 따라 목조주택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가들과 시공인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각 대학교수/강사, 건축사, 주택 건설, 재료 및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목구조 설계의 기본 이론, 설계의 표준화, 올바른 자재의 선택, 시공의 용이도 등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보다 과학화된 방법을 다루고 있다.

수강생 모두가 현업 종사자임을 감안하여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강사진은 김진희 소장(목조 건축 기술연구소 소장), 송재승 소장(미추건축) 등을 중심으로 목구조 건축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 건축 설계교실 수강생들의 강의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아 강의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안내와 목조 건축 설계에 대한 자문 및 회원간의 공동 연구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목조 주

택 시공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6기 목구조 설계교실은 오는 1999년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조건축 기술연구소(전화: 734-2181)를 통해 알 수 있다.

'99 목조주택 기술 세미나 개최

지난 3월 4, 5일 건축가를 대상으로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3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목구조주택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산 목재 제품 및 목조주택 관련 기술 세미나'와 '목조주택-21세기 주거문화'를 주제로 전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4일 첫날 '미국산 활엽수 목재기술 세미나'와 '목조주택 관련기술 세미나' 두 세션으로 이뤄진 '미국산 목재제품 및 목조주택 관련 기술 세미나'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구조 주택 건축 자재인 미국산 제재목에 관한 산업 현황 및 적용 사례를 비롯, 미국산 활엽수 마루판의 장점 및 설치 기법, 목조 주택 창문의 특성 및 설치 기법, 목조주택용 콘크리트 기초 설계 및 건축 법규 및 미국산 합판과 공학목재제품의 등급 및 응용 사례 등의 실용적이고도 최신의 목구조 건축 기술이 소개되었다.

이튿날 미국 임산물협회와 한국목조건축 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목조주택-21세기 주거문화' 세미나에서는 문

학의 일부분으로서의 목조주택의 개념을 재조명, 한국의 도시 근교 주거단지 개발의 특성, 공학목재로서의 미래 건축 및 한국 목조건축의 내일이 강연되었다.

'99 미국 활엽수 목재 기술 세미나 개최

'9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기념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3월 12일, '99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참가를 기념함과 동시에 미국산 활엽수 목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에 대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9 미국 활엽수 목재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인간미가 느껴지는 자연적인 소재와 전원적인 분위기가 실내 인테리어의 최신 경향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친근한 소재인 미국산 활엽수 목재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미국 임산물협회는 세미나와 더불어 리셉션을 개최하여 국내 목재 업계와 미국 활엽수 목재 수출업체간의 직접 교류의 장을 마련, 효율적으로 최신의 목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VKw Lumber Co., Mr. Bob Sabistina 수출담당 이사가 '활엽수 목재수종 및 등급의 올바른 이해'에 관한 강연을 통해 목재 인테리어 시공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엽수 목재 등급 및 고품질의 목재 선정 기준, 실제 시공 사례 중심의 정보를 제공했다.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박영순 교수의 '실내 및 가구 디자인을 위한 활엽수 응용 사례' 강연에서는 특히 실내 환경에서 목재 사용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목재가 가지는 활엽수의 디자인적 특징, 목재를 이용한 국내 디자인 경향과 함께 활엽수를 이용한 국내 디자인 전망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강의로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강호양 교수는 '온대산 활엽수의 종류, 건조 및 물리적 특성'의 강연 주제하에 목재의 구조, 판재의 종류, 밀도, 함수율, 수축률, 건조재의 결합 등에 대해 소개, 활엽수 목재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조광목재 유희열 대표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온대산 활엽수 목재의 유통 구조 및 이용 현황'에 관하여 미국활엽수목재협회(American Hardwood Export Council)의 자료를 인용, 목재 공급 및 수종별 선호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문의는 미국임산물 협회 한국사무소의 홍보 대행 오리콤 PR팀 신혜성(Tel. 02-510-4119, Fax. 02-516-3631)

코사프, 종이건축물 모형 시판

세계 유명건축물 20여종

(주)코사프(대표 김창우)는 이탈리아의 에디토리알레 도무스(Editoriale Domus) 사로부터 종이건축물 모형세트(Domus Kit)와 아시아지역 판권을 획득, 판매에 나섰다. 이탈리아 일본 관광객의 내방이 많은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에 입점하는 한편 내년 3월 일본 및 홍콩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등 아시아지역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접기라는 뜻을 가진 Domus Kit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기념 건축물을 특수코팅 처리된 최고급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견고성, 내구성, 질감 및 정교함이 탁월한 모형 건축물이다. 모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부된 제품의 상세한 설명대로 색깔과 번호에 따라 알맞게 오려진 부분을 뜯어내어 접고 끼우고 점착제로 붙이기만 하면 된다. 문의: 02-2298-3620

월간 이상건축 사무실 이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월간 이상건축이 편집과 취재업무의 원활을 위해 사무실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6-17 진우빌딩 4층

전화: 02-549-5383 팩스: 02-546-6513

건축신간안내

영화속의 건축이야기

해외나, 세계나

시대를 담는 그릇

AutoCAD 2000 업그레이드 트레이닝

◆ 영화속의 건축이야기



이 책은 최근 다양한 학문의 크로스오버현상으로 영화속에서 보여지는 건축의 이미지를 밝히고, 현재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영상매체중 하나인 영화속에서 건축이 어떻게 보여지고 해석되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최근들어 이런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젊은 건축가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이 문화적 관점에서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중에게 접근하기 쉬운 영화를 통해서 건축을 풀어냈는데 의미가 있다. 1, 2부로 나누어 구성됐으며 1부에서

는 여러 영화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들을 이끌어내고 있고, 2부에서는 각각의 영화들을 통해 그 속에서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홍성용 지음/277쪽/1만4천원/도서출판 발언(02-929-3546)퍼낸

◆ 해외나, 세계나



건축: 해외유학의 기회와 몇 그리고 세계 속의 프로

20세기의 마지막에 서서 다가오는 뉴밀레니엄을 기대하며, 또한 99건축문화의 해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아크포럼에서 시리즈로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일곱 번째다. 유학은 건축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테마이기도 하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느냐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 속의 프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는 이 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축인들의 평소의 관심 또한 이 시대 딜레마의 심도를 반영하듯 국내외 다양한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또한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표현하고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신의 답은 결국 자신이 찾아가야 하지만 그 의문과 답을 보다 넓은 지평 속에 위치시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크포럼 기획편집/243쪽/8천4백원 / (주)서울포럼(02-514-9838)퍼낸

◆ 시대를 담는 그릇



이 책은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1권

나는 건축의 이론가가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어떤 건축가가 그의 체취가 물씬 나는 고유한 건축을 그려낸다면 그는 독특한 조형언어를 가진 독립된 건축가이며 도성안으로도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건축 이론가다. 그리고 그의 이론이 역사와 접촉할 수 있다면 그의 건축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베이터가 되며 그 건축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을 학문으로 하는 이도 그 학문 안에 건축의 창조적 기능과 재현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학문은 피상적이며 공허하게 될 뿐이다. 특히 역사를 다루는 목적이 오히려 아니라면 그 역사는 생명 없는 유물이며 이미 폐기물이다. 김봉철교수는 학문하는 건축인이며 건축역사학자다. 그러나 그의 학문하는 영역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애정은 영화로운 과거의 사실에 있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황폐해 있는 우리의 현재에 있다. 그는 과거의 사실을 막연히 바라보지만 않는다. 그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건축의 흔적을 찾아 그 속에서 발견한 언어를 현재에 대입하여 새로운 건축을 그리고자 노력하는 불과 몇 되지 않는 이 땅의 학자 중 한 사람이다.

3년 전 일본의 조그만 도시 이즈모에서 이즈모모토 이란 심포지움에 김교수와 나는 주제안사로 같이 초빙되어 참가한 적이 있다. 그 당시 그 포럼의 주조자인 교토대학 후노 스지교수는 '일본 27세 때 '한국'의 건축'이란 명제를 제출했으니 이를 두고 천재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김봉철 교수를 관중으로 소개하였다. 나는 그 때 세상, 김교수의 놀라운 성취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된 이 책은 1985년에 초간되었는데, 이 책은 한국 건축역사에 전혀 무지하여 마치 왕당대예를 떠돌던 나에게 황금같은 배비게이터로 다가왔음에 그 즐거움을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 책의 가치는 저자가 밝힌 바 대로 단순히 교건축 담사쪽 감상에만 있는 게

으로 일간 이상건축에 3년간 연재되었던 부분을 정리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을 새로운 시각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적 자산과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오늘의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필자인 김봉철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는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전통건축을 수십차례 답사하여 3년에 걸쳐 약 1,200페이지 분량으로 생생한 현장사진과 실측도면 등을 엮어 각각의 건축물별로 테마를 먼저 선정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으로 일맥상통하여 집필되어졌다. 김봉철 지음/243쪽/8천4백원/월간 이상건축(02-549-5383)펴냄

아니었다. 소개되는 항목마다에 길지 않은 글로 된 그의 해설은 그간 지루하고 답답하며 대단한 의무감 아니고는 도무지 읽기 어려웠던 한국건축역사서의 장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일으켜 새우고, 가까이 갈 수 없던 옛 건축을 낯설게 할 뿐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쳐 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건축으로 읽고 보게 만드는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불과 27세였을 때 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 한다.

'과거의 한국건축을 방법과 같은 신비주의의 산물로 여기거나 박물관 속의 유물같이 동결된 문화제로 취급하는 한 한국건축은 낭만적 최고인 강압적 예정의 대상은 필자언정 하나의 건축적 실체가 아니다.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다.'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 적어도 나에게 역사의 현대적 사건만은 관심사임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다음 사실에 대한 관련이 중요하여, 무엇보다 '왜' 그 사실인가 하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내가 지금 그려야 하는 건축의 궁극적 목적에 자해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 지루하고 저급한 논쟁 중의 하나인 전통건축의 오사나 복원에 대한 문제는 만기론은, 바로 이 본질적 질문을 건파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런 저런 기회에 듣게 된 김교수의 강연들은 항상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바 가치 경외로운 것이어서 늘 학술 논문 아닌 그의 두 번째 저술을 기대하고 더러는 재촉하곤 했다.

그러던 중 재직년부터 열간지 이상건축에 27개의 주제를 미리 내걸며 주욱같은 이 땅의 옛 건축들을 시리즈로 연재하는 대장정을 시작함을 보고, 그의 학문적 스케일과 깊이에 놀랐고, 그의 계획되고 스스로 제어하는 치밀함에 놀라며, 미증유의 이러한 저술을 참으로 반가워 했다. 또한 어번에 그 글들 중 일부를

단행본으로 출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건축인들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까지 읽혀질 계기가 되는 듯 하여 기쁘기 그지 없다.

우리는 그의 글에서 건축만을 만나지 아니한다. 그의 글속에 있는 지식과 사유로 이루어진 글을 따라 읽어 내려 가다보면 그 건축과 관련한 인물과 만나고 그 인물이 엮은 역사를 만나고 그 인물의 사상체계와도 만난다. 또한 그 건축이 놓인 땅을 이해하도록 조선과 고려의 산수를 만나고 다라는 아담의 풀 포기와 기암괴석을 만나기도 한다. 그야말로 종합무진이요, 질압가경이며, 무변방대한 그의 이야기는 옛 건축의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건축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소설이요, 건축을 매개로 한 우리의 문화종서이며, 건축이라는 커를 통한 우리의 역사서이다.

그러나 정작 나로 하여금 그의 글을 재독, 삼독하는 까닭은 새롭게 열게 되는 삶이나 정보에 있지 않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후터운 사유에서 비롯된 그의 글은 언제나 우리의 휘청거리는 현재를 엄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혜로운 이상세계를 끊임 없이 그런 선조들의 문화적 안목과 도덕적 실천을 그. 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일그러진 우리의 현대적 삶을 질타하고 나아가 이 궁에 빠진 우리의 건축어 빠져나갈 통로를 제시하여 준다. 이 땅에 몇 날지 않은 우리의 옛 건축에 진실한 사람을 들춰 담아 우리 건축의 지평을 한껏 넓힌 그의 글은 따라서 건축가가 읽어야 하고, 건축학자가 읽어야 하며, 건축의 사용자도 읽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누구보다도 읽어보기를 원하는 이는 우리 의 건축을 스스로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이다. 왜 건축을 하는가.

이 질문의 중요함을 거듭 적시하는 이들에게만 팔독해야 하는 그의 글이며, 우리의 글이다. 눈으로 읽는 글이 아니라.

◆ AutoCAD 2000 업그레이드 트레이닝

AutoCAD 2000

AutoCAD 2000



1.

이 책은 AutoCAD의 개발 및 공급사인 오토데스크의 교육센터인 AOTC(Autodesk Official Training Courseware)가 출간한 것을 번역한 것으로 설계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AutoCAD 2000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예제 중심의 학습서이다. 총 8개의 장과 한 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 제품개요편에서

AutoCAD 2000의 새로운 기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2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편에서부터는 예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7장 확장성편에서는 이번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비주얼 베이직과 비주얼 리스, 그리고 매크로를 다루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고급 사용자들은 물론 초보자들도 쉽게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각장 초반에 목표를 밝힌 후,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기본 예제를 제공해 독자의 이해를 높인 후, 독자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도전예제를 제공해 사용자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데모와 실습예제는 AutoCAD 2000의 새롭게 강화된 기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오토데스크 지음/250쪽/1만원/도서출판 비컴프레스(02-564-9664)펴냄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제주 월드컵 경기장

성북구 영화기념관 및 제2구립도서관

전주 월드컵 경기장

Cheonju Warldcup Stadium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한 터키입찰 설계경기를 실시, 이에 대한 심사결과로 성원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이룬 (주)POS-A.C.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이강우·심성보)+(주)종현종합건축사사무소(최종철)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해 12월 12일에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현대건설(주), 경남기업(주), (주)흥건사, (주)우진건설, (유)남광, (주)제일종합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이룬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주)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곽홍길)안이 경합을 벌였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계획: 류응교(전북대), 진 정(전북대), 정사회(원광대), 윤충렬(원광대), 강대호(전주대), 정주성(서남대), 실우갑

(서울대), 이상돈(대한건축사협회), 김은숙(명성건축)

건축구조: 김영문(전북대), 이용수(원광대), 정동조(전주대), 유명선(전주공업전문대)

건축시공: 소양섭(전북대), 양극영(원광대), 최산호(호원대), 신성우(한양대) 기계설비: 정태진(군산대), 한병성(전북대), 윤양웅(원광대), 박우현(나라기술단) 토목: 조기성(전북대), 김경수(군산대) 조경: 김재식(전북대), 박재철(우석대)

▶ 당선작 / POS-A.C.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이강우·심성보)+(주)종현종합건축사사무소(최종철)



조감도



모형도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장동, 여의동 일원
용도	관람집회시설(운동장경기관람장: 축구전용경기장)
대지면적	170,300평
건축면적	13,596평
연면적	27,550평
건폐율	13.38%
용적률	24.92%
층수	지하1층, 지상6층
최고높이	38m
구조	스탠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조), 스탠드하부-철근콘크리트+P.C., 지붕 - 철골트

러스+Cable Stayed System

외장재 지붕 - 복합패널+폴리카보네이트 쉬트, Mast - $\phi 800 \sim \phi 3,000$ 스틸파이프, 외벽 및 기둥 - 치장블럭쌓기/인코트블럭 칠+노출콘크리트
주차대수 7,500대(대지내·외)

합죽선의 이미지를 가진 전주구장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10개 월드컵 구장 중 9번째로 계획된 전주 월드컵경기장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어떤 경기장의 의미를 가지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다운 이미지를 표현하는가에 있었다.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식혀주고 때때로 가리개의 역할을 하던 선조들의 멋스러운 합죽선이 활짝 퍼진 형태는 관중을 더위와 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경기장의 지붕으로 재해석되었다.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강렬한 수직 요소인 마스트는 깃대와 같이 축제의 분위기와 관중의 환희를 고조시키고 전주의 초입에 위치해 솟대와 같이 마을의 안녕과 수호를 나타내는 모뉴먼트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이 4개의 마스트는 경기장의 기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먼저 관람조건이 불리한 4개의 스탠드 코너에 위치하였고, 잔디의 통풍을 고려한 스탠드는 하루 1단만 설치하여 개념적으로 열려진 마당을 안과 밖에서 상호 공유하는 전통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배치의 형태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면에 상징광장을 배치하였고 도시발전축을 따라 보조경기장과 월드컵기념공원을 삼하로 배치, 유기적 관계축을 설정하였다. 또, 전주의 전통적 요소에서 추출한 한국적 정서를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계획, 전주성의 형태를 형성화하였고, 논과 밭의 격자패턴을 형상화한 '칸(間)'의 개념을 도입 융통성 있게 채워나가는 전원적 도시구조의 맥락을 맞추었다. 경관적이고도 기능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상징광장을 통해 진입하면서 전통가로물을 조성하였고 대량의 관람객의 유입 및 휴식을 위한 원충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생태하천을 통한 친수공간으로의 이용을 극대화하였다.

월드컵 기념공원을 조성, 전통문화를 이벤트

화 하여 난장, 놀이마당 등 6개의 주제공원을 두어 언제나 열려진 마당을 계획하였다. 경기장 평면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쾌적한 관람조건과 안전한 진출입이므로 퇴장시간의 최소를 위해 충분한 통로 및 데크를 확보하였고 스탠드의 양호한 가시각을 위해 스탠드의 각도를 34° 이내, 2단으로 처리하여 관중들의 일체감 및 유대감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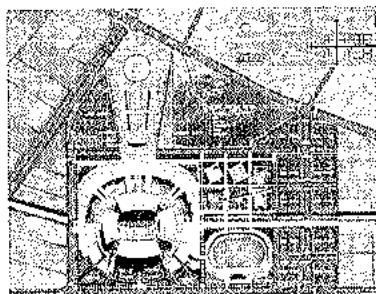
지붕은 샌드위치채널로 상부는 엠브레인, 하부는 흡음률이 높은 유공 스틸판으로 복사열을 최대한 차단하였다.

입면은 데크, 기둥(벽), 지붕의 3분적 수직체계를 모델화하여 天·地·人 하나로 조화되는 수직적 공간체계를 이루었고 4개의 마스트는 강한 랜드마크적 요소로서 전주의 발전의지를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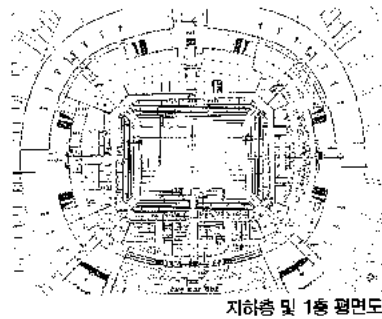
구조는 스틸트러스로서 89% 차폐율의 넓은 지붕을 경량화시키는 방안으로 모서리 부분에 마스트를 세워 케이블을 이용, 지붕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담시켰고 막구조가 아닌 스틸트러스구조이면서도 타구장에 비해 30%의 하중절감을 가져왔다. 조경설계의 기본개념은 6개의 주제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며 21세기 미래형 가치로서 환경 친화적이며 열린 사회의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특히 기존 하천을 새시대적가치에 맞춰 재조성하여 생태하천과 친수형 담수지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친환경적 공법을 구사, 생태적 하천을 재현하고 이를 관찰용 데크해설판 등으로 자연학습공간화하였다. 부채춤을 추는 듯한 지붕의 형상, 마스트에 팽팽히 연결된 텐션케이블들은 마치 음악소리가 울릴 것 같은 현악기를 연상시키며, 신도심의 하늘아래 평온하게 서 있는 듯대로 무늬 놓은 실루엣은 새로운 세기를 향하는 전주의 미래를 타나내고 있다.

(글: 강춘만)



배치도



지하층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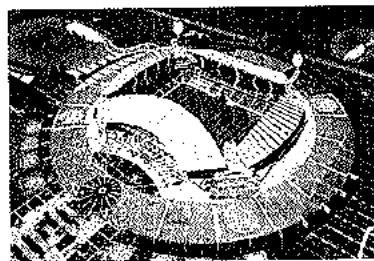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주단면도

▶ 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 (주)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곽홍길)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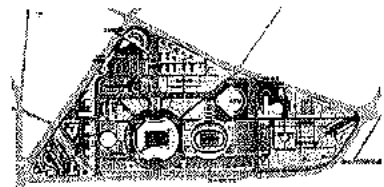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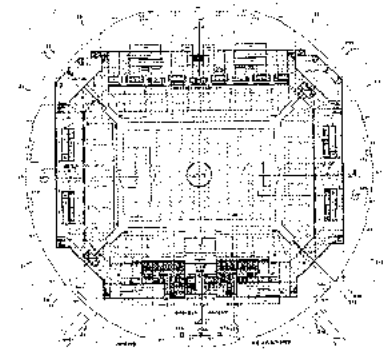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장동, 여의동 일대
대지면적	458,041㎡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	관람집회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42.9m
건축면적	23,479.28㎡
건축연면적	60,699.14㎡
건폐율	5.43%
용적률	8.74%
조경면적	88,654.12㎡
구조	지붕 - 철골조(SS), 스탠드바닥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SC), 경사보 - 철골조(SS)

주차대수	4,204대
계획담당	서학조, 안용환
협력업체	구조 - 신기술자문·정일구조, 기계 - 우원설비, 전기 - 제일설계, 토목 - 다산ENG, 조경 - 동심원, 타당성조사 - K&K, 교통 - 교통과학연구원, C.I-김현선디자인연구소, 무대 - (주)진명, 도시설계 - (주)동신, 모형 - 구성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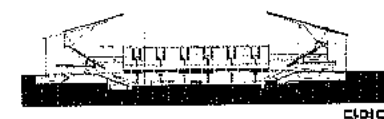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주 월드컵 경기장

Cheju Worldcup Stadium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 1월 21일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한 터키 입찰 설계경기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의 당선작은 포림산업을 대표로 한 컨소시엄(한국중공업(주), 성지종합건설(주), 한샘종합건설, 성림건설, 남도종합건설, 부건종합건설, 서강종합건설, 삼원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동우종합건설)으로 (주)일건건축사사무소(황일인)안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금호건설을 대표로 한 컨소시엄(우진종합건설, 대도종합건설, 아산종합건설, 별강종합건설, 덕영종합건설, 일호종합건설)안인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주)종현종합건축사사무소(최종철)안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건축계획: 신석하(제주산업정보대), 양상호(탐라대), 김자호(중앙대), 심우갑(서울대), 이세환(이세환건축), 김한준(김한준건축), 양창웅(주.오름건축), 오승훈(원양건축), 조주환(삼우인터내셔널건축)

건축구조: 한재봉(탐라대), 양수현(제주한라대), 김상대(고려대), 김금한(건설기술연구원)

건축시공: 김태일(제주대), 임태준(제주산업정보대), 정상진(단국대), 신성우(한양대), 양창희(주.범건축)

기계설비: 최동호(제주대), 신현준(건설기술연구원)

전기통신: 이항화(한국통신 제주지사), 엄재건(한국통신 월드컵통신사업단), 오성보(제주대)

토목: 김문훈(현대건설엔지니어링기술사무소), 문환영(한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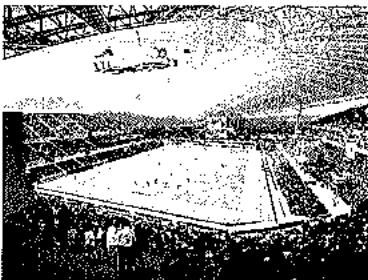
조경: 고동희(제주산업정보대), 이진희(제주대)

유지관리: 강상주(서귀포시), 양영철(제주대), 정구철(탐라대)

▶ 당선작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조감도



내부투시도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법랑동 914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32,000㎡
건축면적	26,175.64㎡
연면적	66,387.14㎡
구조	스탠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 지붕 - 케이블 & 트러스 현수구조
주차대수	1,024대
협력업체	구조 - (주)전우구조, 지붕구조 - 성균관대 구조연구소, 기계 - (주)우원, 전기 - (주)보우티앤씨, 통신 - 한국통신기술(주), 토목 - (주)동명기술공단, 조경-조경설계서안(주)

전 세계 30억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제주 2002 월드컵 경기장은 '세계'로서의 인식성이 강하고, '모임의 장소'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제공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기장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과 정서가 담긴 유니크한 모습이어야 하며, 주위의 자연환경에 잘 순응할 뿐 아니라 제주의 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현대적인 기술로 표현한 미래 지향적인 모습

의 환경 친화적인 '그린(Green) 경기장'이 되어야 한다.

대지의 축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바다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는 신도시가 만드는 도시축을 따라 신시가지의 남쪽 제주 일주도로 건너에 자리잡고 있다. 몇 가지의 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장의 주축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진북 방향에 일치시키고, 도시축을 주 진입 축으로 하여 두 축이 서로 자연스럽게 엇갈리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제주 지방 특유의 진입로 배치 방식인 '올레'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경기장의 형태 - 오름

"오름"이라는 경기장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경기장은 제주도 지형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인 '오름'을 닮았다. 지형을 따라 낮은 곳을 깎아 편평하게 경기장을 만들고, 그 주위에 꼭 필요한 구조체만을 만들고, 이 구조체를 여기서 나온 송이흙으로 단역을 만들어 '오름'을 닮게 만든 이 '오름' 스타디움이야말로 참으로 제주를 닮은 제주의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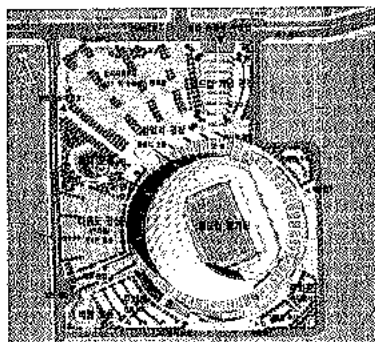
지붕의 디자인 모티프

제주의 전통 배배인 '테우'는 인장구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로서 이 구조방식은 제주의 가장 친근한 풍경인 제주 초기지붕과 함께 '오름' 경기장 지붕의 형태와 구조방식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모티프가 되었다. 반달 모양의 거대한 지붕들은 6개의 마스트에 케이블로 매달려 있으며 지붕재료는 반 투명성의 테프론코팅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낮에는 관람석에 부드러운 자연 채광을 이룰 뿐 아니라 밤으로는 경기장내의 조명이 지붕으로 배어 나와 이 지붕은 감글나무의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날개와 같은 모양으로 주위를 밝혀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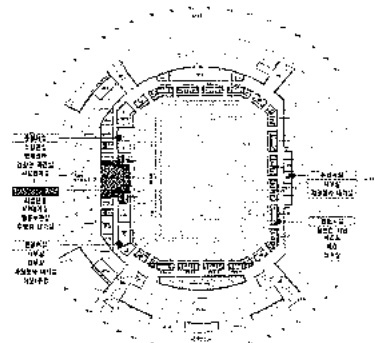
외부공간

경기장 외부에는 각각 다른 기능과 형태를 가진 크고 작은 오름들이 어울려 외부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물담, 정남,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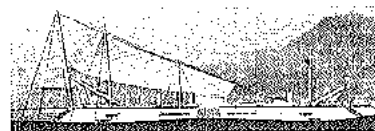
하루방 등 제주의 문턱요소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구조물들이 제주의 독특한 향토성을 강조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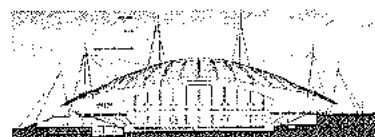
배치도(대회중)



1층 평면도



남측입면도



중단면도

▶ 참가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 + (주)종현종합건축사사무소(최종철)



조감도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914번지 일원
대지면적	134,122㎡
건축면적	25,971.13㎡
연면적	62,377.11㎡
건폐율	19.36%
용적률	38.45%
조경면적	31,443.0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시설지구
용도	관광집회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6층
구조	스탠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구조, 스탠드 하부 - 기둥: S.R.C조 보: S.C조 슬라브: Deck Plate, 지붕 - 스페이스 프레임+Mast
주요외장재	지붕 - 흡음액크 패널위 무광택 영보상 스텐레스 쉬트(상부)+폴리카보네이트 쉬트, 외벽 - 몰탈위 인코트, 기둥 - 몰탈위 인코트, Mast - ϕ 1200~ ϕ 1500 스틸파이프워 정크프라이머후 에폭시 도장, Deck 바닥 - THK15 석재타일, 외부 천정 - 노출콘크리트

성북구 영화기념관 및 제2구립도서관

The Movies Memorial Hall & 2nd Public Library of Sungbukku

성북구는 아리랑 고개를 문화공간으로 계획하는 차원에서 영화기념관 및 제2구립도서관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36개 작품 중에서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길·김희옥)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2월 25일에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는 지인건축사사무소(김해동)안과 (주)위가건축사사무소(민선주·김은경)안이 우수작과 가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 당선작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길·김희옥)



영화기념관 투시도



제2구립도서관 투시도

영화기념관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13-32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954㎡
건축면적	335.22㎡
연면적	1,110.87㎡
조경면적	439㎡
건폐율	35.14%
용적률	75.44%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제2구립 도서관

위치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38-98외 5필지
지역지구	종치지구
대지면적	1,398㎡
건축면적	411.2㎡
연면적	1,663.82㎡
조경면적	292㎡
건폐율	29.41%
용적률	79.81%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물갈이, 벽 - 수성페인트, 천장 - 암면텍스
외부마감	벽 - 알루미늄복합패널+화강석 버너마감, 창 - 알루미늄복합소수지코팅후레임 Φ 16컬러

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상길, 김희욱, 차동화, 김형국, 류창우, 지용운, 김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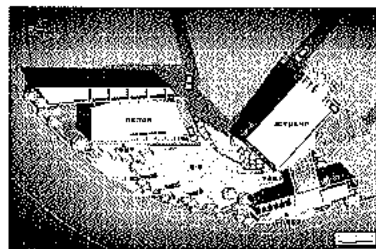
성북구에서 아리랑 고개를 문화공간으로 계획하여 기념관과 도서관을 건축하고, 거리 전체를 영화의 거리라는 통일된 주제로 재구성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의 가로를 재계획하여 새롭게 문화적인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발상하에서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이러한 가로계획에서 그중 건축가에게 할애된 정상부의 711평의 대지는 가로계획의 핵심지역으로 실제적인 문화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가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또한 독립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뚜렷하게 갖는 장소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개념적 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은 '영화와 건축'의 만남일 것이다. 두 장르 모두 형식을 중요시하며, 공간을 다루고, 특정관객이 아닌 공공의 대중에게 예술적 완성도를 묻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서로간의 융합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많은 건축가들이 영화를 이야기하고 관심을 표면해온 것으로 볼 때 영화를 테마로 한 이 프로젝트는 여러 건축가의 조형적 공간적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쳐야 하는 영화에 대한 건축적 개념을 초기 실마리를 푸는 단서로 삼았으며 그에 대한 생각이 많은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영화를 생각할 때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건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영화의 속성 혹은 영화적 기법을 건축화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영화인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과 그때 발생하는 행위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르 꼬르뷔제가 "출입문을 열면 난간위로 폭발할 듯이 광경이 펼쳐지도록"한 것이든 최두남이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와서 "연결되고 시선을 억제하여 광망되는 경관에 박진감을 최대한 느끼도록"한 것 같은 기법이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고 복선에 의해 스토리가 역전되는 영화적인 느

낌이 전체구성을 지배하는 예가 될 수 있다. 후자는 방문객이 주인공이 되고 건물이 배경이 되는 그래서 어떠한 퍼포먼스도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 설계는 가로로부터 장소로 진입하여 옥외공간을 거쳐 목적공간으로 가는 일련의 동선에 초점을 맞춰 계획하였는데, 각 동선의 연결점에서 뜻하지 않는 장면을 접하게 함으로써 영화적인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고 공간을 사색하게 하는 시선이 주제가 되는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가로로부터 이 장소를 진입할 때는 대문을 거치 듯 가로에 면한 벽면의 하부를 뚫고 들어온다. 이곳의 장면은 면을 뚫은 시선이 깊게 연결되어 마당으로 상승되는 확트인 공간으로 이어지고, 이곳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동선과 기념관으로 가는 동선이 구분된다. 도서관으로 들어서면 코아공간(계단, 화장실)과 주공간이 분리되고 그 사이가 3층까지 비워져 있는 아트리움에 면하게 되는데, 이 공간의 전면은 3개층을 연결하는 대형 유리면을 통해서 영화의 거리와 멀리 성신여대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원한 원경이 가득차게 된다. 2층과 3층의 주공간은 코아로부터 브릿지를 통해 아트리움을 가로 질러 들어간다. 이때 브릿지의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각 층별 시야는 서로 다른 양상을 갖게 되는데 상하의 브릿지가 원경을 프레임으로 한정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것이다. 영화기념관으로 연결되는 동선은 옥외 마당을 거치게 되며 이곳은 영화인과 일반인이 만나고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는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영화기념관으로 들어서면 1층부터 3층까지 일자로 길게 연결된 계단이 시선에 들어오는데 2층의 전시실과 3층의 사랑방은 계단을 통해서 만나는 각기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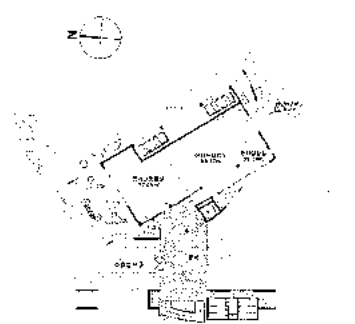
이 건물은 외부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조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지 않고 건물 자체가 마당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무대배경이 되고,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는 벽이 되도록 하였으며, 층을 3층으로 낮추고 위압적이지 않게 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내려하였다. (글 / 김상길)



배치도



영화기념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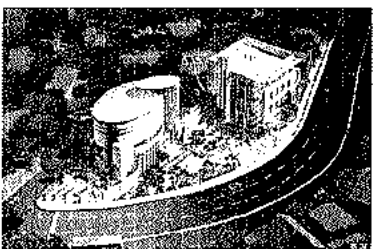


도서관 1층 평면도



입면도

▶ 우수작 / 지인건축사사무소(김해동)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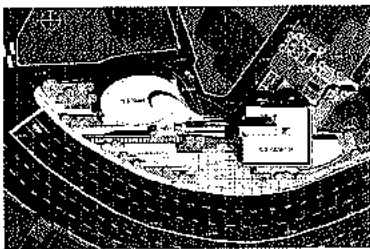
영화기념관

대지위치	성북구 정릉동 113번지 32호 외 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954㎡
도로현황	서측 - 25m도로, 동측 - 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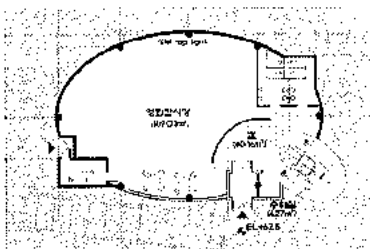
	도로, 6m도로
연면적	1,110㎡
건축면적	279.40㎡
건폐율	29.28%
용적률	116.35%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화강석, AL Sheet 및 투명복층유리
설비개요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소화설비
주차개요	8대
조경면적	110㎡

제2구립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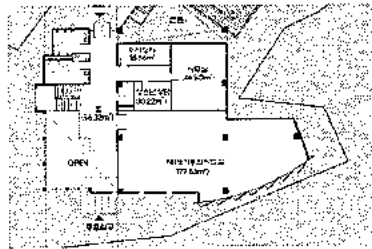
대지위치	성북구 돈암동 538번지 98호 외 7필지
지역지구	풍치지구
대지면적	1,398㎡
도로현황	서측 - 25m도로, 동측 - 4m도로, 6m도로
연면적	1,691㎡
건축면적	383.05㎡
건폐율	27.40%
용적률	120.96%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외부마감	화강석, AL Sheet 및 투명복층유리
설비개요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소화설비
주차개요	9대
조경면적	조경 430㎡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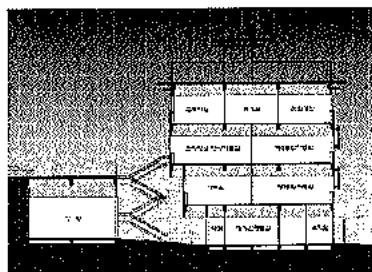
영화기념관 지하1층 평면도



제2구립도서관 2층 평면도



정면도



제2구립도서관 종단면도

▶ 가작 / (주)위가건축사사무소(민선 주 · 김은경)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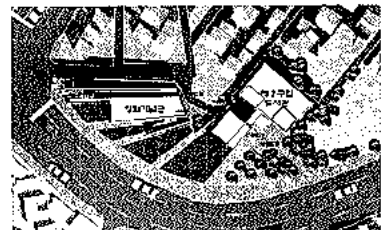
영화기념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로현황	25, 6m도로
대지면적	954.0m
건축면적	274.74m
연면적	1,092.61m
건폐율	28.80%
용적률	81.74%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	8대(지하주차장)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구조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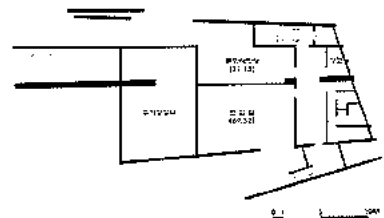
제2구립도서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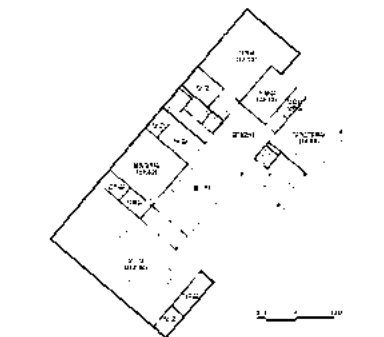
도로현황	25, 6m도로
대지면적	1,388.0m
건축면적	380.79m
연면적	1,646.67m
건폐율	27.24%
용적률	69.34%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두께 24 복층유리
주차대수	8대(지상주차장)
구조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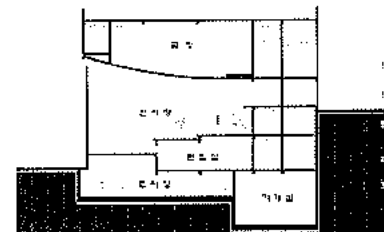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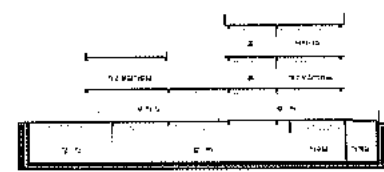
영화기념관 1층 평면도



제2구립도서관 지하1층 평면도



영화기념관 단면도



제2구립도서관 단면도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view

Domus

Architecture

a+u

建築文化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2월호

이번호는 진보된 건축관련 소프트웨어와 그로 인한 디자인과 정의 변화와 90년 가까이 되었던 뉴욕



Grand Central Terminal의 개보수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근작으로는 자연과의 교감과 명상의 공간을 추구하는 안도 타다오의 TOTO Seminar House를 다루었다.

■ 건축관련 소프트웨어의 진보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건축가의 디자인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CAD시스템의 그래픽 재현에서 진보한 Intelligent Objects의 데이터 구축에 있다.

Intelligent Object는 벽, 창문, 지붕 등에 복합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서 시공도, 일정표, 시방서 작성 등이 위의 정보로부터 자동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단계의 도면 작성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디자인 결정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 외에도 건물의 전 수명에 걸쳐 건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건축가, 시공자, 컨설턴트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면, 구조, 설비적 분석, 시방서, 견적서 등의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이 정보가 사용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의해 응용되는 것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 뉴욕 Grand Central Terminal의 개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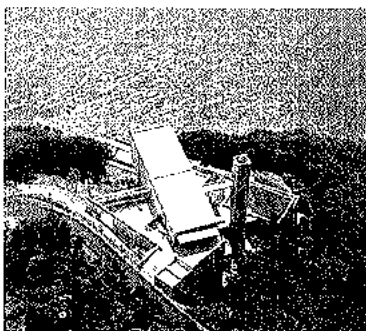
1913년 Beaux-Arts 양식의 Grand Central Terminal이 처음 문을 연 이래

로 누수, 오염된 표면, 입주 상인들의 저분한 사용 등에 의해 건물은 개보수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Beyer Blinder Belle(BBB)이 이 작업을 맡게 되었다. 기계 설비시스템을 현대화하였으며, 특히 터미널의 환송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주 진입홀에서 이루어졌는데, 거대한 코닥 광고판이 제거되고 동측면이 개방되어 진입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BBB의 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객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전의 변경안을 다시 변경한 것인데, 1927년 램프 위까지 티켓오피스를 확장시켰던 것을 수정하여, 좁고 어두운 터널이었던 것을 건물의 가장 스펙터클한 전망을 제공하는 통로로 바꿔놓았다. 또한 이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발코니부분에 고급 레스토랑을 두어 진입홀의 주된 전망을 제공하는 이 부분을 재생시켰다.

■ 근작소개

▶ 안도 타다오의 일본 Hyogo, TOTO Seminar House



안도 타다오의 일본 Hyogo, TOTO Seminar House

TOTO사의 휴양시설 및 연수시설인 이 건물은 기존의 리조트 시설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안도는 편리함과 일상 삶의 수용은 우리로부터 정신적 풍요를 제거한다고 주장해왔다. 건축주는 이러한 그에게 디자인과 사이트의 선정까지 맡겼고, Awaji 섬의 동쪽해안에 명상적이고 조용한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안도는 그의 통상적인 재료사용과 디테일처리를 적용하였으며, 이 건물이 사이트를 접하는 방식은 이전의 그의 초기안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방문자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접점으로

서 이 장소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경관이 프레임에 잡히게 조작하는 데서 나아가 방문객이 미풍과 햇살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연을 건물안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 밖에 ▶Eric Owen Moss의 캘리포니아 Trivida 주택을 소개하였다.

■ 건물유형연구 - 산업용건물의 재생
많은 50년대 60년대 건물들의 운명이 철거될지 그대로 보존될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독창적으로 재생된 네 개의 산업용건물을 소개하였다.

▶Lamott Architekten BDA에 의해 19세기 도살장 건물이 Landau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Hagy Belzeberg Architects에 의해 LA, 1930년대 창고 건물이 개조된 레스토랑은 창고의 목재 트러스가 역동적 형태를 만들어내었다. ▶코네티컷주의 기념비적 형태의 콘크리트 물 탱크는 건축가인 Peter de Brettville의 집으로 변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Dirrix van Wylick의 네덜란드 Eindhoven 전구 생산공장은 디자인 학교, 음악당, 카페, 전시장, 도서관의 문화복합시설로 재생되었다.



Landau 도서관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2월

이번호는 환경건축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환경에 대한 대응을 독창적으로 보여준 원시



림위의 Walkway와 사막에 위치한 호텔, 그리고 고층 오피스 타워에 식재된 스크린을 부착하여 수직 정원을 만들어낸 안을 소개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가는 기둥과 실크스크린된 유리벽에 의해 추상화된 숲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공원에 위치한 카페를 다루었다.

■ Design Review

호주 서부에 위치한 Valley of the Granite 원시림의 조망을 제공하는 Walkway는 부식토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숲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나무 위로 Walkway가 조성되었으며 목재의 방파제는 Walkway를 지지하는 6개의 다리 트러스와 이어져서 수목의 지붕 아래로 뱀처럼 연결되었다. 철재양의 바닥판은 방문자로 하여금 밑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구조의 경량과 투명함을 획득하였다.

■ 기획특집 - 환경건축

인류가 생태 위기에 대처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진보된 기술과 전통으로부터의 교훈,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대처와 결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1970년대 중반 에너지 위기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건축역사에 걸쳐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Arts and Crafts 운동의 생활 기능적 경직과 Ebenezer

Howard의 Garden Cities, Geddes와 Mumford의 지역 설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 모두 그것의 예가 될 수 있으며 넓은 환경건축의 콘텍스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German del Sol의 칠레 San Pedro Atacama 호텔



German del Sol의 칠레 San Pedro Atacama 호텔

칠레 북쪽 Atacama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강한 빛의 제어는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지붕선은 배란다 공간까지 연장되어 그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붕의 슬릿은 빛의 눈부심 방지역할을 한다. 지붕은 곡면의 윗 부분과 평탄한 아래 부분으로 구성되며 두 층 사이로 빛과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Enrique Browne의 칠레, 산타아고 사무소 건물

식재된 스크린이 건물 전면에 부착되어 수직 정원을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은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얻고 있다. 서쪽에 면하고 있는 평면의 긴면은 일사에 의해 눈부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과열 작용이 있었는데, 식재된 격자 스크린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었다.

그 밖에 ▶Peter Hubner의 독일 Cologne 학교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스코틀랜드 Archaeolink 선사 박물관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영국 Cornwall 재생에너지 센터 ▶T. R. Hamzah & Yeang의 싱가포르 Exhibition Tower ▶Hajime Yatsuka의 일본 Nagaoka 플리 ▶Sauerbruch Hutton Architects의 뎃 사우 환경청 ▶Troppo Architects의 호주 Fannie bay 레스토랑 ▶Mario Cucinella Architects의 이태리 Recanati 사무소 건물 등이 환경건축의 측면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인테리어 디자인

▶Kazuyo Sejima의 도쿄근처 Koga, Park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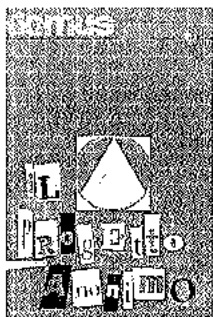
Kazuyo Sejima의 도쿄근처 Koga, Park Cafe

이 카페는 이바라키현의 공립공원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완만한 경사면에 긴방향으로 놓여있다. 건축가는 극도로 추상적인 형태를 놓음으로써, 조심스럽고 복합적으로 사이트에 대응하고 있다. 카페는, 따뜻한 날에 문을 열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루어진 유리벽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면이 나무널이 깔린 테라스에 면하고 있다. 녹색으로 실크 스크린된 유리면과 그것에 의해 반사된 수직 부재는 무수히 많은 기둥들로 비쳐지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숲의 효과와 함께 건축가가 디자인한 곤충모양 가구가 더해져서 다소 초현실주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있다. 이 밖에 ▶Munkenbeck & Marshall의 Wiltshire, New Art Center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Domus

1999년 2월

이번 호에서는 디자이너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디자인을 주제로, 일반화되어 있으면서도 최적의 기능성 및 조형성을 달성한 건축 및 일



반 산업 디자인 계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최근 작품들로 Rem Koolhaas의 보르도 주택, Enric Miralles와 Benedetta Tagliabue의 조형물 Domus Totem 2가 소개되어 있다.

■익명의 건축

익명성은 주거 건축에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일상의 모든 요소들이 생활의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건축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꾸미지 않은 오두막의 외도하지 않은 단순함이 주거에 있어서 오히려 그 거주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Tuscany 지방의 헛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에 갑자기 솟은 프레임과 지붕으로 나타난다. 건축적 의도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고대 신전의 우아함을 자니고 있다. 이러한 헛간은 텍사스 Marfa의 버려진 군용건물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은 Donald Judd의 작품개념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공간에 놓인 물체와 그 공간 자체는 건축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St Martin Walter Pichler의 조각을 위한 집

조각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채운다. 이것은 그의 예술적 컨셉이며, 따라서 조각들은 그것을 위한 방과 집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인 매체에 집중하여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높은 경지의 장인 기술로 익명성에 대한 기념물인 집들을 만들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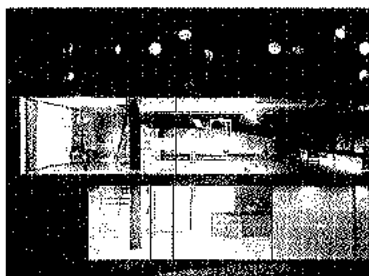
▶그 외에 아일랜드 Skibbereen에 위치한 Phillip Gumuchdjian의 Houseboat "The Think Tank", Luc Deleu의 네덜란드 Poortugaal 주택, Pietro Derossi의 프랑스 Turin에 있는 Corso Francia 집합주거가 개제되어 있다. 일반 디자인 부문에서는 종이 콜립, 낚시 고리, 빨래 집게 등 일상 용품 속에서 발견되는 익명의 명발명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저명한 디자이너들의 베스트 셀렉션도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결코 미적인 측면을 의도적으

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적인 형태들은 언제나 간결한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근작 소개

▶Rem Koolhaas/OMA의 프랑스 보르도 Floriac 주택

최근 다른 잡지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지만 이 잡지에서는 저명한 건축 이론가 Beatriz Colomina의 방문기를 다루고 있다. 장애자인 건축주를 위한 3m x 3.5m 넓이의 대형 엘리베이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택은 입구 및 부엌 등이 위치한 1층, 침실들이 위치한 3층, 그리고 그 사이의 '비어있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이면서도 세 개의 Void에 의해 각 공간들이 나눠져서 각 공간의 독자성을 도모하는 등 도시적인 속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구조적으로는 맨 위층의 볼륨을 말굽보가 아래서, 중공 콘크리트 기둥과 이에 연결된 H형강이 위에서 지탱(무게 중심은 H형강의 한쪽 끝에 추를 매달았으로써 맞추어 주고 있다)해주는 방법을 취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위층 볼륨은 바닥이 아닌 벽이 주요 구조재로서 최소한의 개구부만 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떨어진 수많은 원형창들은 아이, 어른, 장애인 등 다양한 시선들에 맞추어 그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르 코르뷔제가 사람의 눈높이를 175cm로 일반화시켰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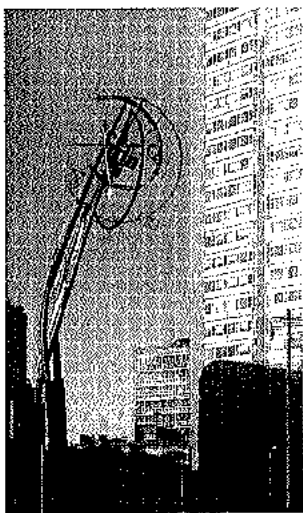


Rem Koolhaas/OMA의 프랑스 보르도 Floriac 주택

▶Domus Totem 2

97년 Ron Arad가 의자를 쌓아 만든 Domus Totem에 이어 Domus Totem 2는 건축가 Enric Miralles와 Benedetta Tagliabue에 의해 제작되었다. Domus지의 70주년 기념으로 세워

전 이 기념 조형물은 Domus 독자들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대중에게 이 잡지가 다루는 대상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밀라노 중앙역 근처 광장에 세워진 Domus Totem 2는 건축적 금속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개념의 시간 읽는 방식을 차용한 시계 기능을 하고 있다.



Domus Totem 2

Architecture

1999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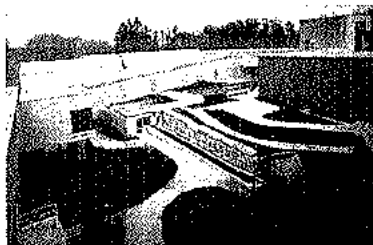
이번호는 타이포로지와 디테일의 측면에서 기존의 Elie Sa- arinen이 설계한 Cranbrook 과학관과 대화하면서 그 연결동선에 혼돈이론을 적용시킨 Steven Holl의 Cranbrook 과학관 증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Ben van Berkle의 대비되는 공간이 교차로 연속되면서 띠를 이루는 뫼비우스 주택을



다루었다. 또한 사파리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 위에 떠있는 리조트 건물을 소개하였다.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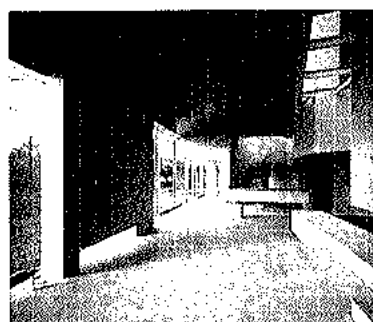
▶Steven Holl의 미시간 Cranbrook 과학관 증축



Steven Holl의 미시간 Cranbrook 과학관 증축

미시간에 있는 Cranbrook 교육센터는 핀란드 건축가인 Eliel Saarinen이 1925년에서 1950년에 걸쳐 디자인한 건물들로 이루어졌다. 이 캠퍼스에 새로운 건물을 부가하게 된 Steven Holl은 혼돈이론, 즉 날씨나 역사처럼 전혀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패턴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기초하는 이론을 Saarinen의 과학관과 부속건물을 연결하는 동선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Holl은 언덕에 앉혀져서 골짜기를 바라보는 캠퍼스 내 다른 건물의 펼쳐레스크한 배치를 따르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진부함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추구한 새 건물의 수공예적 디테일 처리에 의해 이전 건물에 적용된 근대 초기의 윤리적인 공예와 조화를 이루내고 있다.

▶Van Berkel & Bos의 암스테르담 근교 주택



Van Berkel & Bos의 암스테르담 근교 주택

Van Berkel & Bos는 각이진 뫼비우스 띠 형태의 이 주택에서 무한성을 이루내고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순환 동선은 층간 구분을 제거하며, 이것은 연

결된 공간, 형태, 시간의 연속체를 만들어낸다. 모든 방은 순환동선에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자고, 일하고, 생활하는 24시간 주기를 이룬다. 뒤집어진 형태와 동선이 특징인 이 뫼비우스 띠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간의 연속을 만들어내었다. 아늑함과 웅장함, 따뜻함과 차가움, 추상과 즉각, 폐쇄와 개방이 교대로 느껴지는 공간들의 연속은 시간성에 의거해서, 경험을 통해 집이 이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Lindy Roy의 Botswana, Okavango 강 Delta 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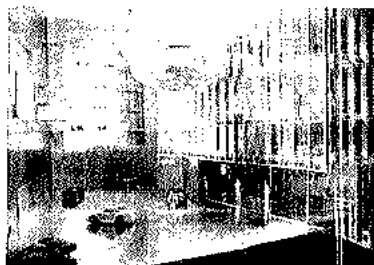
Okavango강은 Kalahari 사막에 다다르면서, 단층에 의해 강은 좁은 수로로 갈라지게 되는데, Roy는 Delta의 이러한 독특한 환경에 착안하여 온천 휴양지로 만들었다. 이 곳은 7개의 독립적인 시설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수면 밑의 Pylon에 의해 지지되어서 강에 떠있는 듯이 보인다. 이용객은 떠있는 시설물 위에서 온천을 즐기며, 주위 아프리카 원시림의 열대열대, 사자, 치타 등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구매객의 동선과 움직임에 의해 형태가 결정된 슈퍼마켓, Wood and Zapata의 플로리다 Public on the Bay ▶Lubowicki/Lanier Architects의 LA 서부, 게스트 하우스 ▶이집트를 모티브로 삼은 Hodgetts+Fung의 할리우드 American Cinematheque 등이 소개되었다.

■기타

▶수영장의 문화적, 사회적, 건축적 영향을 고찰한 Thomas A. P. Van Leeuwen의 수영장에 대한 역사, <The Springboard in the Pond> 리뷰 ▶최근의 아시아 경제 위기로도 불구하고, 지진 다발지역인 동경 대신에 새로운 수도 건설에 대한 건축계의 반응 ▶Perkins Eastman의 뉴욕 자연사박물관, 나비 온실의 설비 및 구조 등을 다루었으며 ▶Frank Lloyd Wright의 아들인 Eric Lloyd Wright의 건축이 최근 책으로 출간됨을 기해서 그의 건축을 재조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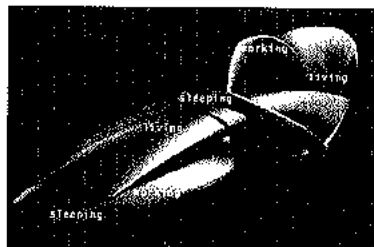
이번호는 네덜란드 건축가 특집의 두 번째 기획으로 렘 콜하스와 벤 반 베르켈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렘 콜하스(OMA)의 최근작과 프로젝트 6점, 벤 반 베르켈(UN-Studio)의 최근작 4점이 소개되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에세이는 자크 뤼캉, 마이클 스피크스, 바트 룩츠마가 집필했다. 연재물로는 '시(時)의 시점 제2회: 안토니 레이몬드와 일본의 주택건축'이 게재되었다.

■ 렘 콜하스와 벤 반 베르켈



콜하스의 네덜란드 대사관

매너리즘화한 생산물로 넘쳐나는 한편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렘 콜하스와 벤 반 베르켈은 그들의 명석한 비전으로 한줄기 빛을 내뿜고 있는 것 같다. 전자는 도시의 힘을 끌어들이며, 후자는 최신의 테크놀러지를 이용한다. 그들의 전략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더욱 명쾌하게 읽혀지는 한편 주택이 건축의 상태를 측정하는 충실한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보르도의 주택은 예를 들어 수평연속창, 필로티, 혹은 '자유로운 상자(Free Box)'에 새로운 해석을



베르켈의 외비우스 컨셉 드로잉

고려하고 있어, 근대건축의 근원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주택은 엘리베이터에 의해 주택의 물리적 공간의 리얼리티가 변화해 가는 것을 통하여 생성되는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외비우스 하우스는 2개의 차원을 하나의 연속된 표면으로 접어내는 것이 가능한 외비우스의 띠에 기인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에 의해 공간과 시간, 프로그램과 표면을 비틀면서 이 주택의 변증법적인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고 있다. UN-Studio가 새로운 체재를 갖추고,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을 때에 OMA는 이제껏 해오던 바대로 도식의 명쾌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가능성을 이용하며 세계적인 활동을 계속해가고 있다. 우리들은 렘 콜하스의 뒤를 따르며, 자크 뤼캉이 지적하는 바처럼 그와 함께 그의 도망갈 수 없는 로직의 포로가 되어버려야 하는 것일까. 혹은 마이클 스피크스가 논하는 것처럼 그는 중세적 사고를 넘어보면서 '현대도시 생활의 니치(Niche)를 만들어가는' 것일까. 벤 반 베르켈은 형태로 다이어그램을 위장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는 거대한 단일화된 네트워크(United Network) 속에서 건축을 개방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걸출한 두명의 건축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들 문제에 대해 답하려 하고 있다.

■ 작품과 에세이

렘 콜하스의 작품으로는 보르도의 주택, 네덜란드 대사관/人知學센터, 일리노이 공과대학 학생센터 설계경기 프로젝트, 취리히 국제공항 확장계획, 스킵폴 공항 프로젝트, 스카이스크레이퍼 스테디 등이며, 벤 반 베르켈의 작품으로는 외비우스 하우스, 빌라 윌브링크, 베네치아 건

축대학 산 바질리오 냉동창고제구 신동(新棟), 그라츠의 뮤직 시어터 등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렘 콜하스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자크 뤼캉의 「건축의 자발적인 포로들」, 마이클 스피크스의 「OMA의 특이성」이 게재되었으며 벤 반 베르켈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바트 룩츠마의 글 「의상을 통합한 다이어그램」이 소개되었다.



베르켈의 외비우스

建築文化

1999년 3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키타야마 코의 작품세계를 다루었다. '공간의 구성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그의 1993년



부터 1999년까지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주택, 여관, 공장, 소학교에 이르는 건축물을 권력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형태의 탐험을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

■ 키타야마 코의 공간 구성 시스템

먼저 그의 공간 구성의 실험에 대한 테마에 대해 알아보자. 그의 공간실험은 단순히 조형적인 논리에 의한 형태의 유희의

자원을 넘어서었다. 현대의 건축은 형태를 고안하여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건축의 형태가 꼭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태 자체에 유일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형태는 어떠한 근거도 갖지 않게 되고, 형태를 사용하는 건축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형태의 존재증명(存在證明)은 건축의 존재증명과도 같은 것이 되어 건축의 근거를 움직이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모더니즘에서는 '기능'이라는 말이 그 근거를 이루고 있다. 그 이전까지 건축은 왕권이나 종교권위가 표상하는 실체적 미디어로 존재해 왔다. 근대에 있어서 '인간의 동작'이라는 주변에 자리잡고 있던 문제를 '기능'이라는 말로 유출하여 건축의 존재형태를 인간과 공간을 관계짓는 시스템으로 재편했다는 것은 20세기 우리가 획득한 커다란 변화이다.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이 '효율'이라는 말로 변환되면서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게 되어 의사결정부재의 오토마티즘(Automatism)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오토마티즘에 대항하여 건축 형태의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도일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은 과거 건축이 왕권이나 종교권위에 종속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힘의 논리(권력, 제도, 정치 등의 기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의 논리)에 대항하여 인간의 감정이나 신체의 감상에 그 뿌리를 둔 입장에서 형태를 탐구하자는 것이 그의 테마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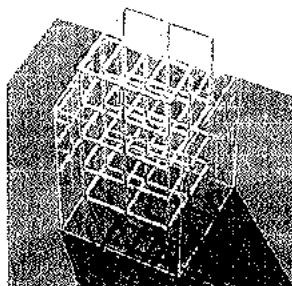
■ 작품

그의 형태 실험은 주택에서 활발하다. '도식으로서의 주거'라는 주제로 F3 House, House in House, Lime House, 伊豆의 나인스퀘어 등 4개의 주택작품이 소개되었다. 또한 '소재와 부품이라는 제도'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소재와 부품의 규격이라는 제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그의 시도들을 '아디에나 앓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는 주제로 瀬島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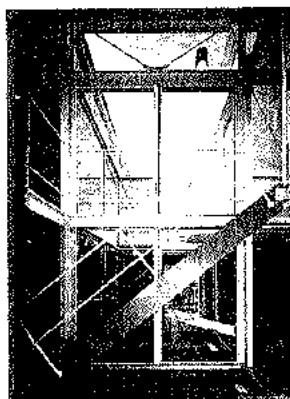
Cranes Factory 두 개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환경을 접하는 신체'라는 문제제기를 '환경에 개방되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S-House, Z-House, Plane House, Omni Quarter 등의 4개의 주거 건축이 소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의 공간에서 집합과 선택의 문제를 다룬 '집합의 시스템 / 참가의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白石시립초등학교와 白石市の 집합주택, Commom Wall 등 3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House in House



Plane House



나인스퀘어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후원금 입금 현황

(단위: 원, '99. 4. 7 현재)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99. 3. 3	1,000,000	이종찬(원양건축)
'99. 3. 5	1,000,000	최봉수(범한건축)
'99. 3. 10	3,000,000	황알인(집행부위원장)
'99. 3. 15	2,000,000	(주)신화ENG종합건축
'99. 3. 17	5,000,000	천일건축(한규봉, 지정위원장)
'99. 3. 18	1,000,000	최재현(주)신화ENG종합건축
'99. 3. 19	1,000,000	이상건축
'99. 3. 20	300,000	강남건축
'99. 3. 25	200,000	장서준
'99. 3. 25	3,000,000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99. 4. 1	1,000,000	동우건축(강철구 소장)
'99. 4. 2	1,000,000	창조종합건축(조재원 사장)
'99. 4. 6	10,000,000	희림건축(이영희 조직위원)
계	29,500,000	13개처

정정합니다

개정건축법(지나호 pp. 118~119)중 '공포후 3개월이 지난날(99. 5. 9.)부터 시행되는 사항 중 신고대상건축물의 확대(제9조)'를 '공포한 날(99. 2. 8.)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정정합니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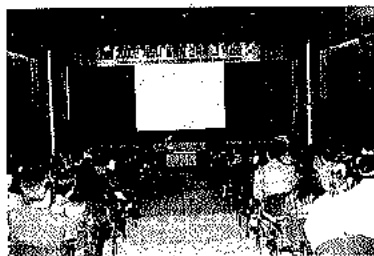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6,819	2,695		640		509		213		221		242		121		799		157		177		172		181		98		228		302		64		
급 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회 원 수	6,786	23	2,680	5	639	1	509		212	1	221	0	241	1	121	0	795	4	157	0	176	1	168	4	178	3	97	1	226	2	302	0	64	0
회원 변동 사항	입 회	51	0	10		5		4		1			1			10		2		2		1		2		3		6		1		3		
	재 입 회	4	0	2		1				1																								
	전 입	13	0	5					1	1						4	2																	
	전 출	8	0	1					-1	-1						-3									-1		-1							
	사 패 영	-15	-1	-6				-2		-1					-1	-4					-1								-1					
	사 망	0	0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6,841	22	2,700	5	645	1	511	0	212	1	222	0	242	1	120	0	802	4	161	0	177	1	169	4	180	3	99	1	231	1	303	0	67	0
계	6,863		2,705		646		511		213		222		243		120		806		161		178		173		183		100		232		303		67	

98년도 회원변동사항(2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입 회	119	0	17		5		6		5		3		7		1		23		7		12		5		3		2		10		9		3	
재 입 회	9	0	4		1						1						1						1							1				
전 입	31	3	10						1		1		1				8		3				4	1	2	2				1				
소 계	159	3	31	0	6	0	6	0	6	0	5	0	8	0	1	0	32	0	10	0	12	0	10	1	5	2	3	0	10	0	11	0	3	0
계	162		31		6		6		6		5		8		1		32		10		12		11		7		3		10		11		3	
전 출	24	1	8			2		1	1				1			6	1		1		1		2		2		1		1					
패 영	46	1	24					1	2				1	10	1		1		1		1							1	3					
사 망	1	0	1																															
등록 취소	0	0																																
소 계	71	2	33	0	0	0	2	0	2	0	3	0	0	1	1	0	16	0	2	0	2	0	3	0	2	0	1	0	1	1	3	0	0	0
계	73		33		0		2		2		3		1		1		16		2		2		3		2		1		2		3		0	
누 계	89		-2		6		4		4		2		1		0		16		8		10		8		5		2		8		8		3	

「2천년 시드니올림픽 건축과 그 혁신성」

지난 3월 19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세미나 광경



경기장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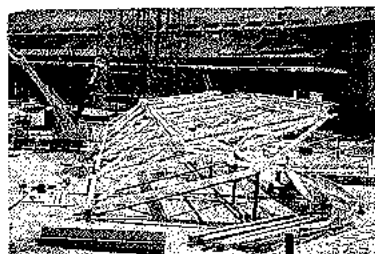
시드니 전경

「3월 호주의 달」을 맞이하여 호주대사관, 호주산업과학지원부 그리고 한국건축가 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3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에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천년 시드니올림픽 건축과 그 혁신성」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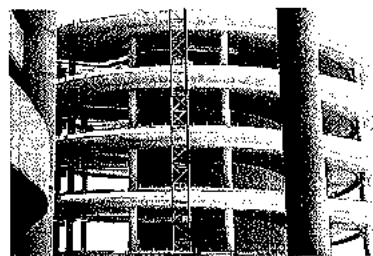
주한 호주대사관은 한국과 호주의 국가적 우호간계를 돈독히 하고 다양한 호주의 대외적 이미지를 한국내 소개하고자 지난 96년부터 호주의 문화와 예술, 스포츠, 건축, 교육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호주의 환경친화적인 건설, 건축문화」와 관련해 한국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공동 협조하에 시드니올림픽 건축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이 날 행사의 발표자로는 빌 바클랜드(호주 2000년 시드니올림픽 메인스타디움 - 멀티플렉스건설 설계 총책임자)와 크리스 존슨(건축가 겸 시드니올림픽 건축 설계서비스 총책임자)가 참여하여 「호주 스타디움에 대한 강론」과 「시드니올림픽 - 기반시설 및 건축디자인 향상 도모」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빌 바클랜드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서 개막식과 폐막식, 육상경기와 축구 결승전이 열릴 호주스타디움의 전반적인

설명과 경기장의 역사, 계약, 건축 및 환경과 구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고, 「세계적 규모가 될 시드니올림픽 스타디움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도 시드니 최고의 경기장으로의 장기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세계적으로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원형구조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 존슨은 「시드니올림픽시설은 설정된 예산에 입각하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아주 선진적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홈부쉬만(Homebush Bay)에 위치하고 있는 시드니올림픽 개최지는 스포츠행사뿐만 아니라 도시형태나 외관에도 새로운 기반시설을 고려, 민도높은 도시종합계획과 치밀한 건축설계과정을 거쳐, 원래의 오염된 불모의 황무지에서 이제 환경친화적인 현대건축 설계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시드니 시내에서 올림픽개최지까지 약 한 시간 안에 5만여명이 왕래할 수 있도록 철도가 신축, 완료되는 등 고속도로, 항구 등의 도시 교통시설을 새로 정비했으며, 또 곳곳에 아파트와 고층상업건물 등이 신축중이고, 신축된 건물들 중에는 국제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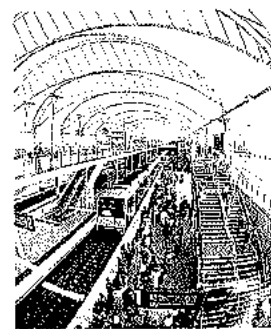
주경기장 지붕 제작 과정



주경기장 계단실



시드니 거리



주경기장과 연결되는 역사 내부

으며 신축 철도역사는 국내 최고 건축상을 이미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선진적인 노하우를 전하는 한편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 호주 - 한국간 건축문화의 교류를 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행사는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한국조경학회,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sydneyolympic.org](http://www.sydneyolympic.org) 로 접속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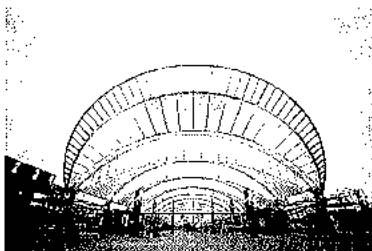
디자인 묘사

이 스타디움은 현대 체육경기 사상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좌석 중 약80%는 3만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일시적 목적의 무대로 쓰일 예정이며, 경기가 끝난 후에 북쪽과 남쪽에 있는 무대가 사라지며 이 경우 좌석 규모는 약 8만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기장은 향후 호주의 주요 스포츠장이 될 수 있도록 직사각형의 구조를 갖게 된다.

스타디움 안의 실내 환기 또한 피치를 염두에 두었고 지붕 커버의 높이와 좌석도 이동시스템에 따라 고려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후 필요에 따라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주경기장



역사 주출입 부분

올림픽형 스타디움

이 경기장은 상이한 회원 그룹으로 나뉘어 입장한다. 골드와 플래티넘 회원들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중앙으로 들어가고 상단에 앉은 사람들은 원형 경사로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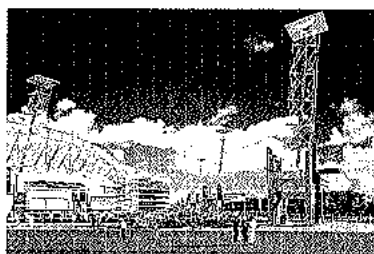
광장에는 음식과 음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품 진열대가 있고 하단에는 160개의 공개된 기업 박스들이 있다. 3층 중간 열에는 102개의 민간 스위트들이 있고, 4층 중간열에는 17개의 민간 스위트들이 있다. 두 개의 연회홀은 1천2백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회원들은 대형 라운지와 바, 식당에서 주문된 음식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디자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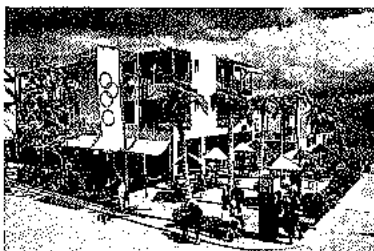
수동적 환기시설, 즉 어떤 기계적 장치도 없는 환기시설이 스타디움에 설치되어 있다. 에어컨디셔닝 할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한다.

스타디움의 디자인이 특별히 고안된 공간을 통해 최대한의 햇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공 조명의 필요성을 최소화했다. 모든 빗물은 스타디움 지붕에서 모아져 네 개의 대형 탱크에 저장되고 이후에는 물을 대는데 사용된다.

식용 가능한 물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



주경기장 광장



경기장내 환경(관람의 장소)

하기 위해, 재활용된 물은 화장실 물 내리는 것에 사용될 것이고 물 절약 장치들이 스타디움 전체에 걸쳐 설치될 것이다. 스타디움 디자인은 피브이씨(PVC)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모든 건축 자재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생명 주기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친화적 Gas Fired Cogenerator가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요 전기공급시설의 예비보충시설로 이용될 것이다.

건설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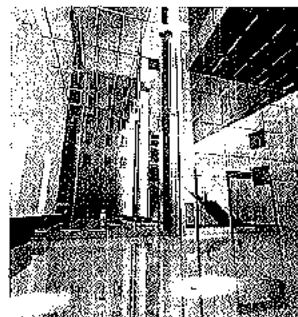
폐기를 분리는 스타디움 건설 과정의 일부분이다. 폐기물들은 흩어지지 않게 분리되어 몇 개의 분류 지류로 나뉘게 되고 이것들은 재활용된다.

먼지와 공기 방출량은 길에 물을 뿌리고 청소차, 침니 펜스, 식물관리를 위한 특별 요구사항들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화한다. 폭우가 내리면 그 빗물을 모아 침전 장소로 옮겨서 Haslam Creek 침전 공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소음발생을 허용수준 이하로 조절하기 위해 소음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주경기장 전경



시내 신축된 건물 내부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2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월분(98.2) 5백7십7만5천4백40㎡ 보다 56.3%(3백2십5만3천6백67㎡) 감소한 2백5십2만1천7백73㎡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2월 누계분 1천2백7십만7천2백50㎡ 보다 65.4%(8백3십1만6천4백65㎡) 감소한 4백3십9만7백85㎡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월분(99.1) 1백8십6만9천12㎡ 보다 34.9%(6십5만2천7백61㎡) 증가한 2백5십2만1천7백73㎡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울 산	22,830	37,146	14,316	62.7
전 북	36,777	45,691	8,914	24.2
경 북	169,444	213,832	44,388	26.2
제 주	15,521	17,126	1,605	10.3
감소지역				
서 울	3,609,232	1,280,585	(2,328,647)	-64.5
부 산	168,698	80,307	(88,391)	-52.4
대 구	62,546	48,029	(14,517)	-23.2
인 천	44,872	20,884	(23,988)	-53.5
광 주	158,264	55,539	(102,725)	-64.9
대 전	37,296	28,765	(8,531)	-22.9
경 기	466,558	361,860	(104,698)	-22.4
강 원	139,595	14,342	(125,253)	-89.7
충 북	256,650	57,271	(199,379)	-77.7
충 남	100,720	51,122	(49,598)	-49.2
전 남	54,504	35,255	(19,249)	-35.3
경 남	431,933	174,019	(257,914)	-59.7
합 계	5,775,440	2,521,773	(3,253,667)	-56.3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단 독 주 택	61,705 61,830	(0.2%)
다 세 대 주 택	15,715 14,307	(-9.0%)
연 립 주 택	16,479 25,443	(54.4%)
아 파 트	482,359	
근린생활시설	297,543 310,516	(4.4%)
종 교 시 설	43,863 42,627	(-2.8%)
의 료 시 설	15,954 22,984	(44.1%)
교육연구시설	303,170 136,509	(-55.0%)
업 무 시 설	38,999 27,207	(-30.2%)
숙 박 시 설	54,545 9,624	(-82.4%)
공 장	223,265 172,199	(-22.9%)
기 타	315,416 564,300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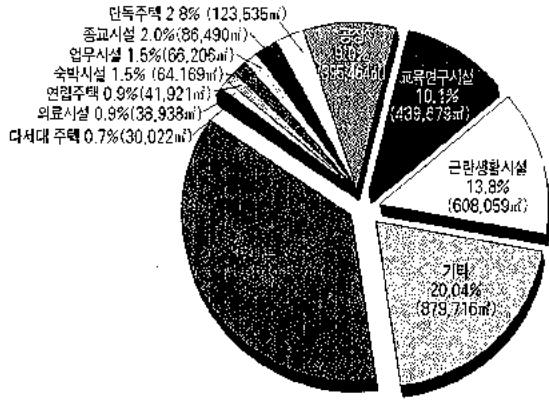
1월: 1,869,012㎡ (34.9%)
2월: 2,521,773㎡

0 1,000 2,000 3,000
(연면적/단위: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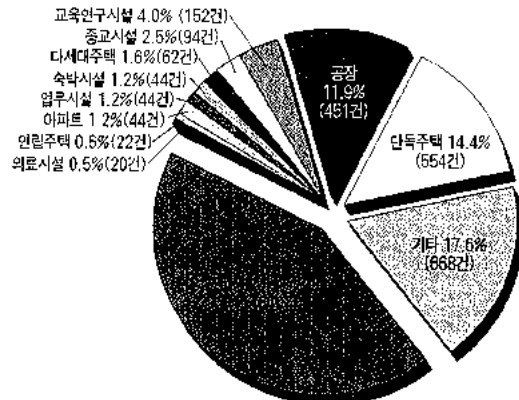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 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670	701	194,793	273	301	61,830	(397)	(400)	(132,963)	-68.3	
다 세 대 주 택	116	125	63,521	28	28	14,307	(88)	(97)	(49,214)	-77.5	
연 립 주 택	42	42	81,217	12	15	25,443	(30)	(27)	(55,774)	-68.7	
아 파 트	45	150	2,969,444	24	46	1,134,227	(21)	(104)	(1,835,217)	-61.8	
근린생활시설	1,014	1,032	468,335	821	858	310,516	(193)	(174)	(157,819)	-33.7	
종 교 시 설	38	49	20,548	48	55	42,627	10	6	22,079	107.5	
의 료 시 설	13	13	48,459	10	13	22,984	(3)	0	(25,475)	-52.6	
교육연구시설	104	112	387,207	58	71	136,509	(46)	(41)	(250,698)	-64.7	
업 무 시 설	50	57	575,918	20	20	27,207	(30)	(37)	(548,711)	-95.3	
숙 박 시 설	92	96	103,425	14	15	9,624	(78)	(81)	(93,801)	-90.7	
공 장	282	382	299,574	195	274	172,199	(87)	(108)	(127,375)	-42.5	
기 타	489	590	562,999	273	313	564,300	(216)	(277)	1,301	0.2	
합 계	2,955	3,349	5,775,440	1,776	2,009	2,521,773	(1,179)	(1,340)	(3,253,667)	-56.3	()=미에나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2월 누계)



연면적 (총 4,390,785㎡)



건수 (총 3,785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597	601	3,609,232	167	167	1,280,585	(430)	(434)	(2,328,647)	-64.5	
부산	68	129	168,698	54	96	80,307	(14)	(33)	(88,391)	-52.4	
대구	65	65	62,546	79	79	48,029	14	14	(14,517)	-23.2	
인천	71	71	44,872	44	44	20,884	(27)	(27)	(23,988)	-53.5	
광주	166	207	158,264	83	99	55,539	(83)	(108)	(102,725)	-64.9	
대전	54	54	37,296	44	44	28,765	(10)	(10)	(8,531)	-22.9	
울산	41	44	22,830	49	52	37,146	8	8	14,316	62.7	
경기	535	643	466,558	360	435	361,860	(175)	(208)	(104,698)	-22.4	
강원	255	283	139,595	61	64	14,342	(194)	(219)	(125,253)	-89.7	
충북	183	234	256,650	127	150	57,271	(56)	(84)	(199,379)	-77.7	
충남	133	113	100,720	113	113	51,122	(20)	0	(49,598)	-49.2	
전북	60	60	36,777	128	128	45,691	68	68	8,914	24.2	
전남	116	121	54,504	95	97	35,255	(21)	(24)	(19,249)	-35.3	
경북	218	235	169,444	133	170	213,832	(85)	(65)	44,388	26.2	
경남	348	433	431,933	181	213	174,019	(167)	(220)	(257,914)	-59.7	
제주	45	56	15,521	58	58	17,126	13	2	1,605	10.3	
합계	2,955	3,349	5,775,440	1,776	2,009	2,521,773	(1,179)	(1,340)	(3,253,667)	-56.3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2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370	1,380	7,147,051	416	418	2,079,656	(954)	(962)	(5,067,395)	-70.9	
부산	594	905	981,856	106	181	137,300	(488)	(724)	(844,556)	-86.0	
대구	109	109	144,344	152	152	153,478	43	43	9,134	6.3	
인천	196	203	285,350	140	140	86,516	(56)	(63)	(198,834)	-69.7	
광주	225	280	214,284	189	224	121,131	(36)	(56)	(93,153)	-43.5	
대전	232	232	192,238	79	79	43,231	(153)	(153)	(149,007)	-77.5	
울산	103	106	77,880	90	94	53,171	(13)	(12)	(24,709)	-31.7	
경기	2,656	2,991	1,634,579	791	947	646,821	(1,865)	(2,044)	(987,758)	-60.4	
강원	424	473	222,056	231	241	77,570	(193)	(232)	(144,486)	-65.1	
충북	375	482	572,746	237	271	98,484	(138)	(211)	(474,262)	-82.8	
충남	271	233	154,812	207	207	90,183	(64)	(26)	(64,629)	-41.7	
전북	116	116	71,334	173	173	104,930	57	57	33,596	47.1	
전남	192	203	92,478	262	266	126,095	70	63	33,617	36.4	
경북	443	495	300,116	284	346	314,093	(159)	(149)	13,977	4.7	
경남	601	735	582,557	320	366	229,508	(281)	(369)	(353,049)	-60.6	
제주	100	124	33,569	108	110	28,618	8	(14)	(4,951)	-14.7	
합계	8,007	9,067	12,707,250	3,785	4,215	4,390,785	(4,222)	(4,852)	(8,316,465)	-65.4	()=마이너스